공연예술 창작산실

신작의 발견



2022

올해의신작

연극
창작뮤지컬
무용
음악
창작오페라
전통예술

2023. 1. – 4.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

구로아트밸리
대전예술의전당
동덕여대공연예술센터
마포아트센터
성수아트홀
소월아트홀
아트원씨어터
이해랑예술극장
CJ아지트
LG아트센터 서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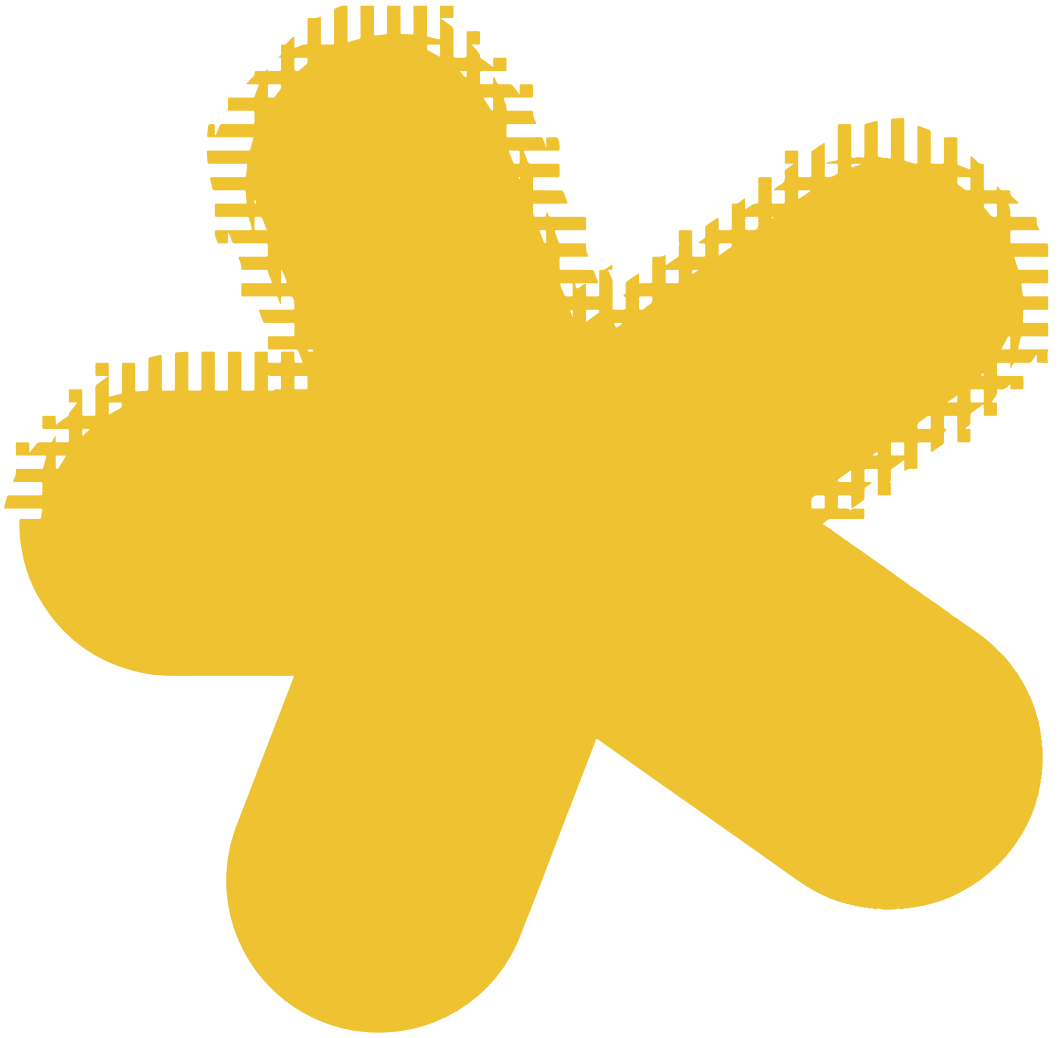
한국문화예술위원회
50 ANNIVERSARY
ARKO SELECTION 공연예술창작산실 올해의신작

공연예술 창작산실

시 작 의 별 고

2022 올해의신작 백서

제 14 회 대한민국 학술원 회원 후보자 명단



ARKO SELECTION 공연예술창작산실

〈공연예술창작산실〉은 기초 공연예술 분야(연극, 창작뮤지컬, 무용, 음악, 창작오페라, 전통예술)의 특성을 살린 단계별 지원을 통해 장르별 우수 창작 작품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지원사업입니다.

2008년부터 시작된 〈공연예술창작산실〉은 동시대성·다양성을 갖춘 작품과 창작자 발굴을 위한 〈대본공모〉, 공연창작의 사전연구·사전제작 단계를 지원하는 〈창작의과정#공연예술〉, 단계별 과정 지원으로 우수한 신작을 발굴하는 〈올해의신작〉, 국내 창작 관현악 저변 확대를 위한 〈지속연주지원〉, 공연예술 분야 비평문화 활성화를 위한 〈공연예술비평활성화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CONTENTS

연극

빵야 (주)엠비제트컴퍼니 014

노스체(NOSCE) 프로젝트집단 세사람 018

미궁(迷宮)의 설계자 연극집단 반 022

견고딕-걸 극단 작은방 026

엑스트라 연대기 그린피그 030

하얀 봄 극단 놀땅 034

연극 분야 비평 038

창작뮤지컬

청춘소음 시작프로덕션㈜ 046

앨리스 섬으로 간 나비 050

다이스 ㈜컬처마인 054

윌리엄과 윌리엄의 윌리엄들 컴퍼니 일상, 적 058

창작뮤지컬 분야 비평 062

무용

〉"hello world"; 댑댄스프로젝트 068

Recall; 불러오기 화이트큐브 프로젝트 072

On the Rock 모든 컴퍼니 076

태양 시나브로 가슴에 080

클라라 슈만 (사)서울발레시어터 084

WHITE 노네임소수 088

THE ROAD 미나유(유정옥) 092

무용 분야 비평 096

음악

김재훈의 P.N.O 김재훈컴퍼니 104

창작 실내악 음악극 붕(鵬)새의 꿈 하늬바람 108

음악 분야 비평 112

창작오페라

피가로의 이혼 그랜드오페라단 120

양철지붕 오페라팩토리 124

사막 속의 흰개미 현대성악앙상블 128

피싱 (사)글로벌아트오페라단 132

창작오페라 분야 비평 136

전통예술

RE: 오리지널리티 홍성현아트컴퍼니 142

판소리 쏫스토리 - 모파상 篇 판소리아지트 놀애박스 1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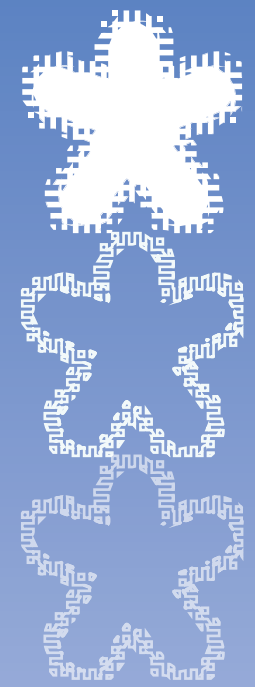
절 대목(大木) 연희공방 음마갱깽 150

태고의 소리, 흙의 울림, 훈과 울기 공간서리서리 154

전통예술 분야 비평 158

장르별 역대 선정작 162

연극





㈜엠비제트컴퍼니

빵야

일시	2023년 1월 31일(화) ~ 2월 26일(일)
공연시간	화~금 오후 7시 30분 / 토, 일 오후 2시 30분, 7시 / 월 공연 없음
장소	LG아트센터 서울, U+ 스테이지
러닝타임	약 150분 (인터미션 15분 포함)
티켓	6만원
출연진	하성광, 문태유, 이진희, 정운선, 오대석, 이상은, 김세환, 김지혜, 진초록, 송영미, 최정우
프로듀서	고강민
작가	김은성
연출	김태형
음악감독	민찬홍
안무	이현정
무대, 영상디자인	조수현
조명디자인	박성희
음향디자인	임서진
의상디자인	윤나래
소품디자인	권민희
분장디자인	장혜진
무대감독	이재은
조연출	김의연
제작PD	이은경
기획PD	김혜민, 임수빈, 조성연







나나의 손 끝에 걸린 트리거, 어디를 향해 당길 것인가

역사를 '관통한' 장총과 역사를 '써먹을' 궁리만 하던 작가의 뜨거운 만남. 언제나 인간의 드라마, 갈등의 서사에 밀려 지워졌지만 역사의 현장에서 누구보다 치열하게 살아왔던 '낡은 장총 한 자루'로 한국의 현대사를 풀어냅니다.

장총의 이야기를 '대형 드라마'로 집필하는 작가 나나의 욕망과 성찰을 통해 역사적 소재가 상업적으로 생산되고 소비되는 문제에 대해서도 다룸으로써 역사를 조명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역사를 소재로 창작품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대한 윤리적 문제를 곱씹어보고자 합니다.

㈜엠비제트컴퍼니

㈜엠비제트컴퍼니는 문화예술 전문 기획사로 공연 기획 및 제작, 문화예술교육 사업, 아티스트 매니지먼트 및 에이전트를 위해 설립된 기업입니다.

예술가들과의 협력을 통한 양질의 공연 콘텐츠 개발은 물론, 기획 단계부터 제작, 홍보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속가능하고 건강한 공연 생태계를 모색하고자 합니다.

인터뷰

김은성 작가, 김태형 연출

작품 창작의 계기와 창작의 모티브는 무엇인가요?

(작가)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 제국주의 군대의 주력 소총이 인천에 있던 부평 조병창에서도 생산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흥미를 느꼈습니다. 조병창에 관련된 자료를 보면서 취재를 시작했는데 해방 직후 남한과 북한의 초창기 군대가 한반도에 남아 있던 일제의 99식 소총을 사용했다는 사료를 접하면서 창작을 결심하게 됐습니다. "일제가 남기고 간 총을 들고 남북한 군대가 싸웠다." 당시의 비극적 역사를 이보다 더 명료하게 정리할 수 있는 문장을 찾기도 힘들 겁니다. 2차대전과 한국전쟁은 물론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동아시아의 여러 전쟁에 끈질기게 등장한 99식 소총의 역사를 살펴보면서 제국주의, 군국주의, 전체주의라는 거대 악의 잔재가 어떻게 살아남아 세상 곳곳을 참담한 폭력으로 멍들게 했는지 실감했습니다. 집필 초반에는 동아시아 현대사를 배경으로 서사를 구축할까 고민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규모를 감당하기에 역부족이라는 판단을 했고 우선 한반도를 무대로 이야기를 만들게 됐습니다. 99식 소총이 한반도 현대사에 어떻게 등장과 퇴장을 거듭해왔는지 사료를 공부하면서 이 역사적 소재를 어떻게 동시대적 문제로 끌어올 수 있을까 고민이 많았습니다. 99식 소총이 무대에 소품이 아닌 인물로 등장하면 좋겠다는 상상을 하면서 극의 구성에 가닥을 잡았습니다. '지금 동시대를 살아가는 나에게 99식 소총이 등장했던 그 시대는 어떤 의미를 남기고 있을까?' 이런 작가적 고민을 무대에서 그대로 털어놓으면 좋겠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미니시리즈를 쓰는 드라마작가가 99식 소총이라는 소재를 만난 후부터 집필을 끝낼 때까지의 과정을 흥미롭게 그려낸다면 과거의 역사와 지금의 만남에 관한 의미 있는 질문을 던지는 작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품고 썼습니다.

작품의 주요 소재인 '장총'은 무엇을 상징하나요?

(작가) 작품에 '빵야'라는 이름의 인물로 등장하는 '장총'은 일본 제국주의의 마지막 주력 화기였던 '99식 소총'입니다. 총으로서의 이력이 곧 그의 상징입니다. 그는 1945년 2월 인천 부평 조병창에서 탄생해 군수 열차에 실려 만주로 운송됩니다. 독립군 토벌로 명성이 높은 간도특설대 소속 조선인 병사의 총이 됩니다. 첫 번째 주인이 죽은 후에는 중국 팔로군 여전사의 총이 됩니다. 우여곡절 끝에 미군 수송선을 타고 부산에 도착한 후에는 제주도에 있는 조선경비대로 이동하게 되고 거기서 4.3사건의 아픔을 겪습니다. 머잖아 지리산 토벌작전에도 투입됩니다. 한국전쟁이 터지고 낙동강 전선에서 국군과 인민군의 손을 오가며 살육전을 목격합니다. 소녀 뻘치산 설화의 총이 되어 그녀의 죽음과 함께 지긋지긋한 전쟁터를 벗어납니다. 이후에는 사냥꾼과 포경꾼의 손에서 동물 수렵과 고래사냥에 이용됩니다. 도박꾼의 판돈이 되기도 하고, 기업가의 로비 선물로 쓰이기도 합니다. 급기야 80년대에는 영화의 소품이 됩니다. 태평양전쟁, 한국전쟁, 베트남전쟁을 다룬 영화와 드라마에 출연합니다. 2000년대 이후에는 대형 뮤지컬의 소품으로 활용됩니다. 소품으로 쓰기에도 너무 낡아버린 후에는 대형 소품실 창고에 방치되어 있다가 드라마작가인 나나를 만나게 됩니다. 일본 제국주의 군대가 만든 '장총'은 한국 현대사의 아픔을 상징하는 참담하고 비극적인 몸체입니다.

작품 속에서 영상과 무대 활용의 연출 포인트를 짚어준다면?

(연출) 이 작품은 장총 '빵야'의 주인이 여러 번 바뀌며 그 안에 하나씩 꼼꼼히 새겨져 있던 역사를 보여주는 이야기이자 극 중 작가인 '나나'가 창작자로서 이런 이야기를 어떤 마음으로 담아야 하는지 고민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장총이 놓여 있던 소품창고를 무대의 주요 컨셉으로 활용합니다. 장총이 이야기하고 작가가 써 내려가는 이야기들이 들려오면 그 이야기 속의 세계가 눈앞에 구현됩니다. 깊숙한 사연을 가지고 있는 장총의 소유주였던 여러 캐릭터들은 소품창고에 놓여있던 각자 깊숙한 사연을 담고 있는 소품들과 함께 등장합니다. 드라마작가인 '나나'가 구축하는 드라마 속 역사의 장면들은 소품창고에 비치된 TV 스크린들을 통해 영상으로 만들어지거나 표현될 것입니다.

작가인 '나나'가 소품 하나를 가지고 수많은 연구와 고민, 그리고 상상을 동원해 만들어내는 이야기. 우리는 그 양상을 무대에 유사하게 전개하여 관객들이 함께 이야기의 창작 과정을 경험하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는 무대를 구현하려 합니다.

관객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중요한 장면이나 대사가 있다면?

(작가) 관객들의 반응이 궁금한 장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어려운 상황에서 열심히 집필에 매달리며 도전하고 실패하면서 자신의 삶과 더욱 진솔하게 대면하게 되는 나나의 속내가 표현되는 장면들이 관객 여러분들과 어떻게 만나게 될지 기대도 되고 걱정도 됩니다. 드라마 작가라는 특수한 직업을 가진 '남의 일'을 지켜보는 느낌이 아니라 '아, 나도 저래.' '저 마음 나도 공감해.' 마치 '내 삶'을 대하듯 지켜보시는 관객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죄가 많은 총으로 등장하는 빵야의 속죄가 담긴 독백, 억울하게 죽어가면서도 의지를 놓지 않는 여전사 선녀의 독백, 뻘치산 소녀 설화의 혼령이 지리산 높은 고개들을 껑충껑충 넘어가며 하는 경쾌한 독백... 극장에서 여러분들과 어떻게 만나게 될지 무척 궁금합니다.

이 작품을 통해 관객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무엇인가요?

(작가) 집필을 하는 동안, 작품 속에도 나오는 선녀 바위 전설이 자주 떠올랐습니다.

"큼지막한 바위에 일 년에 한 번 선녀들이 내려와.
날이 샐 때까지 밤새 바위를 밟아.
바위가 다 닳아 없어져야 좋은 세상이 와.
선녀들이 왜 하루만 왔다 가냐고?
좋은 세상 오는 게 그만큼 힘든 거야.
그 큰 바위가 언제 다 닳겠어?

그래도 선녀들은 와. 오고 또 와.
밟고 또 밟다 보면 바위는 닳아.
오래 걸려도, 천년만년 수억 년이 걸려도 언젠가는 닳아.
언젠가는 닳아 없어져.
한 번은 밟아! 한 번은 밟고 가야 돼.
이 세상 왔다 가는 도리야."

제가 쓴 대사지만, 부끄러울 때가 많았습니다. 바위를 밟기는커녕 근처라도 한 번 가 볼 수는 있을까? 그런데 얼마 전에 불쑥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여기가, 지금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는 바로 거기가, 선녀바위가 아닐까? 선녀바위를 너무 멀리 있다고 생각하고 살았던 것은 아닐까?
좋은 세상 오기 바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산다면 우리의 여기와 거기가 선녀바위가 되는 것은 아닐까?

〈빵야〉가 세상 곳곳의 선녀바위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많은 이들을 잠시나마 위로하는 공연이 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프로젝트집단 세사람

노스체(NOSCE)

일시	2023년 2월 3일(금) ~ 12일(일)
공연시간	화~금 오후 8시 / 수 오후 4시, 8시 / 토 오후 3시, 7시 / 일 오후 3시 / 월 공연 없음
장소	대학로예술극장 소극장
러닝타임	100분
티켓	4만원
출연진	김은희, 선명균, 박윤정, 최희진, 윤정로, 김민주
작가	황정은
연출	윤성호
무대감독	이효진
무대디자인	박상봉
분장·소품디자인	장경숙
조명디자인	노명준
사운드디자인	유옥선
의상디자인	김미나
자막디자인	이효진
그래픽디자인	정김소리
홍보물 사진	강희주
조연출	안윤조
조명오퍼레이터	이혜지
음향오퍼레이터	오재성
기획홍보	안희성
프로듀서	김민솔







재난이 있는 곳에 노스체가 갑니다
사람이 있는 곳에 노스체가 갑니다

"전 이제 뭘 하면 되죠?"

원전 폭발이 발생한지 25년 후, 폭발지가 관광지로 조성될 만큼 시간이 흐른 어느 때.

사고 중심지로부터 수십 km 떨어진 마을. 소수의 사람들이 작은 공동체를 이루며 사는 이곳에 어느 날 재난로봇 노스체가 들어온다. 오랫동안 방치된 피폭된 땅을 점검하러 왔다는 노스체를 보며 마을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경계한다.

그러던 어느 날, 관광으로 폭발지 중심에 들어갔다가 길을 잃은 사진작가인 '필'과, 오랜 기간 마을을 떠났던 '연'이 마을에 들어오게 된다. 낯선 외부인들의 등장으로, 마을 사람들 사이에 작은 파동이 생긴다.

어떠한 사고는 평화로운 시간들을 순식간에 '죽은' 무엇으로 만들어 놓기도 하고, 인간의 욕망이 무엇을 길러내는지 바라보게 된다.

〈노스체(NOSCE)〉는 '재난이 지나간 자리'에 놓인 '재난이 만들어낸 산물'을 보여주고 있다. 그 '산물'은 한순간에 죽은 땅이 된 이 마을이기도, 구역 안의 사람이기도, 구역에 파견된 노스체이기도 할 것이다. 하지만 사람이 있기에 죽은 땅에서도 생명은 피어난다.

구역 안이든, 구역 밖이든, 사람이 있는 곳에 삶이 있으며 그 삶이 어떤 삶이든 발을 디딘 곳에 각자의 역사가 만들어진다. 재난로봇 노스체의 시선으로 각자의 역사를 만드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란다.

프로젝트집단 세사람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에 들어오고, 사람이 되는가?"

2017년 창단한 "프로젝트집단 세사람"은 '사람과 세상의 상관관계'를 탐구하는 데 관심을 두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 그리고 그 세계를 구성하는 사람을 보여주는 작업을 추구한다. '자연적 인간'에 국한하지 않고 '사회 안의 사람'을 보여주는 작업으로 관객과 소통하고자 한다.

인터뷰

황정은 작가, 윤성호 연출

작품 창작의 계기와 창작의 모티브는 무엇인가요?

(작가) 언젠가 한 강의를 통해 2015년 미국에서 열린 '다르파 로봇 챌린지(DARPA Robotics Challenge)' 영상을 접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다르파 로봇 챌린지(DARPA Robotics Challenge)'는 세계 최고의 재난구조로봇을 가리는 대회로, 당시 우승을 한 로봇은 대한민국 카이스트 팀의 휴보(HUBO)였습니다. 우승한 휴보의 모습도 단연 인상적이었지만 당시 저의 눈길을 더 끈 것은 중간에 넘어지고 부서지며 탈락한 로봇들이었습니다. 인간을 대신해 험지로 향할 로봇들이 자신의 능력을 테스트하는 시험대에 올라, 인간을 대신해 얼마나 인간답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시험받고 있는 듯 느껴졌죠. 그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인간은 끊임없이 자신을 대신해 희생될 누군가를 만들고 있는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 질문으로부터 이 작품은 시작됐습니다.

작품 제목이 독특한데, '노스체'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작가) 이 이야기를 쓰는 동안 우연히 한 책을 통해 라틴어를 잠시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NOSCE'가 라틴어로 '알다'라는 의미인 것을 알았는데, 이후 작품의 제목을 고민하던 중 이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이야기를 쓰면서, 재난의 시대가 도래한 이유는 사람이 모든 것을 안다고 여긴 결과가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정말 이 세계에 대해 알고 있는지, 이 제목을 통해 질문하고 싶었습니다.

관객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중요한 장면이나 대사가 있다면?

(작가) 극의 중후반, 노스체가 '연'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옥'이 자신에게 들려준 이야기를 '연'에게 들려주는 대사로, 결국 '옥'의 말이라 할 수 있겠네요.

"이 곳이 전처럼 좋아지지 않아도 괜찮다.
무화과가 열릴 수 있는 정도면, 그걸로 됐다."

'근미래의 재난'을 무대화함에 있어 연출 포인트는?

(연출) 〈노스체〉라는 작품은 재난을 소재로 하고 있지만 그것을 자극적으로 부각시키거나 강조하지 않습니다. 원전 폭발이라는 재난 이후를 다루는 포스트 아포칼립스 장르라고 할 수 있지만, 작품에는 방사능으로 인해 커져버린 나무 열매도, 다리가 열 개씩 달린 가축도, 비정상적으로 커진 꽃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구역의 사람들이 남들보다 기침을 좀 많이 하거나, 청력이 떨어지거나 갑상선이 약할 뿐입니다. 또한 휴머노이드형 재난 로봇이 등장하는 근미래의 배경이지만 작품의 배경이 되는 공간은 그러한 문명의 흐름에서 비껴간 지역, 시간이 멈춰있는 공간입니다. 이러한 구조를 어떻게 무대로 구현화하는가가 이 작품을 연출하는 관건인 것 같습니다. 개념적으로는 원전 폭발이 일어났을 시점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로 두고 싶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흔한 시골 공간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일면 평범해 보이는 공간에 들어오는 등장인물들, 혹은 그들이 지닌 어떤 소품들에서 무대와 어울리지 않는 이질감을 느낄 때 앞서 언급한 배경의 구조를 나타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평범한 '현대' 시골 같은 곳에 들어오는 휴머노이드 로봇, 구역 밖의 문명 사회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명 장비나 전자제품 등에서 발생하는 위화감을 포인트로 두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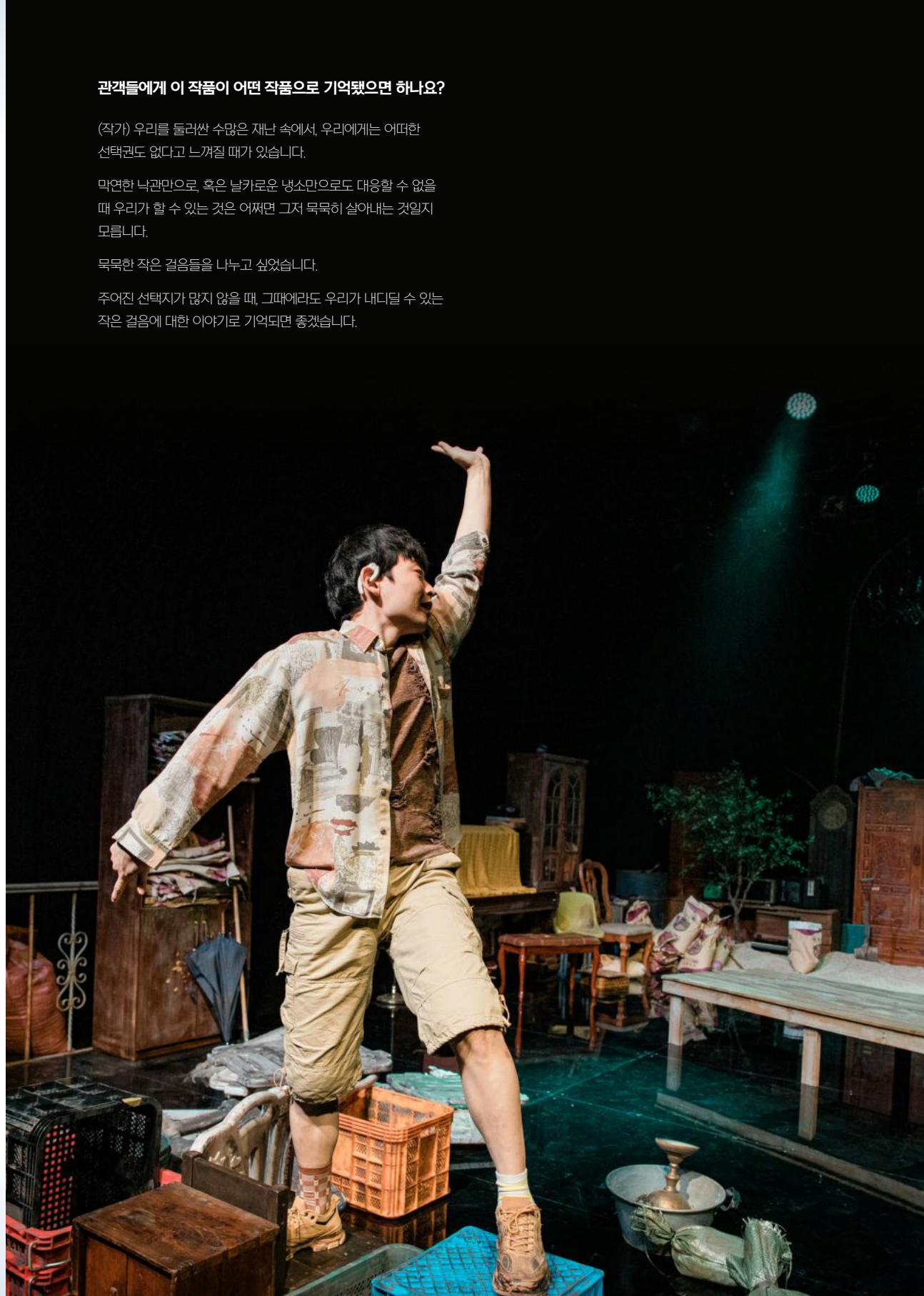
관객들에게 이 작품이 어떤 작품으로 기억됐으면 하나요?

(작가) 우리를 둘러싼 수많은 재난 속에서, 우리에게는 어떠한 선택권도 없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막연한 낙관만으로, 혹은 날카로운 냉소만으로도 대응할 수 없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어쩌면 그저 묵묵히 살아내는 것일지 모릅니다.

묵묵한 작은 걸음들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주어진 선택지가 많지 않을 때, 그때에라도 우리가 내디딜 수 있는 작은 걸음에 대한 이야기로 기억되면 좋겠습니다.







연극집단 반

미궁(迷宮)의 설계자

일시	2023년 2월 17일(금) ~ 26일(일)
공연시간	화, 목, 금 오후 8시 / 수 오후 3시, 8시 / 토 오후 3시, 7시 / 일 오후 3시 / 월 공연 없음
장소	아르코예술극장 소극장
러닝타임	100분
티켓	4만원
작가	김민정
연출	안경모
출연진	전국향, 손성호, 이종무, 이가을, 김시유, 최지환, 송현섭, 송지나, 유지훈, 박양지, 전민재
드라마투르기	이은기
음악	윤현종
안무	이경은
무대	도현진
영상	김장연
조명	김영빈
의상	오수현
분장	이지연
조연출	박현지
프로듀서	김지은



권력과 예술 사이에서 건축가는 무엇을 그리는가?

남영동 대공분실을 설계하던 신호의 1975년.
남영동 대공분실에 끌려와 고문을 당한 경수의 1986년.
민주인권기념관이 된 남영동 대공분실에 카메라를 들고 나타난 나은의 2020년.
하나의 공간에 엮인 세 인물, 세 개의 시간이 하나의 공간에서 만난다.

인간을 위한 건축이 아니라 인간을 해하는 미궁을 설계하게 된 건축가.
고통의 실체 앞에서 부상하는 반성과 책임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는?

연극집단 반(反)

1996년 5월 작가주의 정신으로 뜻을 모아 동인제로 창단하여, 창단공연 〈바라 해라〉 박장렬 작·연출 연우소극장 공연을 시작으로 2022년 창단 26주년을 맞이한 극단입니다.

연극집단 반은 지금의 현상에 대한 이면과 본질을 돌이켜보고, 채워나가려 합니다.
건강한 연극 정신으로 사람다운 사람, 연극다운 연극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인터뷰

김민정 작가, 안경모 연출

작품 창작의 계기와 창작의 모티브는 무엇인가요?

(작가) 어느 추운 겨울날 연극 속의 인물 나은처럼 현재는 민주인권기념관으로 탈바꿈하고 있는 '남영동 대공분실'을 방문했습니다. 눈발이 날리는 마당에 해설사 한 분이 서 계셨고, 그녀의 안내를 따라 그 건물의 비극을 탐색했습니다. 그 건물은 해방 후 우리나라 현대 건축의 1세대라고 불린 김수근이 건축했다고 (2012년 11월 당시 국회의원 임수경이 설계도면 공개) 알려졌는데, 건물의 어디에도, 또 설계도에도 그 이름이 쓰여 있지 않다고 합니다. 거장의 오점, 혹은 두 얼굴이라 불리는 '남영동 대공분실'의 곳곳을 걷고 또 걸으며, 이 건물을 만들려고 했을 때와, 그 건물이 지어지고 고문으로 고통받은 누군가의 시간이 떠올랐습니다. 하나의 공간에 얽힌 수많은 역사와 사람들에 생각이 미치며, 언뜻 들어는 보았지만 제대로 알 수 없었던 '남영동 대공분실'의 이야기를 희곡으로 옮겨보자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모티브는 '남영동 대공분실' 그중에서도 민주화 인사들이나 간첩으로 의심을 받아 끌려온 사람들이 갇혔던 5층의 방들입니다. 또 눈 내리던 날 해설을 해주셨던 해설사님 또 아르코예술극장, 경동교회 또 공간사옥 등의 위대한 작품을 남긴 거장 건축가의 삶의 한 부분입니다. 이 작품을 아르코예술극장 소극장에서 공연하게 된 것은 참으로 공교로운 일이지요.

작품의 주요 무대인 '남영동 대공분실'의 무대 연출을 위해 신경 쓴 포인트는 무엇인가요?

(연출) 이 작품은 '남영동 대공분실'을 두고 세 개의 시간이 한 공간에 중첩되어 있습니다. 아직 건물이 만들어지지 않아 설계만 진행되는 관념의 공간, 그 관념이 현실화되어 실질적인 취조와 고문이 이루어지는 실체의 사건공간, 그리고 이제는 유산으로 남아 카메라의 앵글로 담기는 기록의 공간입니다. 이는 인간의 지적 행위(설계)가 실체화되고 역사로 남는 과정이기에, 연극은 이러한 중첩된 시간을 콜라주 하여 인간 행위의 책임과 반성에 대한 질문으로 이어가고자 합니다. 이런 의도를 위해 남영동 대공분실의 공간을 사실적으로 재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설계도면, 모델링 등 관념의 공간을 가시화시켜 그 공간이 실체적 사건(취조-고문)으로 이어지도록 시각화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라이브로 담은 카메라앵글과 함께 현실의 기록으로 남은 남영동 대공분실의 사진으로 중첩합니다. 즉 설계-사건-기록의 통시성을 하나의 시공간으로 응축하여 연극적 현상으로 드러내고자 합니다.

작품 창작 과정에서 참고했던 자료, 혹은 인상 깊은 에피소드가 있다면?

(작가) 현재는 남영동 대공분실이 민주인권기념관으로 만들어지기 위해 문을 닫고 있는데, 처음 이 소재를 쓰고자 취재를 했을 때는 개방 중이었습니다. 그날 마당에서부터 시작해서 뒷문으로 들어가 나선형의 계단을 오르고 5층의 여러 방 특히 故 박종철 열사가 물고문으로 희생된 509호실과 故 김근태 의원이 전기 고문을 받았던 상판 등이 놓여있던 515호를 방문했던 기억입니다. 누렇게 바래진 편지지에 수감된 사람들이 부모와 누이에게 보낸 편지 등이 기억에 남습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과, '이 건물의 설계도를 그린 사람이 이 비극을 알고 난 후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라는 생각을 처음 떠올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 그 공간에 내가 있었으면 나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 깊은 생각 속으로 빠져들었던 것 같습니다.

(연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서 발행한 '검은 벽돌의 기억(남영동 대공분실 기록사진집)'은 이 시리도록 아픈 과거의 역사 공간을 카메라에 잘 담고 있었고, '남영동 대공분실 시설물 기초 조사 연구용역' 자료집은 설계와 건축 및 역사적 기록들을 생생하게 담고 있어 역사의 퇴적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관객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중요한 장면이나 대사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작가) 이 작품의 새로운 시도는 '남영동 대공분실'이라는 공간을 중심에 두고 서로 다른 시간을 사는 인물들의 모습을 관객이 한눈에 볼 수 있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가끔 그 인물들은 시간의 경계를 벗어나 서로가 눈을 마주치고, 걸음을 붙잡고, 날 선 질문을 쏟아내기도 합니다. 서로 다른 시간이 교차하는 그 장면이 자아내는 뭉클함을 관객들과 공유하고 싶습니다.

송경수의 대사

"매질이 계속되면 나는 딴 생각들을 했습니다. 내가 대학생이 아니었다면 어땠을까, 내가 멀고 먼 우주에서 지구를 방문한 외계인이었더라면 …….
나는 날개를 단 외계인이 되어 날아오르는 상상을 해봅니다.
푸른 하늘 너머 저 먼 우주까지. 나는 하나도 아프지 않고,
지구는 멀리서 보면 평화롭기만 합니다. 나의 나라, 대한민국도 그렇습니다. … 하나도 아프지 않습니다."

관객들에게 이 작품이 어떤 작품으로 기억됐으면 하나요?

(연출) 한국건축사에서 김수근의 지위는 실로 큽니다. 그의 공을 보자면 '남영동 대공분실'은 분명 하나의 오점입니다. 하지만 공이 과를 덮지 않았으면 합니다. 또한 과가 공을 지우지 않았으면 합니다. 우리는 공과 과를 공존시키며 반성과 책임에 대한 무거운 질문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과가 있다면 우리는 지금 어떤 반성과 책임으로 현재를 설계할 수 있을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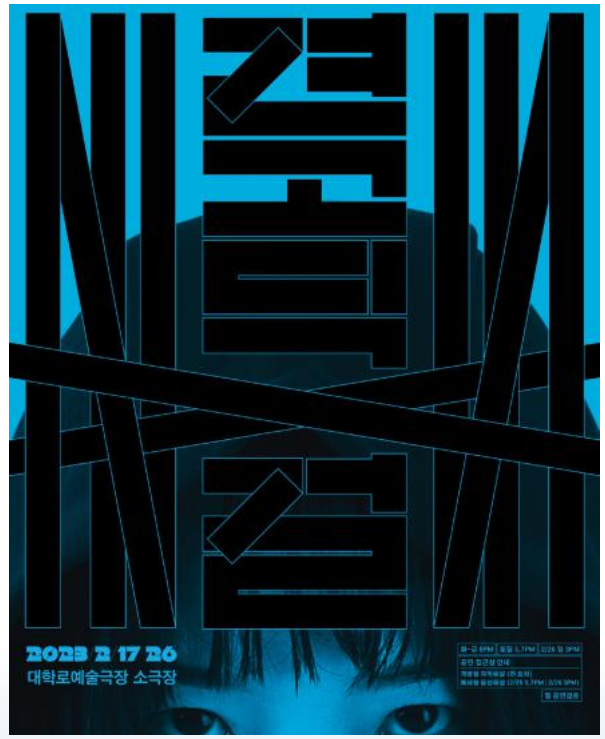


극단 작은방

견고딕-걸

일시	2023년 2월 17일(금) ~ 26일(일)
공연시간	화~금 오후 8시 / 토, 일 오후 3시, 7시 / 2월 26일(일) 오후 3시 / 월 공연 없음 *개방형 자막해설 : 전회차(한글자막) *폐쇄형 음성해설 : 2/25(토) 오후 3시, 7시, 2/26(일) 오후 3시
장소	대학로예술극장 소극장
러닝타임	80분
티켓	4만원
작가	박지선
연출	신재훈
출연진	김채원, 문가에, 박세정, 서지우, 임예솔
연주	고수영, 윤두호, 최율태
음악감독	정준
작곡	고수영
무대디자인	송지인
조명디자인	김효민
의상디자인	이윤진
분장디자인	장경숙
소품디자인	이수진
영상디자인	고동욱
음향감독	박재식
무대감독	박기남
조연출	강수빈
접근성 매니저	권지현
음성해설 대본	구지수
음성해설 낭독	윤진성
그래픽디자인	정김소리
홍보물사진	김솔
기획	이보람





나 견고딕체로 말한다.
볼드까지 넣는다.
내 면상에 신경 꺼!
내 인상 내 인성 내 인생에 신경 끄라고!

〈견고딕-걸〉은 알 수 없는 이유로 살인을 저지르고 스스로 생을 마감한 사건, 그 뒤에 남겨진 이들의 갈등과 고통을 다룬다. 인생의 많은 부분은 설명할 수 없는 막막함으로 채워져 있으며, 그것은 어쩌면 삶의 본질일지도 모른다고 이야기한다. 희미한 빛과 촉각에 기대어 어둠을 통과하듯 막막함 속에서 길을 찾는 인물들의 상황과 갈등을 통해 질문해 본다. 어둠이 삶의 본질이며, 어둠의 끝에는 역시 또 다른 어둠이 있을지 모른다. 그렇다면 삶의 의미는 무엇일까?

고딕 룩, 고딕 메이크업 속에 자신을 숨긴 채 안생을 어떻게 끝낼지 고민하는 가해자의 쌍둥이 언니 수민은 피해자의 심장과 눈을 기증받은 낯선 이들을 만나게 된다. 가해의 이유를 전혀 다른 곳에서 찾는 가족들 사이에서 홀로 피해자 앞에 마주 서는데...

극단 작은방

극장은 세상의 작은방.
작은 것을 남기고, 그럼으로써 풍성한 무대를 그린다.

인터뷰

박지선 작가

작품의 창작 배경과 주요 모티브는 무엇인가요?

미국 콜롬바인 고등학교에서 총기로 인한 참사가 있었습니다.
범인은 같은 학교에 다니던 학생들이었고, 그중 한 명의 가족이 쓴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읽고 마음이 깊이 흔들렸습니다.

만일 범인 또래 형제가 있다면 그 아이는 이 거대한 진앙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하는 질문에서 출발했습니다.

'견고딕-걸'이란 제목을 정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이 제목이 작품의 의미를 어떻게 함축하고 있나요?

누구도 위로할 수 없고, 대신할 수 없는 견고한 슬픔 속에 있는 한 사람을 생각했습니다.
견고한 슬픔이 검은 상복으로, 견고딕체의 이미지로 이어졌습니다.
견고딕체처럼 두텁고 강한 외피를 걸쳤지만 사실은 슬픔으로 취약해진 인물이 떠올랐습니다.

또한 감히 자신의 고통을 드러낼 수 없는, 평생 검은 상복을 입고 사는 듯한 가해자 가족의 죄책감을 '견고딕'이라는 이미지로 드러내려고 했습니다.

가해자 가족의 서사라는 점이 독특한데요. 이러한 시도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나요?

참담한 비극은 피해자는 물론 가해자와 연결된 수많은 사람을 비껴가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더구나 가해자가 사라진 상황이라면 그 가족은 책임과 참회를 짊어지게 됩니다. 만일 그때 더 큰 비난이 쏟아질 가해자의 비밀을 손에 쥔다면 그 가족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쉽지 않은 선택의 과정에 있는 한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지 않은 선택을 하는 한 사람을 그리고 싶었습니다.

관객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중요한 장면이나 대사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저기 지은이 부모님이 나옵니다. 미나는 수민의 손을 꼭 잡습니다. 수민은 미나의 손을 꼭 잡습니다. 둘은 그 집 앞으로 뛰어갑니다. 수민은 미나의 손을 놓습니다. 이를 악물고 뛰어갑니다. 심장이 뜁니다. 눈물이 보입니다.

미나 : 넌 웃는 게 예뻐!

미나가 그랬지만 미나는 언제나, 늘, 정답이지만

수민 : 나 견고딕체로 말한다. 볼드까지 넣는다.
그래도 쌍수는 할 거다. 내 얼굴은 소중하니까.

이 작품을 통해 동시대의 관객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무엇인가요?

어떤 분이 "사과하면 끝나는 것인가"라고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참담한 비극 속에서 용서를 구하는 행위는 결론이 아니라 시작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끝이 아니라 거기에서 비로소 시작하는 거지요.

우리 안에 사라지지 않은, 희미한 어떤 빛을 발견하는 겁니다.
용서를 구하는 마음은 같이 우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달리 어쩔 수 없는 취약한 존재들이 같이 엎드려 우는 마음. 그 마음으로 참담한 비극의 원인을 밝히고 멀리 있는 빛을 향해 더듬거리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린피그

엑스트라 연대기

일시	2023년 3월 4일(토) ~ 12일(일)
공연시간	화~금 오후 7시 30분 / 토, 일 오후 3시 / 월 공연 없음
장소	대학로예술극장 대극장
러닝타임	120분
티켓	R석 5만원 / S석 3만5천원
작가	전성현
연출	윤한솔
조연출	주은길
무대디자인	김혜림
조명디자인	김형연
의상디자인	온달
음향감독	전민배
출연진	강마로, 김수웅, 김용희, 김원태, 박기원, 박수빈, 박유진, 이동영, 이승훈, 이지원, 정양아, 정연종, 최지현
기획·무대감독	㈜스탭서울
제작	그린피그





시대의 엑스트라들이 쓰는 통사적 연대

일제강점기, 독립군 하나가 나무 전주 꼭대기를 점거한다. 나무 전주 위에서, 그는 다른 독립군들처럼 만주로는 가지 않겠다 결심하고 기차표를 날려버린다. 그 대신 조선에 남아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을 빠짐없이 기억하겠다 다짐한다. 1930년, 한 독립군의 점거는 이후 수많은 사람들의 행위로 이어진다. 탄약고를 점거한 병장, 화장실을 점거한 어용노조원, 고해실을 점거한 가톨릭 신자, 옥탑방에 틀어박힌 대학생, 공장 지붕에 모인 노동자들, 개발을 막으려 나무 위에 올라간 활동가... 100여 년의 시간을 건너뛰고, 400km의 공간을 넘나들며, 점거자이거나 점거자가 아닌 이들 엑스트라들의 이야기가 펼쳐진다.

그린피그

불온한 상상력, 그린피그

생각이 세상을 바꾼다는 신념과 뜨거운 감성을 가진 새로운 연극을 하고자 모인 사람들입니다. 의심 없이 혹은 하지 않고 진행되는 우리 문명에 대한 진단을 하는 연극을 찾고자 모인 사람들입니다. 주제와 예술형식의 진보를 고민하는 연극을 하고자 모인 사람들입니다. 그린피그의 작업은 저항 혹은 엑소더스를 위한 매뉴얼 혹은 도구입니다.

인터뷰

전성현 작가

그저 정세분석에 그치고 마는 위험을 어떻게 돌파하려 했느냐 하는 것. 이를 위해 역할 바꾸기, 정체성 바꾸기, 정체성 이전/복사, 극중극의 확장 따위 기술로 관객과 배우, 무대와 객석의 관계에 간섭하려 하는 등의 극작법을 이용하였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작품이 프로파간다가 될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정치적 태도를 드러내는데 주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작품의 주요 키워드는 무엇이며, 이것을 어떻게 풀어나가고자 했나요?

작품의 주요 키워드는 '점거'입니다. 점거는 어떤 장소를 차지하여 사는 것이라 정의되어 있는데, 현대 사회에서 점거 행위는 투쟁 현장에서 많이 발견됩니다. 이들은 좀 더 자유로운 삶을 위해 오히려 자신을 좁은 공간에 가두는 선택을 합니다. 저는 이러한 행동에서 정신의 자유를 위해 신체를 구속한다는 특성에 집중하였고, 정신의 자유를 구속하는 여러 힘들과 그에 대한 투쟁을 상상하며 장면을 구성하였습니다. 스스로 인식하고 있든 하지 못하고 있든, 이들에게 있어 진정한 자유는 정신의 해방에서 오는 것이기에 현실의 점거가 성공을 거둘 확률은 극히 적고, 이해받을 공간도 많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기에 이들이 진정으로 중요한 것에 집중하는 성실함과 스스로 삶을 통제하는 태도가 눈에 띄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대를 건너뛰어 정신의 연대가 가능해지는 것도 그러한 점에서 오는 게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작품의 창작 배경과 주요 모티브는?

이 작품은 2011년 월가에서 시작된 점령하라 시위에서 촉발되었습니다. 한국 노동 현장에서 점거 행위는 오랜 역사를 가진 투쟁방식입니다. 일제시대 노동자 강주룡의 을밀대 점거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크고 작은 투쟁 현장에서 수많은 점거가 이어지고 있지만, 그 행위의 절실함에도 세상의 주목을 받은 경우는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점거자들은 현장의 어려움에 더해 고립의 아픔까지 같이 느껴야 했습니다. 하지만 2011년 미국에서 시작된 점령하라 시위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모습에서 많은 이들이 자본주의 체제의 불합리를 인식하고 있음을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확인하면서, 저는 점거 현장의 연대는 눈으로 보이는 것보다 더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닐까 생각했고, 그 연대의 풍경을 포착하는 것을 과제로 설정하게 되었습니다.

작품의 공간적 배경을 한국 근현대사의 여러 지점으로 설정한 이유가 있나요? 특정한 시기를 선정한 이유도 궁금합니다.

이 작품은 명확하게 투쟁 방식으로서 점거 행위를 소재로 하고 있고, 이를 통해 예술 작품과 정치성의 관계를 고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한국 근현대사의 주요 시점이 작품의 배경으로 등장하는 건 자연스럽다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더 중요한 질문은 그렇기에 필연적으로 마주치는 함정 앞에서 어떤 출구를 모색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즉, 정치적 사건을 배경으로 한 작품이 현실과 떨어져

공연을 관람하는 관객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특별한 관람 포인트는 무엇인가요?

정치라는 단어와 그러한 소재가 주는 무게를 어떻게 다루는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이 작품은 그러한 무게에서 벗어나려는 정신의 싸움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시대가 등퇴장하는 풍경을 지켜보면서 그 속의 인물들이 무엇을 공유하고, 무엇을 남기거나 버리고 있는지 생각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이 작품을 통해 동시대의 관객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무엇인가요?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작품을 보면 알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메시지가 어떠하냐 하는 것은 작품을 보는 데 그리 중요한 지점은 아닙니다.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창작진의 주장일 뿐입니다. 그러한 발언보다 중요한 것은 풍경을 포착하는 것입니다. 세계의 풍경, 그중에서도 점거자들이 그려내는 연대의 풍경을 포착해낸다면, 그 풍경 속에서 무대와 객석, 극장과 바깥의 경계를 넘어서는 만남이 가능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극단 놀땅

하얀 봄

일시	2023년 3월 18일(토) ~ 26일(일)
공연시간	3월 18일(토) 오후 7시 / 목, 금 오후 7시 30분 / 토 오후 3시, 7시 / 일 오후 4시
장소	대학로예술극장 대극장
러닝타임	90분
티켓	4만원
작·연출	최진아
출연진	김정, 이세영, 이준영, 남수현, 송치훈, 김관식
무대	남경식
조명	김성구
안무	이경은
음악	이승호
의상	박인선
영상	강경호
기획	코르코르디움





서로에게 끌렸지만 서로 다른 길을 가게 된 여자친구이야기

이 연극은 90년대 초반 혼란과 폭력의 시기에 함께 대학을 다니며 우정을 나누었던, 때론 우정 이상을 나누었던 두 여자 친구의 이야기이다. 이 둘은 왠지 서로에게 끌렸지만 호감과 친밀함을 다 나누지 못하고 헤어져 각자 다른 삶의 길을 가게 된다. 나이 든 지금은 서로 다른 위치에서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지만 질풍노도의 젊은 시절을 함께 보냈던 그들은 무엇을 같이 꿈꾸었고, 무엇이 서로 달랐을까...

극단 놀땅

2004년 창단하여, 창작극 위주로 공연을 하고 있다. 일상을 예민하게 바라보고 시대를 관찰하며 다른 감각으로 생각해 보기를 시도하고 있다.



인터뷰

최진아 작·연출

작품의 제목이기도 한 '하얀 봄'은 무엇을 상징하는 건가요?

봄은 생동한다. 무채색의 겨울이 숨겨놓았던 색을 터뜨리고 약동한다. 그런 봄이 뿌옇게 기억된다. 아지랑이인가 하고 보니 최루가스 연기다. 색을 다 잃어버린 안타까운 청춘, 그래도 여전히 눈부신.

그밖에 공연을 관람하는 관객들이 주목할 만한 연출 포인트는 무엇인가요?

어떤 관계에 이름을 붙인다는 것은 그 관계를 규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모든 관계는 다 특별한 색깔로 고유함을 갖는다. 남녀의 관계이건 남남이나 여여의 관계이건 사람이 다 다르듯이 관계에는 낯설고 생소하고 약간은 이상한 것들이 있다. 그것을 온전히 인정할 수 있다면 그만큼 자유의 영역이 확장된다고 생각한다. 이 연극에 사람 사이의 관계에 실재하는 미묘함과 기이함을 담으려고 한다.

이 작품을 통해 동시대의 관객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무엇인가요?

소중한 것들이 퇴색하는 것을 실감하고 있다. 친한 누군가가 있다는 것, 평생은 아니어도 한 시기를 함께하며 긴밀하게 지냈던 누군가가 있었다는 것. 그 우연을 새기고 싶다.

작품의 창작 배경과 주요 모티브는?

어느 날 문득 나의 현재를 바라보니 내 삶의 모습에 의아함이 들었다.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 어떤 선택들이 이 모습의 삶을 만들었을까. 학창 시절에 같이 희망하고 절망하면서 새로운 미래를 꿈꾸었던 친구들이 나이 들어 다 다르게 살고 있다. 서로 무엇이 달랐기에 다른 인생을 살고 있을까 반추하며 청춘들이 나누었을 우정과 친밀감을 탐색해보고 싶었다.

작품의 배경을 90년대 초반으로 설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어느 청춘이나 절망하지 않는 청춘이 없다고 하지만 90년대 초 청춘의 절망은 그들만의 색깔로 컸던 때다. 새로운 미래가 실현되길 바랐지만 요원해 보였고,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은 책임감은 과부하였다. 거리에서 최루가스를 맞으며 눈물 콧물을 흘렸던 부채감은 개인적인 소망들을 억압했고, 변화에의 욕구가 점점 커지고 있을 때 서태지가 나타났다. 그때 서태지는 장발이었는데 텔레비전에 출연하려면 장발을 잘라야 한다는 규제가 있었다고 한다. 당시 정권은 서태지의 허리까지 오는 긴 머리를 자를 수는 있었지만 변화의 욕구를 막지는 못했다. 개혁은 정치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감각에서도 일어난다. 서태지의 탄생은 개인들이 꿈꾸던 변화 의지가 감성으로 표출된 신호라고 볼 수 있다. 90년대는 정치적인 암울과 감각적인 격동이 함께 했던 시기다.

도모함을 목격하라!

전정옥(연극평론가)

'창작산실'이라는 명칭이 주는 기대감에도 정작 우리연극이 받은 혜택이 그리 크지 않았다. 어떤 기획과 의도도 뜸 들이는 총량의 시간이 필요하다면, 올해 창작산실은 존경어린 수사까지는 아니더라도 충분히 풍성한 볼거리를 만들어주었다. 윤한솔, 최진아, 안경모, 김민정, 김은성 같은 이제 중견에 훌쩍 접어든 연출가와 극작가들이 시스템 내에서(지원사업 자체가 시스템이 아닐까?) 새로운 활로를 찾아나서는 시도들도 목격되었고, 이로써 다시 이 산실로부터 우리연극이 무엇을 꾀하고 도모하고 있는지를 목격할 수 있는 기대감을 갖게 했다. 개별작품의 성패와는 별개로, 이번 창작산실이 얻은 가장 큰 성과가 아닐까.

올 창작산실에서 목격한 '도모함'의 광경은 다시 한 번 읽혀져야 하는 과거, 바로 이 지점에서 다시 한 번 읽혀져야 한다고 보는 그러한 '과거'의 심리적 경험들을 포착하는 공통된 지향점들이 읽혀진다. 어떤 과거는 연대기처럼 중계되고, 또 어떤 과거는 패배의 영토에서 미약했던 인간들을 부활시키고, 또 어떤 과거는 죄의식의 강박관념에 둘러싸인 자의 이야기를 시작하려 한다. 과거를 도돌이표처럼 이용하던 센티멘털을 집어치우고, 우리는 이 '과거'로부터 무엇을 도모해야 하는 것일까? 잘 도모된 과거라고 한다면, 과거 같은 현실과 현실 같은 과거가 교차되며 둘 사이의 경계는 무너질 것이며 그때의 과거는 조악한 패러디거나 새삼스런 노스탤지어라는 불명예를 확실히 넘어설 수 있을 것이다. 아래는 올 창작산실에서 보여진 과거가 '도모'한 몇 가지 흔적들이다.







엑스트라 연대기

'작은인간'들, 엑스트라들의 미시사를 통해 탐색된 역사연구는 지금까지 무대에서 꽤 자주 확인되었다. 전성현이 쓰고 윤한솔이 연출한 〈엑스트라 연대기〉는 미시사 가운데에서도 '점거투쟁'이라는 소집단의 역사를 탐색하는 방법론을 발견,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주어진 상황'으로서의 역사에 접근한다는 점에서 소재적 참신성을 높이 살만하다. 이 연대기가 기록하는 점거의 역사는 동료들처럼 만주로 가지 않고 이 땅에 남아 벌어지는 일들을 빠짐없이 목격하겠다는 독립군 강주령의 '점거'로부터 시작한다. 이후 '점거'라는 행위는 탄약고를 점거한 군인, 고해성사 장소를 점거한 신자, 공장 지붕을 점거한 노동자, 재개발로 터전을 잃게 된 철거민들의 수많은 '점거'들로 이어진다. 연극은 이를 통해 '점거', '점유', '점령'의 행위를 공간과 시간에 대한 주체적 인식의 과정으로 상정하고 그것을 권력과 폭력으로부터의 항거의 역사로 바라본다. 이로써 '점거'는 고립이 아니라 해방으로, 고독이 아니라 연대로, 실패가 아니라 성공의 역사로, 엑스트라가 아니라 주인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역사운행의 동력을 만들어 낸다.

에피소드식 구성임에도 불구하고, 연극의 시작부터 끝까지 각각의 에피소드들이 하나의 연대기로 연결되고 지속될 수 있는 '운동성'을 확보한 점은 에피소드를 특정한 서사 위에 독립적으로 위치시키지 않은 연출가의 선택에 힘입은 바 크다. 반복된 에피소드들이 나열되면, 극이 전체 공연 안에서 생산적으로 출렁이지 않을 때가 있는데 윤한솔이 발견한 이 운동성은 에피소드과 에피소드 간의 단순한 '연결'이 아니라, 에피소드를 적층의 맥락에서 바라볼 수 있는 동력을 제공한다.

공간의 '점거' 라는 주어진 상황에서 에피소드들이 적층되는 것으로 마무리 될 수도 있겠다 생각했지만, '점거'의 역사를 연 강주룡이 이 모든 엑스트라들의 점거의 역사를 목도한 후 극장을 내팽개치고 나가므로 인해 모든 서사가 하나의 구심력 안에 모여든다. 강주룡이 '점거'에 품었던 희망과 구원의 메시지를 스스로 걷어참으로 인해, 이제 엑스트라들의 점거의 역사는 온전히 관객들의 목전에 놓여진다. 분노하듯 퇴장하는 강주령의 뒷모습을 시작으로, 관객은 이제 그 점거의 역사를 다시 되돌아보고, 이 미시사를 불러 모아 새롭게 역사를 탐색해야 할 것이다.

대극장 무대 위에 강주령이 올라간 고공의 점거공간인 나무 전주를 비롯하여, 작은 화장실, 탄약고, 고해성사실, 옥탑방, 공장지붕 등의 작은 무대들이 에피소드들 마다 무대 위의 한 구석에 만들어지고 해체되고를 반복한다. 점거의 공간은 그 자체가 공연의 중심된 사물이어야 할 것인데, 대극장 무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협소한 점거의 공간을 직접 짓고 부수는 과정을 노출하며 점거의 공간을 주제이자 쟁점으로 만든 점 또한 무엇보다 눈여겨볼 만하다.



견고딕걸

법의 테두리를 초월하는 윤리적 도덕적 사과의 문제를 우리는 미투 이후 뼈저리게 공부하고 있다. 박지선 작, 신재훈 연출의 〈견고딕걸〉은 남은 피해자 가족의 삶과 고통이라는 작품 전체의 외피 안에, 가해자 쌍둥이 자매가 자기 안의 상처를 스스로 목도하기 위해 나아가는 '과정'의 연극이다. 타살과 자살의 원인은 물론이고, 가해자와 피해자가 연극에서 모두 사라짐으로써 이 극은 단순히 죄와 벌, 용서와 구원이 작품의 '그것(The thing)'에 머물지 않도록 한다. 대신 연극은 육중한 무게로 가해자 가족의 삶을 짓누른 죄의식이 어떤 과정을 통해 줄어들 수 있는지 고민한다. 그런 후, 무너진 인간관계와 폐허가 된 피해자의 마음을 세우는 사과와 용서의 문제에 다가간다.

우리 사회의 쟁점들에 대한 이해를 공유한 젊은 창작자들과의 협업을 지켜보는 것은 항상 즐겁다. 창작 구성원들의 역량은 그 협업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가장 중요한 요건이 될 것이다. 이 가운데서도 극이 내포한 비극의 두께에 침잠하지 않으려는 연출의 전략이 확실히 돋보인다. 가해자와 피해자, 죄와벌의 외피를 두른 이 작품에서 통통 튀는 베리어프 자막이 전시되고, 랩이 흘러나오고, 실제 연주자들의 음악이 더해질 수 있었던 것은 신재훈 연출가의 역할이 컸다.

베리어프리 자막 활용은 이제 우리 공연계의 필수적인 요건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 화면을 6개로 쪼개 나눠 자막을 분절하고, 비언어적 의사소통을 언어화 하는 방식으로 베리어프리 자막을 연출의 한 부분으로 수렴한 점은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를 허물려는 목적으로 시작된 베이어프리 자막의 연극적 활용이라는 점에서 새롭다. 랩핑된 대사, 실시간 연주되는 음악, 피해자를 만나러 가는 여정의 빠른 전개 등은, 피해자와 가해자, 타살과 자살 같은 참담한 서사에 압사당하지 않고 인물과 상황을 목도하게 하는 연출적 전략이라 할만하다. 극과 극을 오가는 수민의 감정을 납득할 만큼 오고간 서지우의 연기는 칭찬 받아 마땅하다.

수민의 우울과 비극에 다가가는 문가에와 임예슬의 연기가 좋았다. 특히 미아와 현지는 극이 비극에 침잠하지 않도록 하는 중요한 부분이기도 했다. 〈견고딕걸〉은 청소년극으로 방향 전환을 해도 좋을 것으로 보인다. 단순히 죄와벌과 용서와 자비의 문제가 아니라 켜켜이 쌓아둔 상처의 근원에 자기 스스로 대면하려는 인물에 대한 이해의 측면에서 청소년극으로의 설정은 극에 좀 더 자유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주인공이 가해자의 쌍둥이 언니라는 설정은, 그 사이 피해자의 신체를 이식한 사람들과의 만남은 분명 극의 긴장을 위한 연극적 장치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상상될 만큼의 이야기를 보여준다는 아쉬운 지점은 있다. 길지 않은 공연시간과, 다양한 연출적 전략에도 불구하고 의자를 고쳐 앉아 극에 다시 집중케 하는 발화점들이 두드러지지 않았는데, 재공연이 이뤄진다면 이에 대한 창작자들의 숙의를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미궁의 설계자

남영동 대공분실 509호에서 벌어진 고문과 취조를 다룬, 민주항쟁을 소재로 한 연극/영화들은 열 손가락을 다 꼽아도 모자랄 만큼 꽤 있었다. 김민정 작, 안경모 연출의 〈미궁의 설계자〉는 국가 폭력의 상징 대공분실을 발주했던 당시 내무부장관 김치열과 건축가 김수근을 연극의 중심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기존의 민주항쟁을 다룬 작품들과는 소재적 차별성이 있다. 〈미궁의 설계자〉는 그런바 공간에 대한 연극이자, 가해자들에 대한 큰 함의를 품고 공간을 탐색하는 연극이다.

희곡은 세 개의 시간대를 교차한다. 건물 설계를 준비하는 건축가 신호의 시간(1975), 이 건물로 끌려와 취조와 고문으로 죽음을 맞은 경수의 시간(1986년), 민주인권기념관이 된 남영동 대공분실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준비하는 나은의 시간(2020)이다. 세 개의 시간대가 교차하며 각 건물의 얽힌 역사가 하나의 맥락 안에 자리한다. 물론, 애초 주어진 희곡의 상황은 흥미롭다. 그러나 각각 시간대가 건물과 맺는 관계를 보여주려다 보니 각각의 시간대 안에서 만나게 되는 레토릭이 애초의 아이디어에서 새로운 질문이나 관점에 가 닿지 못한다. 신호의 갈등이나, 경수의 비극이나 나은의 인식은 관객이 유추할 수 있는 담론 그 언저리에 머물고 있다.

빨갱이 잡는 미궁을 지으라는 허일규의 요구를 신호가 거부하고, 그 사이에 신호가 보여주는 양심의 가책과 갈등, 대공분실이 고문기계라는 윤미숙의 주장과 다큐 감독 나은의 대립, 그리고 마지막 509호실의 희생을 보여주는 장면은 이 연극이 최초의 아이디에서 나아가지 못하고 그 함정에 빠졌다는 것을 방증한다. 참신한 아이디어에도 불구하고 자주 볼 수 있었던 6.10항쟁 관련 영화/연극들과의 차별성을 찾을 수 없었던 점이 아쉽다.

안경모 연출은 애초 이 연극의 아이디어가 '공간'에 있었음을 간파하고 대공분실의 공간, 벽의 질감들을 추적하는 다양한 연출적 전략을 쓰고 있지만, 그 아이디어를 구해내기에는 역부족이다. 대공분실의 공간이나 벽, 그 주변의 환경을 화면에 분사시키는 방식 이외에, 관객이 공간을 감각할 수 있는 더욱 파격적인 연출의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김수근이 설계한 건물에서 김수근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는 특이점이 그다지 돋보이지 않았다. 마지막 회선형 계단을 타고 퇴장하는 것 또한 일차원적이었다. 다시 아르코에서 공연을 하게 된다면, 좀 더 다른 방식의 관객 참여를 고민 해봐도 좋겠다.

빵야

〈빵야〉는 부박한 한국의 근현대사를 '장총'이라는 오브제를 관통해서 읽어내는 김은성의 필력이 돋보인다. 장총을 매개한 에피소드식 전개, 의인화되고 욕망화된 장총의 구축방식, 그리고 자기이야기 하기 등은 새로울 것 없지만, 속도감 있는 에피소드 전개는 자칫 지루할 수 있는 이러한 극작술을 보완하는 역할을 해 낸다. 그러나 위태롭게도, 작품의 시작과 동시에 이 극작술은 완전히 노출되었고, 한국의 근현대사와 매개한 장총의 이야기라고 했을 때 구축되는 에피소드가 자칫 단조로운 반복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

장총의 에피소드가 나열되고 쌓여가는 과정에서, 서사의 외피에 해당되는 드라마 작가 나나의 반성과 인식의 과정이 둘러쳐져 있다. 에피소드와 에피소드 사이 빈공간 안에서 관객의 상상력과 인식이 작동된다면, 나나는 관객을 대신해 인식하는 주체이다. 이 극에서 나나의 인식의 과정은 진지하나, 다소 생각을 강요하는 듯도 하다. 나나의 서사와 말이 꽉 차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든다. 에피소드와 말을 줄이고, 극의 탄력을 확충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1인 다역을 오가는 배우들의 역량은 3시간 남짓한 시간동안 관객들의 집중력을 부여잡는다. 배우들의 극에 대한 몰입도는 이 작품이 결국 대중적 인기를 얻을 수 있는 이유가 된다. 빠른 에피소드의 전환에도 불구하고, 장총을 매개로 한 에피소드의 연결이 혼란스럽다거나 분주해 보이지 않았던 이유 또한 각각의 에피소드 상황 안에 몰입하고 나오는 배우들의 노력한 연기 디테일에 있다. 특별히 하성광의 빵야는 퇴역한, 노련한 군인의 관조와 여유가 돋보였다. 하성광의 빵야는 그래서 빠르게 전진하는 에피소드 사이사이에 숨통을 틔어준 역할을 했다. 상대적으로 젊은 문태유의 빵야도 궁금하다. 하성광의 빵야와 다르게 역사 순간순간의 욕망과 희열, 상념과 실패가 명징하게 오고가며 극의 볼륨을 더 높이지 않았을까 싶다.

김태형 연출의 〈빵야〉에는 축적된 역사의 소품창고 속 소품의 디테일에 눈에 띈다. 그러나 다양하게 전환되는 에피소드 안에서 그저 풍경처럼 전시된 점이 아쉽다. 인류사에서 미시사는 공간과 물건에 투영되어 있다. 장총은 의인화 되었고, 무대 위에 등장한 소품창고의 디테일을 부각시킬 수 있는 아이디어들이 추가된다면, 극의 리듬을 좀 더 풍성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노스체

재난 소재 연극이 최근 무수히 등장하고 있다. 그 시작은 후쿠시마 원전이었고 이후 기후위기, 인공지능, 그리고 코로나에 이르기까지 재난은 연극을 비롯한 다양한 예술장르의 핵심 소재가 되었다. 황정은 작, 윤성호 연출의 〈노스체〉는 그 가운데 후쿠시마 원전사고라는 인류사의 가장 큰 재난을 가져와 재난이후의 세계를 직시토록 한다. 이미 재난 이후의 세계에 살고 있는 지도 모를 '지금', '이 세계' 는 노스체 속 현실과 같다고 해도 무방하다. 〈노스체〉의 소재적 참신함은 여기 있다.

'지금', '이 세계'는 재난이후의 세계이다. 그런 바, 노스체의 공간을 일반적인 재난물의 공간처럼 포스트 아포칼립시스로 만들지 않는 점이 특별하다. 〈노스체〉의 공간에서 일상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으며, 재난은 사람들의 내면에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 침잠해 있다. 일상보다 조금 어지럽게 쌓인 잡동사니들이 눈에 띄긴 하지만, 〈노스체〉는 물리적인 폐허를 앞서는 포스트 아포칼립시스의 실체에 근접하고자 한다. 재난로봇 노스체에 대한 형상을 인간에 근접하도록 구상하고, 특징적인 몇 가지 동작이나 대사처리 방식을 통해 역할을 창조한 지점도 눈여겨 볼만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이곳, 그리고 이것은 '재난', 혹은 '재난이후의 상황'이다. 여타의 재난물과 같은 물리적 폐허가 아니더라도 연극적 긴장을 어떤 방식으로든 지속시켜야 할 것이다. 그러나 연극은 이 긴장이 축적되지 않고 매번 흩어져 터져야 할 순간을 찾지 못한다. 그래서 엄마 연과 아들 현의 관계, 재난이후의 세계에서 성장한 현화 희, 그리고 이 세계에 들어온 사람들과의 관계는 일상적인 관계들이 야기하는 긴장 이상을 만들어 내지 않는다.

포스트 아포칼립시스, 재난로봇, 포스트휴먼과 같은 우리사회의 여러 쟁점들을 가지고 출발한 이 희곡은 어디에 다다라야 하는가, 이 연극이 갖는 가장 큰 질문이다. 이 질문으로 끝날 것인가? 질문에 대한 여러 가지 관점을 제시할 것인가? 그 질문을 보여줄 상황만을 제시할 것인가? 질문에 대한 해답을 제안해 볼 것인가? 쟁점들이 핫할수록, 대화를 통해 구성되어야 하는 연극은 그 쟁점들이 마치 함정처럼 다가올 때가 있다. 경험에서 봤을 때, 그 함정에 빠지지 않거나, 그 함정에 빠지거나, 혹은 그 함정에서 빠져나오거나의 갈림길에 선다. 포스트아포칼립시스를 일상의 온도에 맞춰놓음으로 인해서 수반되었어야 했을 극작, 연출적 전략들에 대한 추가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어떤 극적인 상황조차 이성적으로 바라볼 줄 아는 윤성호의 연출적 특성은 이 연극에서도 유감없이 발휘된다. 재난상황이지만, 일반적으로 상상할 수 있는 재난상황과 닮지 않은 〈노스체〉의 주어진 상황은 윤성호 연출가와 닮은 지점이 있다. 그럼에도 재난이라는 상황은 어떤 순간에서든 감각되어야 할 순간이 있다.

하얀봄

90년대 학생운동을 소재로 한 연극들이 한동안 유행인적이 있었다. 〈하얀봄〉은 그렇다면, 90년대 학생운동을 소재로 한 다른 작품들과 어떤 차별성이 있는가? 학생운동을 근현대사의 맥락에서 보았을 때, 그 가운데에서도 여성들의 이야기에 방점을 둠으로 인해 학생운동의 외연에 있고자 한 극작가의 의도는 같은 듯 보이나, 〈하얀봄〉이 그간 학생운동을 소재로 한 여타 작품들과 차별성을 갖는 이유일 것이다. 익숙한 학생운동의 장면들이 펼쳐지지만, 나는 이 공연을 상당히 재미있게 보았다. 작가이자 연출가인 최진아가 자기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을 정도로, 장면마다 연출의 전략들은 디테일했고 빈틈이 없었다. 학생운동이라는 서사들이 익숙했음에도 불구하고, 재미있었던 이유는 이 빈틈없는 장면만들기에서 느낄 수 있는 연출가에 대한 신뢰 때문이었을 것이다. "공연형식이 새롭다는 것은 무엇인기" 묻는다면, 주어진 상황 안에서 짜임새 있는 연출의 전략들이 곳곳에서 재기능을 해 시너지를 낸다면 이 또한 새로운 공연의 형식이 아닐까? 반문하고 싶다.

정운과 수진의 관계는 여느 여자 친구들과의 관계로만 이해해서는 안 되는 복잡한 내면이 있다. 그래서 거짓과 폭력을 향한 우리 근현대사의 학생운동은 주인공 정운과 수진이 만들어 낸 관계의 외피에 지나지 않을 수 있다. 이 두 이야기가 어떤 방식으로 길항하다가, 어떤 방식으로 둘이 또 서로를 수렴할 수 있는 지는 〈하얀봄〉의 창작 과정에서 가장 고민된 지점이었을 것이다. 공연만을 보았을 때, 정운과 수진의 이야기는 학생운동이라는 외피와 길항하다가 학생운동이라는 대전제 안에 수렴되며 이야기가 희석되어버리는 상황이 종종 발견된다. 그렇다면 정운과 수진의 이야기는 왜 필요한가? 그 반대로 90년대 학생운동은 왜 희곡의 외피로 자리하고 있는가 하는 질문들이 이어지는 이유가 될 것이다. 학생운동을 외피로 하는 두 여성의 이야기에 활기를 좀 더 채운다면, 애초 이 연극의 출발지점과 목적지를 명확하게 하는 일일 수도 있겠다.



창작뮤지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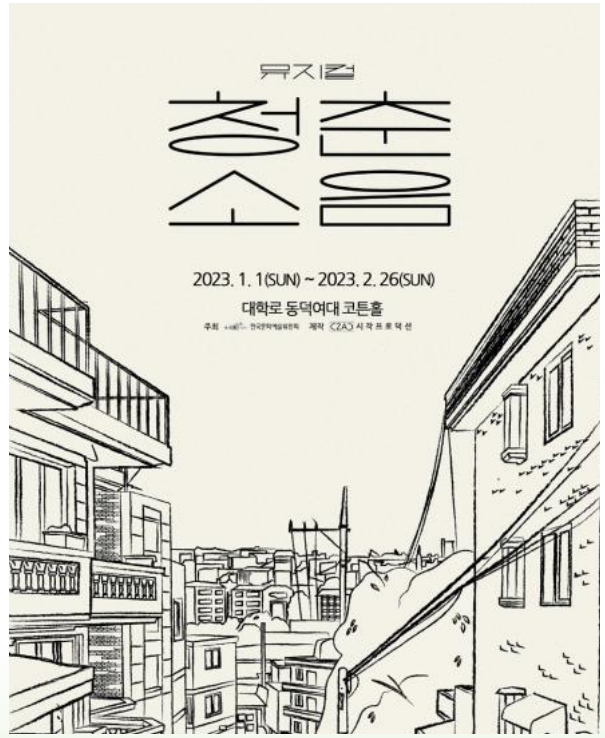


시작프로덕션㈜

청춘소음

일시	2023년 1월 1일(일) ~ 2월 26일(일)
공연시간	평일 오후 8시 / 수 오후 4시, 8시 / 토 오후 3시, 7시 / 일 오후 2시, 6시
장소	동덕여대 공연예술센터 코튼홀
러닝타임	110분
티켓	R석 6만6천원 / S석 5만5천원
출연진	김이담, 정욱진, 이휘종, 김민성, 랑연, 김청아, 임소윤, 김승용, 이기현
프로듀서	임선진
극본	변효진
작곡	김민서(김미경)
연출	우진하
음악감독	마창욱
제작감독	이다미
무대디자인	박연주
음향디자인	권도경
조명디자인	정구홍
소품디자인	김정해
의상디자인	김미정
분장디자인	신나나
안무	황보주성
기술감독	방한석
제너럴매니저	최아영





정 없고 답 없는 이 세상,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2022년 서울 외곽의 낡은 빌라. 여행 한 번 안 가본 여행 홍보 작가 오영원, 방음에 취약한 자취방에서 꾸역꾸역 글을 써내며 언젠가는 진짜 여행을 다니는 진짜 작가가 되길 꿈꾼다. 그런 그의 윗집에 알바를 하며 취직을 준비하는 한아름이 이사 온다. 아름의 팍팍한 현실 속에서 영원의 여행기만이 유일한 위안이다. 그러나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정반대의 생활 방식이 만들어내는 일상의 소리에 점차 신경이 쓰인다. 급기야 전문가의 상담까지 받게 되는 두 사람. 영원은 소음에 대한 불만을 적은 쪽지를 윗집에 붙인다. 아름은 여자 혼자 살면 해코지라도 당할까 비밀스런 과거를 가진 남자인 척한다. 거짓말은 금세 들통나고 제대로 사이가 틀어진 영원과 아름, 바람 잘 날 없는 나날을 보내는데... 정답 없는 층간소음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시작프로덕션㈜

2021년 설립된 공연단체로 뮤지컬 〈멸화군〉 제작을 시작으로 뮤지컬 〈청춘소음〉, 뮤지컬 〈다운타운버스〉 등 다양한 창작뮤지컬 작품 개발 및 제작에 힘쓰고 있다. 신작 프로젝트별 작가, 작곡가, 개발 연출, 전담PD 및 책임프로듀서까지 5인 체제 프로세스로 운영되고 있으며 소재 발굴, 작품 개발, 무대화까지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구성원 모두가 각자의 창작 과정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한다. 건강한 뮤지컬 프로덕션 환경 마련을 중요시하며 신진 창작자의 아이디어가 단순히 아이디어로만 머무를 수 있는 한계를 넘어 기획, 개발, 제작, 유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신진 창작자를 중심으로 프로젝트 그룹을 편성하여 이들이 한국을 대표하는 창작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창작 환경을 마련하고 다양한 형태의 작품 개발로 연결될 수 있도록 이들의 성장과정에 동행하고자 한다.

인터뷰

변효진 작가, 김민서 작곡가, 우진하 연출

작품 창작의 배경과 모티브는 무엇인가요?

(작가)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길어지면서 층간소음으로 인한 사건 사고가 늘어나고 인터넷에서도 층간소음에 대한 다양한 일화가 올라 올 때였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찾아보면서 층간소음은 정답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과연 개인의 잘못이라고 할 수 있을까? 물론 폭력은 어떤 상황에서도 정당화될 수는 없지만요.

원가 절감을 위해 층간 두께 15cm 구조로 설계를 바꾸는 기업, 지속적인 문제가 있음에도 법을 개선하지 않는 정부에게도 문제가 있는데, 개인의 책임으로 떠넘기는 게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비단 층간소음에만 국한 된 게 아니라고 느꼈습니다. 1인 가구 고독사, N포세대 등 우리가 처한 문제를 너무 쉽게 우리의 문제라고만 치부해 버리는 세상. 이런 정 없고 답 없는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를 고민하다가 쓰게 되었습니다. 사실 '층간소음->소리->음악->뮤지컬->재밌겠다'의 흐름으로, 일상 코미디 뮤지컬을 써보자 하는 계기도 물론 있었습니다. 하하하!

관객들이 추천하고 싶은 작품 속 뮤지컬 넘버와 그 이유는?

(작곡가) 처음에는 '우린 지금 여행 중'이라는 넘버가 좋았습니다. 들을 때마다 마음이 행복해지는 기분이고, '작은 행복도 행복이니까 잠깐 멈춰서 있어도 괜찮아' 라는 가사가 저에게 해주는 격려 같았거든요. 또한, 이야기 흐름상 이 넘버를 통해 인물들의 관계가 달라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좋기도 했어요. 그저 미워하기만 했던 사람들이 다른 여러 가지 감정을 드러내거나 갖게 되면서, 이후의 이야기는 어떻게 될까 궁금증을 자아내게 되는 넘버입니다.

지금은 '이 기분은 뭘까'라는 넘버에 더 마음이 가요. 가사처럼 정말 제 마음을 저도 잘 모르겠는 요즘이거든요. 그저 평범하고 소소한 행복을 느끼며 살고 싶은데 일, 또는 인간관계 등 모든 게 내 마음처럼 되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 부딪힐 때면 이 넘버가 떠올랐어요. 현재 저의 어지러운 마음을 위로해 주는 넘버이기 때문에 관객분들도 공감하시지 않을까 합니다.

모든 넘버 하나하나 인물들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열심히 작업했으니까요, 모쪼록 이야기와 함께 잘 즐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헤헤~

'층간소음'이라는 친숙한 소재를 바탕으로 이야기를 풀어내는 과정에서 특별히 고민했던 지점은 무엇인가요?

(작가) 세상에는 층간소음처럼 직접적으로 나를 괴롭하는 소음도 있고 내 속을 시끄럽게 하는 소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도 어디에나 있습니다. 타인의 말, 자신의 처지, 혹은 스스로에게 하는 말마저도요. 그 수많은 소음 중에서도 거짓말이라는 키워드를 통해 '거짓말 할 수밖에 없는 청춘'에 초점을 맞춰서,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을 나름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청년들을 그리고자 했습니다.

친숙한 소재는 기시감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 사는 것 다 비슷하니까요. 어디선가 만난 적 있는 인물, 어디선가 들어 본 일화라는 두려움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늘 신경 쓰는 건, 내 글을 누가 봐도 상처 입지 않게 쓰는 것입니다. 인터넷에는 층간소음 피해자 모임 카페도 있어요. 그분들은 매일이 전쟁이고 투쟁입니다. 그래서 이 소재를 너무 별거 아니게, 우스꽝스럽게 써버리면 층간소음으로 사건 사고를 겪은 당사자가 불편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주로 희극을 쓰기 때문에 이 점을 가장 고민합니다..



관객들이 주목해서 볼만한 장면 또는 대사를 소개해준다면?

(연출) '당신과 나 사이 고작 십오 센티 벽 하나, 내 방은 당신의 바로 근처에 있죠'
층간소음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에 대응하는 세 가지 유형이 있다고 합니다.

1. 이웃이 누구인지 전혀 모르는 경우
2. 이웃이 누구인지 얼굴만 아는 경우
3. 이웃 간에 친하게 지내는 경우

우리가 만약 1번의 상황이면 분노가 생기고, 2번의 경우엔 분노는 없지만 그래도 짜증은 나고, 3번의 경우라면 이해하려고 노력한다고 해요.

'당신과 나 사이'라는 넘버는 처음엔 벽 너머 누군가가 두려운 경계의 대상으로 인지됩니다. 그러다가 서로를 알아가고, 리프라이즈 넘버로 나올 때는 아는 사이의 중요성과 서툴러도 함께 살아가는 것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작품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가 명확하게 담긴 가사라 소개해드리고 싶네요.

관객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연출) 〈청춘소음〉은 오래된 빌라에 살고 있는 청춘들의 이야기입니다. 여행 수기로 돈을 벌지만 현실은 비행기 티켓 한 번 끊어보지 못한, 언젠가는 꼭 진짜 여행을 떠나고 싶다는 생각만 하는 영원. 온갖 알바를 섭렵하며 수많은 사람을 대하지만 절대 사람을 믿지 않는 취준생 아름. 하루하루를 버티느라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하고 싶어도 현실의 벽에 부딪혀 이별을 맞이한 공장 노동자 중길. 이들은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2030 청춘들의 모습입니다. 만족스럽지 않은 현실을 마주하며 고통받지만, 더 나은 현실을 위해 '소리 없는 아우성'을 치며 자신만의 인생을 여행 중입니다.

여행은 '어디를 가느냐 보다 누구와 함께 가느냐가 중요하다'는 말이 있듯, 개인주의가 만연한 현실에서 어쩌면 조금 더 멋진 여행을 하는 길은 '함께'일 때가 아닐까요? 〈청춘소음〉은 '소통의 부재'로 두꺼운 벽 너머를 두려워하거나 분노했던 이들이 마음을 열고 서로를 알아가며 이해하는 과정을 통해, '함께 살아가는 것'의 중요성을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섬으로 간 나비

앨리스

일시	2023년 1월 28일(토) ~ 2월 26일(일)
공연시간	화~금 오후 8시 / 토 오후 3시, 7시 / 일 2시, 6시 / 월 공연 없음 * 1/28(토) 오후 3시 공연 없음, 2/26(일) 오후 6시 공연 없음
장소	이해랑예술극장
러닝타임	100분
티켓	R석 5만원 / 시야제한석 3만원
작가	성재현, 윤상원
작곡가	박은혜
연출	윤상원
음악감독	유한나
안무감독	이현정
출연진	이휴, 조치현, 박영수, 박건, 신진경, 손지애, 김방언, 차율, 정재헌, 유효진, 주태윤, 이종원, 조은진, 곽나윤, 박지원, 유세선
무대	한성주
조명	박준범
음향	김주한
영상	무탈한수풀
그래픽디자인	박예지
일러스트	안서연
의상	권가용
분장	조미경
무대감독	김은비
조연출	박고은
조음악감독	배인혜
조안무감독	유민영
영상오퍼	이진우
프로젝트매니저	김수지
컴퍼니매니저	장지수
프로필 사진	박태양



‘All for One’ : 모두는 한 사람을 위해.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갖고 있는 나영이의 이상한 나라 모험기

나영이는 실제 나이 17살, 정신연령은 5살, 자폐스펙트럼 장애를 가지고 있는 소녀이다. 곧 어른이 되어 아빠와 이별을 해야 하는 나영은 슬퍼져 자신의 친구 토끼 인형에게 '아빠와 이별하지 않고 평생 함께 살 수 있는 방법을 묻고, 토끼가 이야기해 주는 이상한 나라로 모험을 떠나는데...

섬으로 간 나비

2015년에 창단된 공연콘텐츠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만들고 무대 위에 구현하는 공연 예술 단체입니다.

대표작 : 뮤지컬 〈무인도 탈출기〉, 〈나르치스와 골드문트〉, 〈루시드드림〉

연극 : 〈정백광전〉, 〈히킥고모리〉, 〈순결한 자녀는 망하지 않는다〉, 〈침팬지 날다〉 외

인터뷰

윤상원 연출, 성재현 작가

작품 창작의 배경과 모티브는 무엇인가요?

(연출) 뮤지컬 〈앨리스〉는 루이스 캐럴의 소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를 모티브로 자폐스펙트럼 장애를 가지고 있는 17살의 나영이가 바라본 우리 사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와 등장인물 이름이 연결되지만 이 작품 속 인물들은 상상이 아닌 현실 속의 인물이라는 것이 큰 차이점입니다. 나영이는 아버지와 영원히 함께 살 방법을 찾기 위해 토끼 인형을 따라 이상한 나라로 들어가는데 그곳에서 만난 애벌레 언니는 아랫집에 사는 언니이고 피터팬은 마음에 상처를 가진 고등학생입니다. 나영이는 우리 주변에 언제나 함께 있는 이웃들을 통해 성장하고 어른이 되어 이별을 준비할 결심을 하게 됩니다.

'자폐 스펙트럼'이라는 소재를 이야기로 풀어내는 과정에서 특별히 고려했던 지점은 무엇인가요?

(작가) 당사자성의 측면에서 많은 자문을 얻으며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 슬픔을 축소하거나, 불편을 숨기거나, 대책 없는 희망을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당사자에겐 입을, 비당사자에겐 귀를 주는 이야기가 될 수 있도록 계속 고민 중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영이의 동화 같은 모험 이야기가 나영이와 아빠, 둘만의 이야기가 아니길 바랍니다. 나영이의 눈에 비치는 세상을 따라가며 슬프고 거칠고, 못된 상처를 주면서도, 다시 세상을 살아가게 만드는 따뜻함을 발견하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관객들로 하여금 내가 길을 잃은 순간에 누군가 곁에 있을 거라는 믿음을 주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스치듯 베푸는 작은 호의가 얼마나 강한 힘을 지녔는지에 대해서. '한 아이를 키우는 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의 속담처럼, 공연이 끝나고 나왔을 때 주변을 둘러볼 수 있는 이야기였으면 좋겠습니다.

관객들이 주목해서 볼만한 장면 또는 대사를 소개해준다면?

(작가) 나영이의 이상한 나라와 실제 현실 세계가 어떻게 겹쳐지고 있는지, 환상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지금 현실에서 어떤 식으로 말하고 있을지를 상상하며 본다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리하여 현실과 환상이 완전히 겹쳐졌을 때, 이상한 나라의 마법이 풀리는 장면을 작가 또한 가장 기대하고 있습니다. 가장 좋아하는 대사는 '우리도 보고 싶은 대로만 보잖아요. 나영이는 분명 더 큰 걸 보고 있을 거예요.' 라는 대사와 '여기가 이상한 나라야. 우린 네 생각에 따라 다르게 보일걸. 생각은 다른 사람들 때문에 바뀌고, 다른 사람들이 우릴 어떻게 부르는지에 따라 너도 우리를 다르게 부르지.' 라는 대사인데, 모두 이상한 나라에 대한 힌트를 줄 수 있는 대사들입니다. 어느 장면에서 나올지 찾아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무대와 영상, 조명 등 관객들이 주목해서 볼만한 연출 포인트는 무엇인가요?

(연출) 나영이의 시점으로 바라본 상상의 세계를 무대 위에 구현하고자 합니다. 뮤지컬 앨리스의 무대는 상상 속 판타지가 아닌 현실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영이가 본 세상의 중심은 집이고 그 주변으로는 빌딩이나 도시의 계단들이 둘러싼 형태를 기본으로 모험의 공간으로 잡았습니다. 특징적인 부분은 무대 장치 회전을 마치 놀이터의 회전 기구를 떠올리게 하는 효과와 더불어 동적인 에너지와 여러 장면의 배경이 될 수 있게 활용하는 것입니다. 조명과 영상은 나영이의 시선과 상상의 확장을 모티브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영이는 그림에 큰 소질이 있는 친구인데 일러스트 작가가 나영이의 시선으로 그린 그림을 무대에 영상으로 구현하고 조명으로 확장하여 나영이의 시각을 관객들도 함께 경험할 수 있게 연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관객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연출) '모두는 한 사람을 위해'라는 카피 글은 무대 위의 배우뿐 아니라 이 공연을 준비하는 창작진과 디자인 전 스텝을 포함하는 문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영이를 이해하고 나영이의 뒤를 밀어주고 지켜주기 위해 에너지를 모았으니 이 무대 앞에서 바라보실 관객 여러분들도 이 공연을 통해 내 옆의 한 사람 나아가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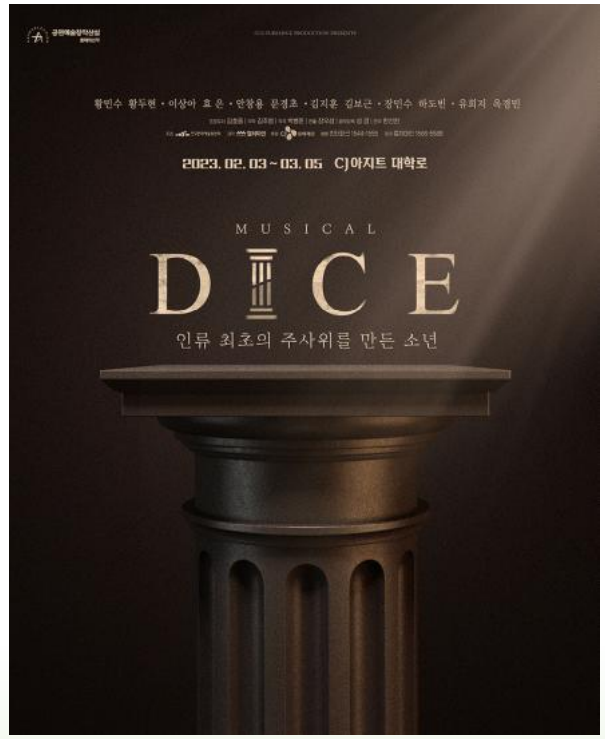
㈜컬처마인

다이스

일시	2023년 2월 3일(금) ~ 3월 5일(일)
공연시간	화~목 오후 8시 / 금 오후 4시, 8시 / 토 오후 3시, 7시 / 일 오후 2시, 6시 / 월 공연없음 * 2/3(금) 오후 8시, 2/8(수) 오후 4시, 8시, 3/1(수) 오후 2시, 6시
장소	CJ아지트 대학로
러닝타임	110분
티켓	R석 5만5천원 / S석 3만5천원
프로듀서	김효중
기획PD	이다인
제작PD	문승용, 류소연
작가	김주영
작곡	박병준
연출	장우성
음악감독·편곡	성경
안무감독	한선천
무대디자인	임규양
조명디자인	박준범
음향디자인	권지휘
의상디자인	임경미
소품디자인	노주연
분장디자인	임영희
조연출	김현주
컴퍼니매니저	김율아
출연진	황민수, 황두현, 이상아, 효은, 안창용, 문경초, 김지훈, 김보근, 장민수, 하도빈, 유희지, 옥경민







인류 최초의 주사위를 만든 소년
필연을 믿는 시대,
운명을 뜻하는 주사위의 탄생

기원전 1184년, 트로이가 함락되고 그 폐허 너머 높은 성벽 아래 자신을 감춘 작은 도시 '퀘베이아'

그 속에서 운명을 규정짓고 억압하는 성벽을 넘어 진정한 자유를 찾아 나아가는 이들의 이야기.

필연의 시대, 운명을 뜻하는 주사위 탄생의 의미를 주사위의 물리적 발명뿐만 아니라, 운명을 스스로 만들어나가는 '다이스'의 모습에서 찾는다.

㈜컬처마인

주식회사 컬처마인은 더 많은 사람들이 문화예술 콘텐츠를 소비할 수 있도록 대중성과 예술성을 두루 갖춘 콘텐츠를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문화콘텐츠 기획/제작사입니다. 이 세상에 유용한 모든 것들의 원료가 되는 광물을 캐는 광부처럼 유익한 콘텐츠로 만들어질 수 있는 원석과 같은 소재를 찾는 문화산업의 광부들이 모여 공연 기획/제작을 중심으로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전하는 스토리가 삶의 곳곳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달할 수 있도록, 저희의 아이디어가 일상에 활력을 불어넣는 자극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문화콘텐츠를 개발해 나갈 것입니다.

인터뷰

김주영 작가, 박병준 작곡가, 장우성 연출

작품 창작의 배경과 모티브는 무엇인가요?

(작가) 일리아드에 따르면 그리스와 트로이 간 전쟁이 무려 10년간 이어졌다고 합니다. 이 전쟁과 엮인 재밌는 이야기 중 하나가 바로 주사위의 탄생에 얽힌 기원설이었습니다. 길고 지난한 세월을 보내던 병사들이 지루함을 견디려 주사위를 발명했다는 믿거나 말거나의 속설.

보드판 위 소소한 주사위 게임이 무대 위 목숨을 건 한 판 승부로 펼쳐질 때 드라마틱한 이야기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이를 토대로, 트로이 전쟁을 지켜본 가상의 국가, 그곳에 주사위(콘)를 두고 대립하는 소년과 지배자의 이야기로 발전시켜 나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상상했던 것처럼 박진감 넘치는 한 편의 오락 액션 영화를 보듯이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작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판타지 장르의 창작뮤지컬로서 작곡 과정에서 특별히 신경 쓴 포인트는 무엇인가요?

(작곡가) 뮤지컬 〈다이스〉는 과거 그리스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라는 현대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는 작품입니다. 또한 그리스 신화에서 봐 왔던 신들과 신탁 등 판타지적인 요소가 들어가 있지만 주된 이야기는 신이 아닌 지금을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작곡을 하는 과정에서 팝과 락 장르를 차용하여 현대적인 느낌을 살리고자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동시대를 살아가는 관객들의 공감대를 끌어내고 싶었습니다. 특히 4인조 밴드 구성의 라이브를 통해 이야기가 가지고 있는 생동감을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뮤지컬 〈다이스〉에서 음악은 '퀘베이아'라는 가상의 공간을 설명하고, 그 안에 살아가고 있는 인물들의 심리를 표현하고, 나아가 인물들의 여정을 드라마틱 하게 표현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저는 뮤지컬 〈다이스〉의 음악을 통해 관객들이 퀘베이아라는 가상의 공간과 그 상황을 유추하고 상상해 볼 수 있게 하고 싶었습니다. 예를 들면, 오프닝 넘버인 'M1. 기다려'에서는 전시 상황인 퀘베이아의 긴장감과 동시에 구원자를 바라는 퀘베이아인들의 심리 상태를 보여주기 위해 무거운 기타 톤의 락 장르를 차용하였고, 'M6. 그 옛날 퀘베이아'에서는 어쿠스틱한 악기 사용을 통해 지금의 상황과는 반대되는 과거의 퀘베이아를 보여주려고 하였습니다. 또한 음악을 통해 각 인물들의 새로운 발견과 여정을 통한 심리 변화를 보여주려고 하였습니다. 대표적으로 'M8. 미로'의 경우 동굴을 탐험하는 모습을 음악으로 표현하고 있고,

'M11. 해가 질 때 태어나 동이 틀 때 사라진' 넘버를 통해서는 같은 염원을 가지고 있지만 인물들 각자의 다른 마음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더불어 주인공인 다이스의 경우 'M3. 저 목소리 들려와' 같이 밝은 곡을 통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앞으로 나아가려는 성격을 재치있게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관객들이 주목해서 볼만한 장면 또는 넘버를 소개해준다면?

(작곡가) 작품의 포문을 열어주는 첫 넘버, 〈기다려〉는 두려움에 떠는 퀘베이아 시민들과 그들을 다스리는 아르콘 그리고 도망쳐 다니는 다이스의 모습을 한 장면에 담은 노래입니다.

무시 받던 사기꾼 다이스가 성배를 마셔 영웅이 되는 하이라이트 장면이 관객에게 카타르시스를 선사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봅니다. 해당 장면은 마지막 넘버와도 연결되는데, 시련을 통해 성장한 다이스가 맨 첫 장면과 같은 장소, 같은 상황에서 위기를 극복해가는 모습을 보며 재미와 감동 모두 느낄 수 있길 바랍니다.

무대와 연출에 있어 관객들이 주목해서 볼 만한 포인트는 무엇인가요?

(연출) 다이스(주사위)는 장난감, 놀이도구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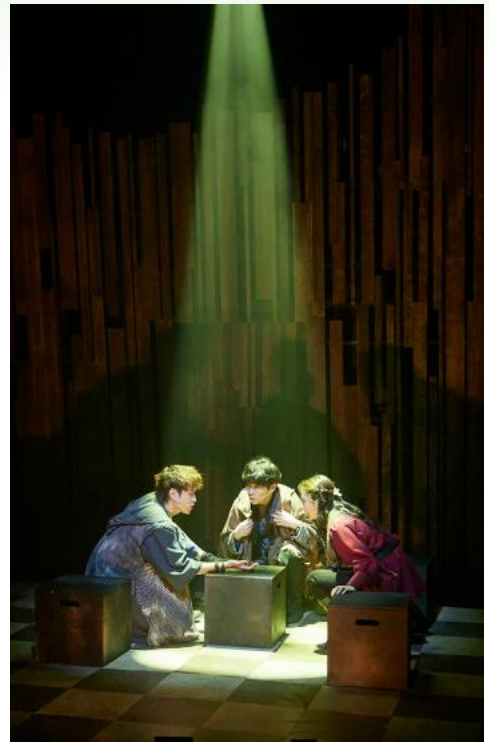
던지면 반드시 결과값이 나오는 필연성과 각 면의 숫자 중 어떤 값이 나올지 미리 알 수 없는 무작위성을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처에 따라 오락성과 도박성을 내포한 오브제이기도 합니다.

그 유희적 성격은 '모방', '놀이'에서 기원하는 공연예술의 본질과도 유사합니다. 이에 우리는 연극적 상상과 위트가 충만한 형식미, 스스로 놀이판 위의 말이 되어 룰을 만들고 따르고 파괴하는 마치 한편의 어드벤처 게임 같은 뮤지컬이 가능할까를 고민하며 연습에 임하고 있습니다.

관객들에게 어떤 작품으로 기억됐으면 하나요?

(연출) 주사위의 기원에 관한 가설에 상상력을 더해 우리는 주사위의 결과값이 곧 '신의 의지'인 세계에서 살아가는 등장인물들을 통해 '운명은 정해져 있는가? 만들어 가는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언뜻 무거운 소재이자 자명한 주제인 듯 하지만 그렇기에 전달하는 방식과 표현이 호쾌하길 바랍니다. 뜨겁고 재밌었던 작품. 미쳐 날뛰던 배우들. 막공 후 100일쯤 됐을 때, 관객도 배우도 스탭도 '아, 다이스 다시 안 하나...?' 앓고 앓는 작품으로 기억되길 바랍니다.







컴퍼니 일상, 적

윌리엄과 윌리엄의 윌리엄들

일시	2023년 3월 8일(수) ~ 5월 28일(일)
공연시간	화, 목, 금 오후 8시 / 수 오후 4시, 8시 / 토, 일 오후 3시, 7시 / 월 공연 없음 * 3/8(수) 오후 4시 공연 없음
장소	대학로 아트원씨어터 2관
러닝타임	100분 (예정)
티켓	R석 6만6천원 / S석 4만4천원
작가	김연미
작곡가	남궁유진
연출	김은영
음악감독	박윤솔
안무	홍유선
출연진	김수용, 원종환, 이경수, 주민진, 김지철, 황휘, 임규형, 황순종, 김지웅
무대디자인	이은경
조명디자인	이현규
음향디자인	권지휘
의상디자인	홍문기
소품디자인	노주연
분장디자인	현새롬
무대감독	강현호
조연출	한유주



셰익스피어의 작품이냐 아니냐, 이것이 문제로다!

런던 최고의 스캔들, 셰익스피어의 미공개 작품 〈보르티게른〉에 대한 위작 논란! 1796년 4월, 헨리와 사무엘 아일랜드의 재판이 시작된다.

세간의 인정을 못 받는 사무엘과 아버지에게 인정받고자 셰익스피어의 문건을 위조한 아들 헨리 아일랜드. 사무엘은 아들 덕에 우연히 '발견'한 셰익스피어의 문건들로 얻은 인기를 만끽하고, 새로운 발견에 영국 사회도 덩달아 들썩인다. 헨리는 아버지를 위한 거짓말에서 비롯된 칭찬과 세상의 찬사 속에 미지의 신사 H씨와 함께 점점 더 '진짜' 같은 '가짜' 만들기에 깊이 몰두한다. 하지만 벼락스타가 된 아일랜드 가문에 대한 소문과 발견된 셰익스피어 문건이 모두 위작일 수 있다는 의심이 걷잡을 수 없이 퍼져 나가자 헨리는 진실이 탄로 날까 봐 전전긍긍하는데...

컴퍼니 일상, 적

2020년 10월 설립된 컴퍼니일상, 적은 일상적인 우리 일상을 평범하지 않은 일상, 적으로 만들어주는 공연예술이 언제나 모두의 일상에 함께 하길 꿈꿉니다. 좋은 창작 공연은 어느 한순간 우연히 탄생하는 것이 아니라 한 계단씩 다져가며 성장한다고 믿으며 서두르지 않고 관객분들과 함께 차근차근 좋은 창작 공연의 탄생과 성장을 위해 걸어가고자 합니다.

인터뷰

김은영 연출, 김연미 작가, 남궁유진 작곡가

작품 창작의 배경과 모티브는 무엇인가요?

(작가·작곡가) 아버지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마음에 셰익스피어의 문건과 작품을 위조했던 윌리엄 헨리 아일랜드의 실화를 모티브로 삼았습니다. 무언가가 하고 싶어서, 기회를 얻기 위해서, 사랑받고 싶어서 애쓰는 우리의 모습과 아버지에게 인정받기 위해 아등바등하는 윌리엄 헨리 아일랜드의 모습이 닮아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쓰였습니다.

제목 '윌리엄과 윌리엄의 윌리엄들'은 무엇을 상징하나요?

(작가·작곡가) 헨리의 이름인 '윌리엄'. 사무엘의 이름인 '윌리엄'. 그리고 헨리가 만들어낸 위조작들인 '윌리엄들'. 다르게 보면 헨리와 사무엘의 이름인 '윌리엄'과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윌리엄'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합니다. 이야기 속에서 여러 '윌리엄'들이 반복되는 게 재미있어서 그 느낌을 제목으로도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관객들이 주목해서 볼만한 장면 또는 대사를 소개해준다면?

(작가·작곡가) H와 헨리가 처음 만난 후 서로 친해지는 장면이요. 헨리만 알고 있던 세상이 무대에 가장 아름답게 펼쳐지는 장면이기 때문에!

무대와 연출에 있어 관객들이 주목해서 볼 만한 포인트는 무엇인가요?

(연출) 서로 다른 세 인물의 심리가 무대 연출과 조명, 의상, 소품 등에 반영되는 것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누구보다 자유롭고 반짝이는 마음을 가진 헨리가 타인의 인정에 목적을 두는 삶을 택함으로써 어떻게 내면이 달라지는지 무대미술적으로 구현하고자 했습니다. 보시는 관객분들도 그 변화의 과정을 함께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남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사무엘의 욕망이 시각적으로 어떻게 표현되는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H. 작품 속 인물들의 욕망이자 시대의 욕망을 대변하고 그 시대로부터 현재까지 관통하는 캐릭터인데요. H가 입고 나오는 옷, 사용하는 소품, 서 있는 공간이 모두 그 각각의 욕망을 구체화시킨 결과물로 보이도록 연출하고 싶습니다.

관객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작가·작곡가) 이 이야기를 처음 쓰기 시작할 때와 지금의 마음이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 마음의 변화가 이야기 속 윌리엄 헨리 아일랜드가 겪었을 변화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작품을 써서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누군가의 평가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야기, 해야 하는 이야기를 주어진 자리에서 잘 해내고 싶어졌습니다. 이 마음이 우리의 이야기를 만나는 관객분들에게도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연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의 선택과 내가 하는 일들이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건지 매 순간 고민되고 또 고민됩니다. 저는 그 대답을 타인의 인정에서 찾으려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헨리의 말에서 조금 용기를 낼 수 있었습니다. 관객 분들과도 그 말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있는 그대로도 아름다울지 몰라"



삐걱대도 같이 삽시다

김민희(뮤지컬 마케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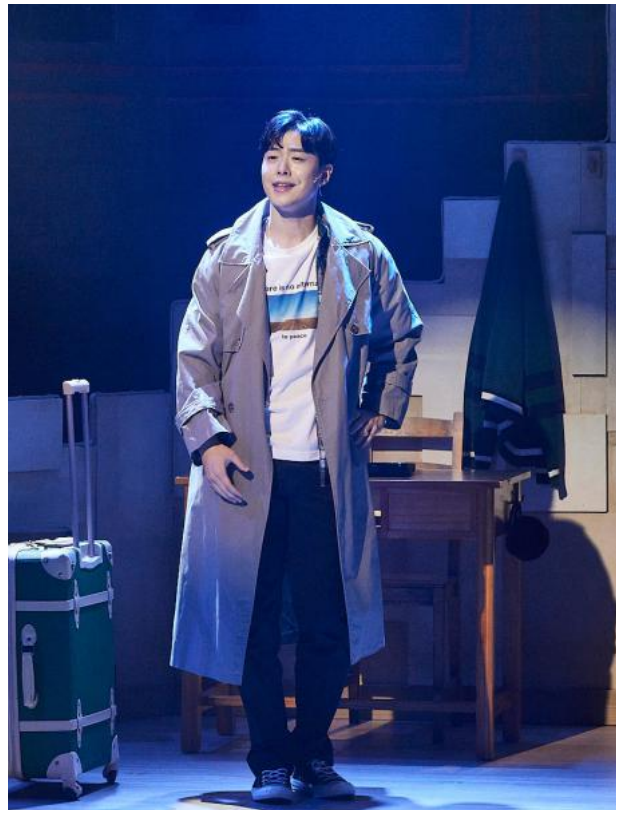
〈2022년 공연예술창작산실 올해의신작〉 뮤지컬 부분에 선정된 네 작품을 보고 난 평을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이다. 무대에 올려지는 많은 작품들이 시대를 살아가는, 살아간 많은 인간관계를 다루고 있다. 〈올해의신작〉에서 그 관계에 대한 표현이 더 가깝게 다가온 것은 극중 시대적 배경이 저마다 달랐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우리가 갖고 있는 '관계'에 대한 고민과 별반 다를 것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리라.

〈올해의신작〉 뮤지컬 작품 속에는 마음속에 있는 저마다의 소음을 겪어내야 하는, 특이하지도 이상하지도 않은, 인정과 애정을 얻기 위해 욕망과 갈등하는, 세상이 정해 놓은 기준과 억압, 편견에 맞서는, 나와 우리가 있다. 오늘도 여전히 마음속 소음을 참고 견디며 현실을 살아가는 덕용 맨션 사람들, 다름과 이상함이라는 편견을 넘어 '나'와 '우리'로 나아가는 나영이와 아빠, 인정을 받기 위한 욕망으로 괴로워하는 윌리엄과 윌리엄, 음모와 억압에 맞서 정의를 찾아가고 나를 찾아가는 다이스.

이들은 모두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다. 이러한 모습은 작품이 관객에게 전하는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오랫동안 공연 관객을 위한 서비스를 기획하고 운영해 온 입장에서 바라볼 때 작품과 관객이 서로에게 닿기까지 발생될 수 있는 많은 벽이기도 하다. 많은 미디어와 플랫폼 속에서, 갑작스러운 팬데믹 속에서 이제 작품은 관객에게 닿기까지 훨씬 더 많은 벽과 시간을 마주해야만 한다.

〈공연예술창작산실〉은 그동안 축적해온 탄탄한 디딤돌들로 이 벽과 시간을 허물어 작품과 관객의 관계를 끈끈하게 이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선정된 네 작품 중 디딤돌을 딛고 서서 더 적극적으로 관객과의 거리를 좁히고 관계를 다지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는 작품도 있었고, 현재는 이 디딤돌밖에 확보를 하지 못한 작품들도 보였다. 하지만 〈공연예술창작산실〉을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관객에게 다가가기 위한 방법을 찾고, 관객의 애정을 느꼈으리라 생각해 본다. 네 작품 중 두 작품에서 '우리의 삶은 여행'이라는 표현을 썼다. 현재를 살아가며 고민이 많은 우리에게 어쩌면 작품 속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줬을지도 모른다.

아래 대사와 같이 말이다.
"우린 서로 다른 세상을 여행 중"
"삐걱대도 같이 삽시다"









2022 공연예술창작산실 올해의신작 창작뮤지컬 비평

배경희(더뮤지컬 편집장)

현실로 한 발짝 다가온 뮤지컬 〈청춘소음〉 〈앨리스〉

오늘날 뉴스 사회면에서 심심치 않게 등장하는 사건사고 중 하나는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층간소음' 문제다. 그런데 바로 그 '층간소음'을 다룬 뮤지컬이 등장했다. 게다가 이야기의 주인공은 남들과 같은 삶을 강요하는 사회에서 뒤쳐지지 않도록 고군분투 중인 '청춘'들. 2022 공연예술창작산실 올해의신작 선정작으로 무대에 오른 이 공연은 제목에 작품 내용을 그대로 담고 있는 〈청춘소음〉이다.

작품의 배경은 서울 외곽에 위치한 낡고 오래된 빌라. 이곳에는 10평짜리 월세방에서 상상 여행기를 쓰는 방구석 여행 작가 오원영이 살고 있다. 또 다른 주인공 한아름은 알바 3개로 생계를 유지 중인 취업준비생으로, 한아름이 오원영의 윗집으로 이사를 오면서 이들의 일상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다. 정반대의 생활 패턴 때문에 발생하는 소음이 두 사람을 갈등 상황에 몰아넣는 것이다. 15cm의 얇은 벽에 의지해 생활 소음을 견뎌야 하는 오원영과 한아름은 스트레스로 심리 상담을 받기에 이르고 급기야 서로에게 복수를 벌이기 시작한다. 하지만 두 사람의 복수극는 살벌함이라곤 없는 명랑 하이틴 드라마에 가까워서 현실적인 갈등으로 시작된 관계는 현실 문제가 사라진 청춘 로맨스로 완성된다. 애초에 작품이 의도한 게 달콤한 사랑 이야기였다면 유쾌하게 즐기면 될 터. 문제는 이 작품을 로맨틱 코미디로 보기엔 사랑의 전개가 갑작스럽고, 작품에 부여된 주요 설정들이 가볍게 소비할 수 없는 사회 문제라는 데 있다. '정 없고 답 없는 세상'을 살아가는 법에 대한 해답으로 '이해'와 '화해'를 제시하는 〈청춘소음〉의 긍정 에너지를 마냥 긍정할 수 없는 이유다.

그럼에도 〈청춘소음〉의 등장이 반가운 까닭은 창작 뮤지컬에서 마주하기 힘든 '현실'을 무대로 가져오려고 노력했다는 점이다. 뮤지컬 〈앨리스〉 역시 창작뮤지컬의 다양성 확장이라는 측면에서 작품성과는 별개로 응원을 보내고 싶은 작품이다. 〈앨리스〉의 주인공은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17세 소녀 나영. 〈앨리스〉는 인기 고전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서 모티브를 가져와 비장애인 중심의 이상한 나라로 모험을 떠나게 된 나영의 이야기를 그린다. 주 양육자인 아빠의 도움 없이 세상과 소통하는 법을 배우는 성장담 형식이다.

하지만 이 작품에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 흔히 기대하게 되는 판타지적인 볼거리가 없다. 나영이 상상하는 원더랜드를 표현한 알록달록한 무대 세트는 아동극에 가깝다. 그리고 무엇보다 의사소통이 어렵고 정서적 상호작용이 어려운 나영이 나홀로 외출에서 만난 낯선 타인과의 교류를 통해 세상에 한 발짝 다가간다는 성장 스토리는 설득력이 떨어진다. 나영이 만난 세상 사람들이 모두 하나 같이 친절한 호의를 베푸는 것 또한 지나치게 착한 동화적 발상 아닐까. 뮤지컬이 차용한 아동 소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가 담고 있는 기괴한 아이러니와 신랄한 풍자를 생각해 보면 더욱 아쉬운 지점이다.

〈앨리스〉의 착한 결말이 감동을 주기 위해서는 나영이 독립적인 존재로서 평범한 사회 일원으로 성장해 가는 과정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 자폐성 장애를 가진 주인공이 바라보는 세상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바로 지난해 자폐 스펙트럼 여성 변호사를 주인공으로 내세워 큰 반향을 일으킨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성공 요인을 곱씹어 볼 때이다.





친숙한 소재, 현대식 비틀기 〈다이스〉 〈윌리엄과 윌리엄의 윌리엄들〉

오늘날 뉴스 사회면에서 심심치 않게 등장하는 사건사고 중 하나는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층간소음' 문제다. 그런데 바로 그 '층간소음'을 다룬 뮤지컬이 등장했다. 게다가 이야기의 주인공은 남들과 같은 삶을 강요하는 사회에서 뒤쳐지지 않도록 고군분투 중인 '청춘'들. 2022 공연예술창작산실 올해의신작 선정작으로 무대에 오른 이 공연은 제목에 작품 내용을 그대로 담고 있는 〈청춘소음〉이다.

작품의 배경은 서울 외곽에 위치한 낡고 오래된 빌라. 이곳에는 10평짜리 월세방에서 상상 여행기를 쓰는 방구석 여행 작가 오원영이 살고 있다. 또 다른 주인공 한아름은 알바 3개로 생계를 유지 중인 취업준비생으로, 한아름이 오원영의 윗집으로 이사를 오면서 이들의 일상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다. 정반대의 생활 패턴 때문에 발생하는 소음이 두 사람을 갈등 상황에 몰아넣는 것이다. 15cm의 얇은 벽에 의지해 생활 소음을 견뎌야 하는 오원영과 한아름은 스트레스로 심리 상담을 받기에 이르고 급기야 서로에게 복수를 벌이기 시작한다. 하지만 두 사람의 복수극는 살벌함이라곤 없는 명랑 하이틴 드라마에 가까워서 현실적인 갈등으로 시작된 관계는 현실 문제가 사라진 청춘 로맨스로 완성된다. 애초에 작품이 의도한 게 달콤한 사랑 이야기였다면 유쾌하게 즐기면 될 터. 문제는 이 작품을 로맨틱 코미디로 보기엔 사랑의 전개가 갑작스럽고, 작품에 부여된 주요 설정들이 가볍게 소비할 수 없는 사회 문제라는 데 있다. '정 없고 답 없는 세상'을 살아가는 법에 대한 해답으로 '이해'와 '화해'를 제시하는 〈청춘소음〉의 긍정 에너지를 마냥 긍정할 수 없는 이유다.

그럼에도 〈청춘소음〉의 등장이 반가운 까닭은 창작 뮤지컬에서 마주하기 힘든 '현실'을 무대로 가져오려고 노력했다는 점이다. 뮤지컬 〈앨리스〉 역시 창작뮤지컬의 다양성 확장이라는 측면에서 작품성과는 별개로 응원을 보내고 싶은 작품이다. 〈앨리스〉의 주인공은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17세 소녀 나영. 〈앨리스〉는 인기 고전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서 모티브를 가져와 비장애인 중심의 이상한 나라로 모험을 떠나게 된 나영의 이야기를 그린다. 주 양육자인 아빠의 도움 없이 세상과 소통하는 법을 배우는 성장담 형식이다.

하지만 이 작품에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 흔히 기대하게 되는 판타지적인 볼거리가 없다. 나영이 상상하는 원더랜드를 표현한 알록달록한 무대 세트는 아동극에 가깝다. 그리고 무엇보다 의사소통이 어렵고 정서적 상호작용이 어려운 나영이 나홀로 외출에서 만난 낯선 타인과의 교류를 통해 세상에 한 발짝 다가간다는 성장 스토리는 설득력이 떨어진다. 나영이 만난 세상 사람들이 모두 하나 같이 친절한 호의를 베푸는 것 또한 지나치게 착한 동화적 발상 아닐까. 뮤지컬이 차용한 아동 소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가 담고 있는 기괴한 아이러니와 신랄한 풍자를 생각해 보면 더욱 아쉬운 지점이다.

〈앨리스〉의 착한 결말이 감동을 주기 위해서는 나영이 독립적인 존재로서 평범한 사회 일원으로 성장해 가는 과정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 자폐성 장애를 가진 주인공이 바라보는 세상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바로 지난해 자폐 스펙트럼 여성 변호사를 주인공으로 내세워 큰 반향을 일으킨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성공 요인을 곱씹어 볼 때이다.





目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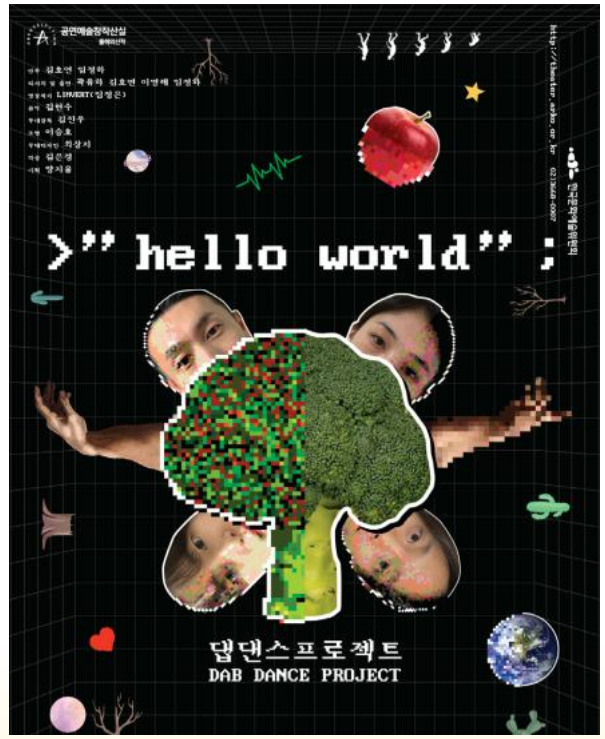


댑댄스프로젝트

> "hello world";

일시	2023년 1월 13일(금) ~ 15일(일)	**조명**	이승호
공연시간	금 오후 8시 / 토, 일 오후 4시	**무대디자인**	최상지
장소	대학로예술극장 소극장	**의상**	김은경
러닝타임	50분	**기획**	양지울
티켓	3만원		
안무	김호연, 임정하		
리서치·출연	곽유하, 김호연, 이영례, 임정하		
영상	LIMVERT (임정은)		
음악	김현수		
무대감독	김진우		

〉 “hello world”;
우리의 세상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DAB DANCE PROJECT

김호연과 임정하가 공동 대표로서 운영하고 있으며 영상 감독을 맡고 있는 영상 작가 임정은까지 총 3명으로 구성된 단체이다.

작은 호기심과 발견으로부터 발전시킨 신체의 움직임을 기본으로 다양한 예술적 요소와 융합하여 연관성, 개연성을 찾아가는 과정에서의 또 다른 이미지를 창조하는 것, 개념을 주입하고 해석하는 것이 아닌 몸의 언어를 기본으로 작품 그대로를 감상하게 하는 것에 관심을 두고 작업하고 있다.

움직임을 통해 대중과 소통하고 움직임 예술의 참된 즐거움을 나누며 움직임 창작 예술의 관습적 제작 방법에 국한되지 않는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실천하는 것을 비전으로 한다. 인간의 모든 움직임은 춤으로 풀어낼 수 있다는 생각 아래 실험적 정신을 바탕으로 ‘춤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끊임없는 질문을 던지며 몸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메시지의 전달을 시도하고 소통을 도모하는 것이 ‘댑댄스프로젝트’가 지향하는 바이다.

인터뷰

김호연, 임정하 안무가

무대와 영상 연출에서 관객이 주목해서 볼 만한 포인트를 짚어준다면?

움직임과 영상, 그리고 오브제들을 비틀고, 변형하고, 혼합하고, 해체하면서 발생되는 이미지들을 감각적으로 느껴보셨으면 합니다.

작품을 통해 관객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인가요?

저희 안에서 가지고 가는 메시지는 있지만, 관객들로 하여금 또 다른 상상과 이야기가 만들어졌으면 싶기에 정확한 메시지를 집어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작업을 보며 인간과 자연, 그리고 우리가 사는 세상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작품 제목이 독특한데 〉"hello world"; 로 정한 의도는 무엇인가요?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울 때 가장 많이 소개하는 예제.
Hello, world!를 출력하는 것이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우는 첫 번째 단계로 일종의 암묵적인 룰이 되었다.

디지털 세상에서의 인간과 자연을 주요 키워드로 하는 이번 작업에서 우리가 상상하는 작품 여정의 출발점으로 〉"hello world"; 라는 작품 제목으로 시작하고자 했고, 안녕 세상! 이라는 말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작품 창작의 주요 배경과 모티브는 무엇인가요?

우리 단체는 주로 자연과 인간에 대한 주제로 작품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주제와 예술의 사회적 가치와 선한 영향력을 생각하며 작품 활동을 하고 싶습니다.

'자연환경 오염과 인간'을 주제로 꾸준히 작업을 해왔는데, 이번 작품 안무의 주된 특징은 무엇인가요?

이번 작품에서는 4차 산업 시대에서 '디지털 세상으로 옮겨간 인간과 자연'을 상상하며 '인간은 디지털 세상 안에서 어떻게 존재할까?' 라는 단순한 질문에서 시작했습니다. 무대의 현실과 소품으로 만들어내는 가상 사이에서 '아날로그적 증강현실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화이트큐브 프로젝트

Recall: 불러오기

일시	2023년 1월 27일(금) ~ 28일(토)
공연시간	금 오후 8시 / 토 오후 3시, 7시
장소	대학로예술극장 대극장
러닝타임	60분
티켓	R석 4만원 / A석 3만원
안무·연출	정성태
움직임창작·출연	김효경, 박정휘, 신원민, 이혜연, 정성태, 주영상, 홍은지
드라마터그	조성아
무대디자인	이은규
음악감독	장일호
음향감독	이현석
무대감독	김진우
조명감독	노명준
기술감독	김경록
영상감독	신재희
의상디자인	유미진
홍보물디자인	신현아
프로듀서	임현진
프로젝트매니저	강유진
기획운영	프로젝트다리
무대제작	와스테이지
후원	Vomlab

기억은 미래를 향해 있다

〈Recall: 불러오기〉는 기억의 소환을 통해 스스로의 존재를 다시금 확인한다. 무용과 컨템포러리 서커스, 아크로바틱 등 다양한 요소들이 무대의 공간을 자유로이 가로지르며, 지나간 시간의 흔적을 넘어 새롭게 기록되는 다가올 시간의 자리를 만든다.

잘게 쪼개어지고 흩어지거나 사라져버린 기억들은 불현듯 다시 소환되곤 한다. 우리가 기억을 소환하는 것인지 기억이 우리에게 소환되는 것인지 불분명한 상태로 기억은 다양한 상황과 감정의 상태를 오고 가며 끊임없이 우리의 일상을 파고든다. 기억은 잊어버리거나, 잃어버린 게 아닌 채로 깊은 곳에 고이 모셔둔 또 다른 나의 일부다. 삶의 여러 순간들과 온갖 의식이 뒤엉킨 기억이 과거의 상황과 감각을 쉬지 않고 자극하며 때론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인식과 행동의 변화로 이어진다.

화이트큐브 프로젝트

춤, 연기, 소리, 빛, 창작 구조물, 서커스 등 여러 요소를 흡수, 변형, 재구성하여 다양하고 흥미로운 공연예술 작업을 화이트큐브 안에 담는다. '화이트큐브'는 부정적인 것을 지우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상징한다. 극장을 비롯하여 건물 옥상, 도로, 광장, 공원, 창고 등 다양한 공간에서 공연을 하며 일상적 공간들을 새롭게 느끼도록 관객의 오감을 자극하는 공연을 만든다.



인터뷰

정성태 안무·연출가

다양한 것들이 가능하다는 선언으로서의 공연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 '기억을 불러오다'라는 기초 이야기를 토대로 여러 방법들이 '기억을 불러오는' 요소로 구현되기를 바라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기존의 무용이 자주 사용할 수 있었던 구조물이나 오브제가 아닌 것들을 실험하는 과정이 유의미했다.

무대와 영상 연출에서 관객이 주목해서 볼 포인트를 짚어 준다면?

무대 미술로서의 장치가 아닌, 신체와의 관계, 안무적 표현으로서의 무대 장치가 작품의 중심에 놓인다. 무대 위의 장면과 심상이 관객들이 알고 있던, 어쩌면 알고 있었지만 잊고 있던 것들을 불러일으키기를 바란다. 트램펄린, 철골 구조물, 경사 무대는 내면의 생각으로 기억들이 순환하는 과정들을 보여주는 요소로서, 작품의 이야기를 상징적으로 전달한다. 영상은 실시간 화면과 기존에 촬영된 기억이 번갈아 사용된다. 기억을 불러일으키는 요소로서의 영상을 무대의 미학과 함께 살피며 이야기를 엮어냄으로써 관객 나름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작품을 통해 관객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인가요?

당신은 어떤 순간에 어떤 기억을 떠올리는가, 떠오르는 기억과 함께 어떤 감정이 소환되는가. 과거로부터 미래를 연결시키는 여러 생각의 고리들을 어떻게 풀어내고, 어떻게 다루어내는가. 공연 'Recall: 불러오기'는 누구나 경험했던 감각이 무대를 통해 시각, 공간으로 확장되는 경험을 제공하고자 한다.

작품 창작의 주요 배경과 모티브는 무엇인가요?

길 가다 문득 떠오르는 기억, 그리고 그 기억이 불러오는 감정과 생각에 대해 다루는 작품이다. 기억을 불러오는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었다. 리서치 단계에서 기억과 관련된 자료를 찾고 함께 읽었고, 내용을 구상하는 과정을 거쳤고, 뇌과학에 대한 이론부터 여러 종류의 감정에 대한 이해, 분석을 진행하며 작품의 아이디어를 구체화할 수 있었다.

작품의 핵심적인 오브제는 무엇입니까? 작품 속에서는 어떻게 활용되나요?

무용 공연으로써 핵심적인 오브제는 물론 몸이다. 이번 작품에서는 이 몸과 경사 무대, 철골 구조물, 트랩이 함께 활용된다. 이러한 구조물들은 컨템포러리 무용의 스코어를 확장시켰으며, 서커스와 아크로바틱의 표현 요소들에 대한 활용, 탐구로 이어졌다. 창작의 과정에서는 구조물과 몸의 관계를 서사와 연결시키며 안무의 구성, 표현 양식들을 컴포지션했다.

이번 작품에서 안무 연출의 주요 포인트는 무엇인가요?

기존의 무용 공연에서 시도해 보지 않은, 시도해 보지 못한 요소들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기 위해 고민했다. 동시대적인 공연예술로서의 무용 분야가 어떻게 확장될 수 있는지 다양한 예술의 표현과 개입을 시도했고, 작품으로서의 가능성을 실험했다.





모든 컴퍼니

On the Rock

일시	2023년 2월 3일(금) ~ 5일(일)
공연시간	금 오후 8시 / 토, 일 오후 4시
장소	대학로예술극장 대극장
러닝타임	60분
티켓	R석 3만원 / S석 2만원
안무·연출	김모든
출연진	김모든, 류지수, 문경재, 배민우, 염정연, 이소진, 이예림, 조연희
음악감독	도재명
무대디자이너	최상지
무대감독	김인성
조명디자이너	이승호
의상디자이너	최인숙
그래픽디자인	이한수
사진작가	박창현
티저영상	연두픽처스
프로듀서	신재윤



모든 컴퍼니

모든 컴퍼니는 '모든'의 사전적 의미 그대로 '전부의' 예술을 지향하면서 모든 예술을 수용하고 '융합'하겠다는 단체의 정체성을 이름에 담고 있다. 현대무용의 가능성과 확장성을 고민하며 이를 동시대 맥락에 반영한 진정성 있는 작품을 선보이고자 하며, 표현 범위를 무대공연, 거리공연(장소특정), 댄스필름, 예술교육으로 확대 및 세분화하여 관객을 만나고 있다.



인터뷰

김모든 안무·연출가

무대와 영상 연출에서 관객이 주목해서 볼 포인트를 짚어 준다면?

개인적으로 모든 것은 생각과 마음에서 비롯하여 시작된다고 믿는 편인데요, 각 인물이 넘어야 하는 관문과도 같은 과정들을 장면으로 풀어갈 예정입니다. 작품을 감상하면서 다양한 형태로 움직이는 무용수의 몸을 통해 다각도로 변하는 무대공간의 구조와 함께 주제의 의미가 엿보일 수 있는 순간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작품을 통해 관객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인가요?

어쩌면 쉽게 포기하고, 쉽게 선택하는 것에서 마주하는 현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을지도 몰라요. 한계는 없다. 누구에게나 이유와 목적은 다르고, 이야기도 같을 수 없듯이 우리는 모든 것을 넘고 극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피지컬한 몸을 통해 전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공연에서 무용수들의 움직임을 보면서 자신의 태도에 대해 되돌아볼 수 있는 고민의 기회를 전달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작품의 제목은 무엇을 상징하나요?

제목을 있는 그대로 풀이하면 암벽 위를 의미하지만, 현실의 시간과 공간에서 내가 넘어야 하는 것은 결국 나 자신으로 나의 한계에 도전하고 성취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작품 창작의 배경과 계기는 무엇인가요?

지난 몇 해 동안 전에 없던 제약과 제한을 마주하면서 주변의 장애물들이 커다란 벽처럼 다가왔어요. 그러한 압박감을 뛰어넘고자 심상을 클라이밍에 대입한 작품으로 풀어보면 좋겠다고 생각했고, 바로 다음날부터 실내 클라이밍장을 찾아 리서치를 시작했습니다. 코로나19가 시작되던 시기와 맞물리면서 리서치와 작품에 대한 고민이 이어졌지만 3년 차로 접어드는 현재에는 팬데믹에 관한 이야기보다 일상에서 부딪히는 개인의 이야기들을 담고자 했습니다.

작품의 주요 오브제는 무엇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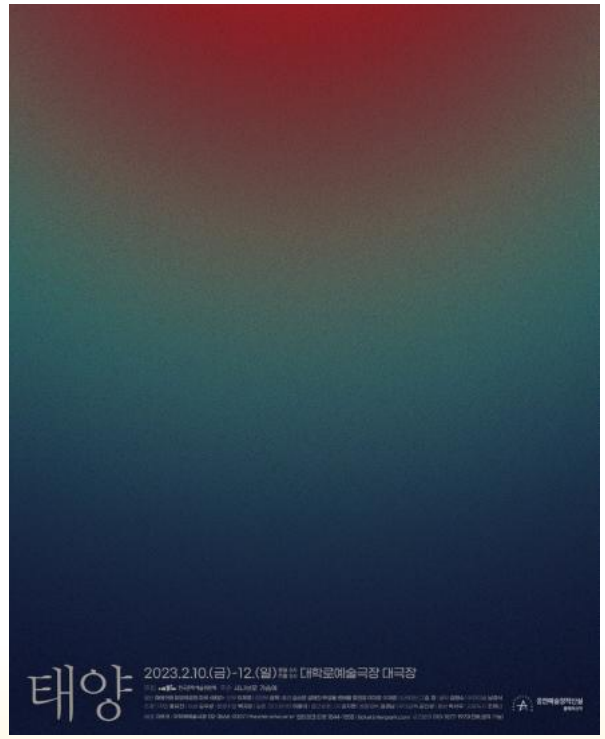
오브제는 아직 제작 중입니다. 얼마 전 무대 디자이너와 마무리 회의를 가졌는데,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물들이 공간과 장소로 다가오도록 의미를 부여해 제작하자고 얘기를 나눴어요. 거대한 벽면보다는 세밀하게 한 공간을 들여다보는 콘셉트로 세트 구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리서치 과정에서 찾아낸 클라이밍 무브먼트의 규칙성을 활용해, 각 장면마다 인물들의 상황과 상태의 변화들을 오르고 버티는 몸의 이미지로 나타내려고 합니다.



시나브로 가슴에

태양

일시	2023년 2월 10일(금) ~ 12일(일)
공연시간	금 오후 8시 / 토, 일 오후 3시
장소	대학로예술극장 대극장
러닝타임	60분
티켓	3만원
원작희곡	마에카와 토모히로 作 '태양'
안무	이재영
조안무	권혁
출연진	김소연, 김혜진, 변혜림, 박성율, 양진영, 이대호, 이재영
음악	김현수
무대미술	남경식
조명디자인	홍유진
무대감독	김인성
음향감독	김경남
의상	김우성
분장	백지영
일본 코디네이터	이홍이
드라마터그	김정
접근성 매니저	권지현
홍보	박서우
프로듀서	조하나



태양, 가장 먼 곳의 가장 가까운 이야기

안무가 이재영은 일본희곡 〈태양〉을 모티브로, 인류의 근본적인 생명력에 주목하고자 한다. 태양 아래 모든 생명체가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가며, 그 안에서 계속해서 에너지를 발현하며 살아간다. 서로 같아지려고 하고, 다르게 살아가려 하기도 하는 우리의 삶은 불명확하며, 규칙적이지 않고 아이러니함의 연속이다.

시나브로 가슴에가 선보일 신작 〈태양〉은 그것이 우리의 생명력 혹은 에너지라는 것에 주목한다. 태양 아래 살아가는 인간의 생명력. 지금, 여기, 우리 인간에 대하여...

시나브로 가슴에

시나브로 가슴에(COMPANY SIGA)는 "조금씩 조금씩" 춤을 통해 우리 삶과 사람에 대해 이야기하고 공감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소속 단체 구성원들의 다양한 움직임과 사고를 하나의 것으로 만들어가는 공동작업 형태의 작업 방식을 추구합니다. 또한 다양한 장르의 아티스트들과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작품마다 새로운 시도와 모험에 도전하며 "조금씩 조금씩" 춤의 영역을 확장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시나브로 가슴에의 작업은 다소 느리고, 단순하며, 화려하지 않습니다. 미련스러운 반복과 수행을 거듭하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속도(SPEED)', '기본(BASIC)', '몸(BODY)'를 단체 작업의 큰 키워드로 두고 인간다운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자연스러운 흐름과 속도를 만들어내는 집단을 지향합니다. 현시대에 점점 쓸모를 잃어가는 비효율적인 것들의 가치를 찾아가는 것이 우리가 하는 예술적 의미를 사회에 전달하는 방법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이재영 안무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들의 관계를 보여주는 장면들을 무용의 언어로 그려낼 것이다. 대사로 구체적인 세계관을 전달했던 연극과는 대비되는 장르적 특성을 구상하고 있다.

관객들이 주목해서 볼 만한 장면을 소개해준다면?

어떠한 특정 부분을 짚어서 이야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꼭 알았으면 하는 부분이라면 작품의 시작이다. 공연의 시작은 관객이 그 세계로 들어가는 첫 입구이기 때문이다. 이번 공연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희곡에서 제시한 세계관을 사전에 인지하고 보는 것도 관람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

작품을 통해 관객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인가요?

우리는 서로 다른 사람이며 서로 다른 가치관, 이념, 종교 등 많은 것들로 인해 갈라지지만 서로 존중받고 인정받아야 하는 생명이다. 살아있다는 것만큼 대단한 가치가 있을까라는 질문을 하며 작업을 진행하였다.

우리는 각자의 환경 속에서 어떠한 편견을 학습하고, 그 편견은 쉽게 깨뜨릴 수 없는 것들이 되고는 한다. 이것은 사회적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보이지 않는 벽을 만들어 더 다가갈 수 없는 벽을 만드는 것만 같다

우리 스스로가 본연의 모습, 생명의 가치처럼 근본적인 것들을 당연하고 익숙한 것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한 번쯤 생각하고 인지하는 시간을 갖기를 바라며 작업을 진행했다.

작품의 창작 배경과 계기는 무엇인가요?

일본의 희곡 작가 '마에카와 도모히로'의 원작인 〈태양〉은 바이러스로 인해 신인류의 탄생과 그로 인해 나누어진 신인류와 구인류의 갈등, 서로 간의 증오와 이해에 대한 이야기다.
국내에서는 지난 21년 10월 '김정' 연출의 연극 〈태양〉이 두산아트센터에서 초연된 바 있다. 그 작품에서 안무가 이재영은 움직임 안무를 맡아서 작업하였고, 작품에서 받았던 영감을 발전시켜 무용 작업으로 새롭게 제작하고자 한다.

원작에서는 다양한 캐릭터들 사이에서 사건이 진행되지만 시나브로 가슴에와 이재영에 새롭게 해석된 무용 〈태양〉에서는 원작 중 두 캐릭터, '카네다 요지' 와 '이쿠타 소이치의 이야기를 중점으로 상반된 세계관을 보이고자 한다.

원작 희곡을 무용 장르로 무대화함에 있어 특별히 고려한 요소는?

가장 크게 고려한 것은 희곡이 가지고 있는 연극적 서사를 그대로 전달하지 않는 것이다. 텍스트 기반의 서사를 전달하기보다는 세밀하게 설계된 신체언어와 함축된 무대미술을 통해 희곡 〈태양〉이 전달하려 했던 생명과 인간에 대하여 좀 더 열린 해석을 제시하고자 한다.

시나브로 가슴에의 〈태양〉은 다양한 인물들을 다채롭게 보여주기보다는 두 명의 인물에 주목하여 이들이 겪어온 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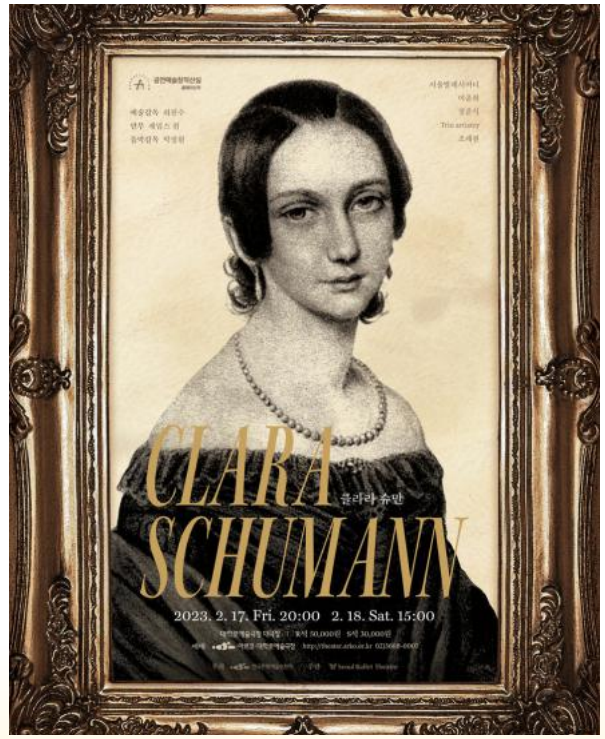


(사)서울발레시어터

클라라 슈만

일시	2023년 2월 17일(금) ~ 18일(토)
공연시간	금 오후 8시 / 토 오후 3시
장소	대학로예술극장 대극장
러닝타임	70분
티켓	R석 5만원 / S석 3만원
예술감독	최진수
안무	제임스 전
작가	기나리
음악감독	박정원
무대디자인	이태섭
조명디자인	김태근
지도위원	전선영
제작감독	여훈
무대감독	송주관
의상디자인	솔패션
기획	노민혁, 백은서
출연진	이윤희, 정운식, 황경호, 석지우, 김향림, 박경희, 오동구 카탄바타르, 정다은, 이진기, 고희정, 변혜영, 김동철, 장지현, 박시은, 양선아, 천예원, 이수현, Trio ARTISTRY(김고운, 변예진, 변새봄), 조재현





서울발레시어터 명예 예술감독 제임스 전 2023년 신작

제임스 전은 클라라 슈만에서 여성의 강인함을 보았다.

8명의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로서, 로베르트 슈만이 병약해져 죽어가는 상황에서도 끝까지 그를 지키는 연주자이자, 동반자로서의 모습.

한편, 자신을 사랑하는 요하네스 브람스에 대한 갈등을 새로운 움직임으로 선보이고자 한다.

(사)서울발레시어터

올해로 27주년을 맞이한 서울발레시어터는 '대한민국 발레의 창작과 대중화'를 모토로 1995년 창단되어 초대 김인희 단장과 1대 예술감독 로이 토비아스, 2대 예술감독 겸 상임안무가 제임스 전을 거치며 현재까지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민간 프로페셔널 발레단이다.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젊은 열정과 실험정신으로 고전발레의 전통을 살리면서도, 모던 및 컨템퍼러리 발레까지 폭넓은 안무를 활용한 독창적인 예술작품을 선보이며 대한민국 문화예술계의 트렌드 리더로 인정받아 왔다. 한국 최초로 창작 레퍼토리를 해외에 역수출한 쾌거를 이뤄내며 대한민국 창작발레의 자존심을 지켜오고 있다.

인터뷰

제임스 전 안무가

작품의 창작 배경과 계기는 무엇인가요?

〈클라라 슈만〉은 여러 형태로 공연되고 있지만, 국내에서 세 인물의 관계를 주제로 한 공연은 오페라, 뮤지컬 장르에 한한다. 이는 한국 창작발레계의 역사를 썼던, 안무가 제임스 전의 안무 열정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다. 더하여 서울발레시어터 최진수 단장의 신작에 대한 열망을 계기로 해당 작품을 창작하게 되었다.

실존 인물 클라라 슈만의 스토리를 발레 작품으로 재창작 했는데요. 새롭게 발레 장르로 재창작하는 과정에서 재해석한 부분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음악 장르에서 공연된 '클라라 슈만'은 주로 삼각관계를 다룬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로베르트 슈만'의 탄생부터 '클라라 슈만'과의 결혼, 그리고 '요하네스 브람스'를 제자로 삼으며 벌어지는 상황들과 감정의 연속이라는 입체적 구성으로 '무용'을 비롯한 '클래식 음악' 장르의 신규 관객층까지 개발하고자 한다.

관객들은 이번 공연을 통해 '클라라 슈만'과 '로베르트 슈만', '요하네스 브람스' 세 사람의 인간적인 면모와 음악으로 연결되어 서로 존중하는 관계로서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음악가인 세 캐릭터를 발레로 표현하기 위해 특별히 신경 쓴 연출 포인트는?

과장되지 않은 동작을 기본으로 하면서도, 몸으로 표현할 수 없는 부분에서는 소리를 지르는 등 감정을 극대화하여 표현할 수 있도록 연출하였다.

또한 무대 위의 음악가를 피트에만 고정되어 있는 단순 연주의 형태에서 탈피하고자 했다. 〈클라라 슈만〉은 피아노 4중주(피아노, 첼로, 바이올린, 비올라)의 자유로운 움직임을 통해 연주자와 무용수의 상호 밀접한 교감을 이뤄내고, 이는 극 중 캐릭터가 적극적으로 표현되는 하나의 장치가 될 것이다.

무대와 영상, 의상에서 관객이 주목해서 볼 포인트를 짚어 준다면?

무대장치와 조명을 통한 시각적 효과에서 화려한 색채와 기교를 생략하며 캐릭터의 성향을 깨끗하게 표현하고자 했다. 이러한 상징적인 무대장치, 미니멀한 의상과 영상은 무용수의 '연기'와 '춤' 그리고 '음악'에 집중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될 것이다.

작품을 통해 관객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인가요?

세 음악가의 아름다운 음악을 알리고 이를 무용으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지 보여주고자 한다.

현재 곳곳의 많은 이들이 다양한 이유로 힘든 시기를 버텨내고 있다. 이번 작품을 통해 단순히 춤과 음악이 좋다는 감정에서 나아가 객석에서만큼이라도 행복감을 얻고 돌아갈 수 있기를 소망한다.











노네임소수

WHITE

일시	2023년 2월 25일(토) ~ 26일(일)	**의상**	최인숙
공연시간	토 오후 4시 / 일 오후 4시	**기획**	김현진
장소	대학로예술극장 대극장		
러닝타임	약 80분		
티켓	R석 4만원 / S석 3만원		
안무·연출	최영현		
출연진	이대호, 박정휘, 이학, 서보권, 송승욱, 정종웅, 조준홍, 전보람, 이서현		
음악	김한길		
무대	소병호		
조명	김철희		

“가장 깊은 감정은 항상 침묵 속에 있다”

- Marianne Moore

WHITE는 신체와 빛 그리고 오브제와의 결합으로 나타나는 충돌과 대립을 통한 강렬한 시각적 이미지를 중점으로 접근한 작품이다. 기존 무대의 조명 위치에서 벗어나 빛의 계획적인 각도와 거리 조작을 통해 공간 안에 존재하는 피사체의 형태를 확장시키고 극대화해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형태를 제시함과 동시에 오브제와 밀접한 관계를 가짐으로써 시각적인 형태를 뛰어넘어 촉각적인 영역으로, 한정되지 않는 경계선상의 미묘한 넘나듦을 시도한 작품이다.

노네임소수

노네임소수(NONAME SOSU)는 2014년에 만들어진 프로젝트 그룹으로 신체와 표현의 경계에서 몸의 구조가 가지는 기능과 본질에 대한 자신만의 언어를 구축하기 위해 실험하고 탐구하는 단체이다.

인터뷰

최영현 안무가

작품의 창작 배경과 모티브는 무엇인가요?

본 작품의 목표는 인간의 극대화된 감정을 시각화하는 것입니다. 감정은 어떠한 형태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누구나 알고 있고 느낄 수 있지만, 그 어느 누구도 실체를 목격한 사람은 없습니다. 또한 구체적인 느낌은 말할 수 있지만, 구체적인 형태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비형태적인 감정들은 문학이나 회화에서 '색'에 비유되어 표현되기도 합니다. 색으로 비유된 감정들은 완벽하게 설명되지 않지만 색을 통해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명확하게 설명될 수 없는 추상적인 모호함보다는 어떤 특정한 감정들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색의 깊이를 가장 잘 표현한 화가 가운데 손꼽히는 작가는 단연 '마크 로스코(Mark Rothko)'입니다. 그가 표현하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깊은 색채가 가지는 강렬함, 형언할 수 없이 밀려드는 감정의 소용돌이는 저에게 인간의 근본적인 감정이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계기를 제공했습니다. 저 또한 그러한 격렬한 감흥을 일으키는 것이 무엇인지 그 해답을 신체를 통해서 찾고자 했습니다. 이러한 궁금증과 호기심 그리고 열망이 본 작품의 배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번 작품의 차별화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WHITE는 2020년 '공연예술창작산실 올해의신작' BLACK의 후속작입니다. BLACK과 동일하게 인간의 근원적인 감정에 대한 이야기를 전달합니다. 이전 작품에서는 감정의 극대화된 상태를 집중해서 표현했다면, 이번 작품에서는 감정의 시작과 끝을 다루고자 합니다. 즉, 감정의 생성과 소멸 과정에서 우리의 몸은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무엇을, 어떻게, 왜 끊임없이 지속하느냐입니다. 멈출 수도 없고, 멈춰서도 안 되는 이러한 행위들을 통해 최종적으로 도착하게 될 소멸이 BLACK과의 차별화를 두기 위한 접근이며, 가장 염두에 둔 부분입니다.

관객들이 주목해서 보면 좋을 만한 작품 속 핵심 장면을 소개한다면?

핵심 장면은 무엇보다 감정의 소멸 과정을 담은 장면입니다.

어떠한 감정이 팽창하고 수축하는 과정은 우리의 삶에서 아주 당연한 일입니다. 삶이라는 일련의 과정에서 무한 반복되는 것, 벗어날 수 없는 굴레와 같은 것이 바로 감정이라 생각합니다. 감정은 우리를 미친 듯이 요동치게 만드는 생동(生動)과 관계를 가질 수 있지만, 이와 정반대로 우리를 통제 불가능한 상태로 우리를 잠식시킬 수 있습니다.

감정을 이분법적으로 안정과 불안정으로 나눈다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안정을 선택할 것입니다. 어떤 감정이든, 그것이 긍정적이든 혹은 부정적이든, 그 상태가 꿈틀거릴 때는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감정은 몸을 작용시키는 직접적인 요인이 될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즉각적인 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본 장면에서 중심을 이루는 것은 그 순간 또는 그 상태에 매몰되지 않기 위해 우리는 어떤 방식을 취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여기에는 제어된 행위만을 포함하지는 않습니다. 제어되지 않은 무의식적인 행동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인간의 본성이 여과 없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즉, 평온이라는 상태에 이르기 위한 행위는 일반화할 수 없으며, 어떤 부분에서는 해소의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더 적합하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감정의 소멸은 불가피하게 인간의 본 모습이 투영될 수밖에 없으며, 특정 누군가로 치부되는 것이 아닌 바로 나 자신과 마주하는 장면이라 설명할 수 있습니다.

무대와 영상, 의상에서 관객이 주목해서 볼 포인트를 짚어 준다면?

개인적으로 빛과 신체 그리고 오브제의 유기적인 결합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장면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특히 오브제로 사용되는 비닐은 이전 작품 BLACK과 동일한 소재로 제작되지만, 그와는 다른 물리적인 힘의 조건을 갖습니다. 그 조건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는 힘의 작용, 둘째는 속도의 작용입니다.
이 두 가지의 물리적 자극이 오브제와 충돌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은 실제와는 아주 다르게 작동됩니다. 이때 나타나는 현상은 시간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비현실적인 미묘한 시간의 뒤틀림으로 작용됩니다. 이러한 현상은 영화에서 어렵지 않게 관찰할 수 있는 슬로 모션과 유사합니다. 그러나 영상의 프레임 안에서 연출되는 효과와는 다르게 실제 공간에서 나타나는 물체의 작동은 인위적이지 않은 경이로움과 비슷한 감흥을 일으킵니다.

그 현상은 잔잔한 수면 위에 일어나는 물결의 파동과 비슷하고, 파동의 크기가 극대화됐을 때는 파도처럼 밀려들어오고 밀려나가는 것처럼 비칩니다. 또한 빛이 오브제의 요철과 충돌할 때는 오로라의 반짝거리는 현상처럼 관찰되고, 어떤 순간에는 중력의 영향권에서 벗어난 것 같은 비현실적인 경험을 선사합니다. 이러한 미묘한 힘의 작용들이 실제 공간 안에서 낯설면서도 아름답게, 그리고 이질적인 충돌 없이 표현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작품을 통해 관객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인가요?

삶은 순간과 찰나의 파편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매순간 그 파편의 날카로움으로 생채기가 나고 다시 살이 차오르는 과정의 연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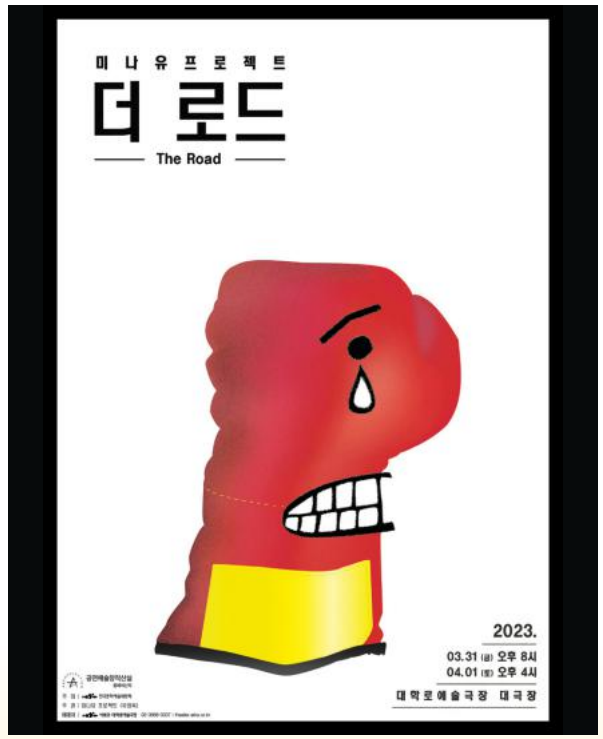




미나유(유정옥)

THE ROAD

일시	2023년 3월 31일(금) ~ 4월 1일(토)	**조명**	김재억
공연시간	금 오후 8시 / 토 오후 4시	**의상**	최인숙
장소	대학로예술극장 대극장	**기획**	김민영
러닝타임	60분	**행정**	유명이
티켓	4만원		
안무·연출	미나유(유정옥)		
출연진	김성훈, 김지형, 신영준, 최수진, 이병진, 임종경, 김수인, 정건		
음악	강태원		
무대	이도엽		
영상	임주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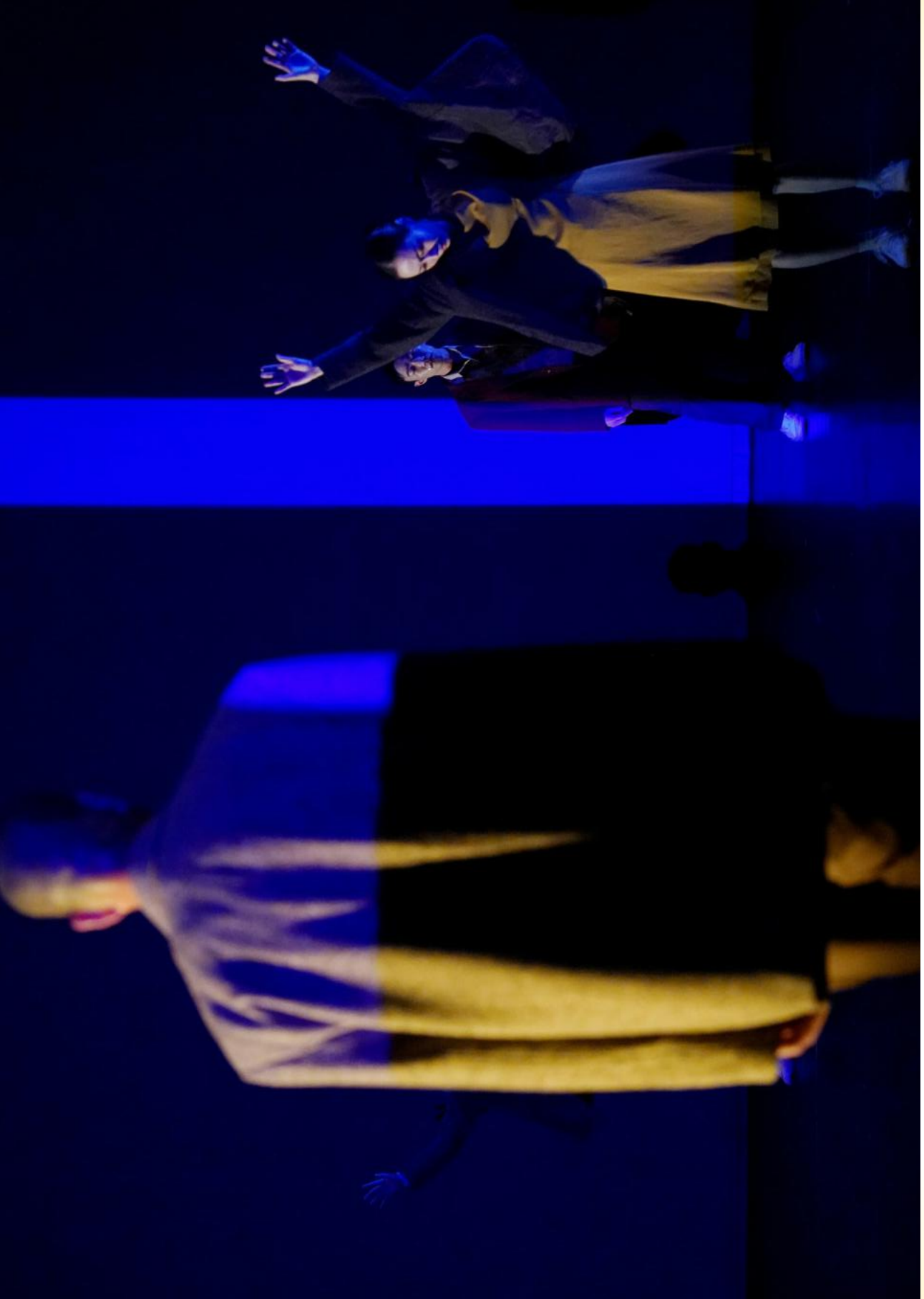
급변하는 세상 속 우리는 어디로 향해야 하는가

작품 〈THE ROAD〉는 예측 불가능하게 급변하는 세상 속 우리가 선택의 기로에 섰다는 현실을 보여주고자 한다. -미나유(유정옥)

미나유(유정옥)

안무자 미나유(유정옥)는 예술에서나 일상에서나 '오늘의 삶을 사색하고 '사람에 대한 관심'을 멈추지 않는 예술가다.

2017년 서울문화재단 예술작품지원작 〈구토〉는 2018년 한국춤비평가상 작품상을 수상하였고, 2015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연예술창작산실 지원사업의 우수작품으로 선정된 작품 〈2015〉는 2016년 제3회 이데일리 문화대상 무용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하였다. 작품을 통해 안무자 미나유(유정옥)는 시대 흐름에 맞는 타 장르와의 융·복합 공연예술의 시도를 꾸준히 해오고 있다.



인터뷰

미나유(유정옥) 안무가

무대와 영상 연출에 특별히 신경 쓴 포인트는?

기억해야 함을 기억하기.

중요한 건 무엇을 보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보느냐.

시각적 자극을 유도하여 무용수들의 움직임이 갖는 의미를 더 효과적으로 전달하고자 하였다.

작품을 통해 관객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인가요?

자신의 삶이 곧 메시지.
군중 속에서 섬을 찾는 일.

작품의 제목 THE ROAD는 무엇을 상징하나요?

why가 있는 곳에 길이 있을 것이다.
무엇이 꿈이고 무엇이 현실일까.
저만의 방법으로 재해석해 보는 마음의 풍경 그리고 자연의 풍경.

작품의 모티브가 됐거나 참고했던 자료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정해진 바가 없는 것이 진실이다.
아무것도 남아 있지 않은 것 같은 절망의 순간이 바로 크레센도의 시작점이다.

이 문구들이 이번 작품의 모티브가 되었다.

작품의 주요 컨셉과 주목해서 볼 만한 포인트를 짚어준다면?

생존, 다가오는 위협으로부터 걸어야 할지 숨어야 할지.

다시 길 위로
새로운 질문을 위해서 다시, 다시 길 위로…

개성이 뚜렷한 소박하지만 잘 차려진 만찬 같은 공연

김길용(와이즈발레단 대표)

길고 긴 팬데믹 시대의 어둠을 뚫고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창작산실을 통해 발표된 7개의 작품은 1월 13일 댑댄스 프로젝트의 〈"hello world";〉 를 시작으로 4월 1일 미나유 안무의 〈The Raod〉를 끝으로 대학로 예술극장에서 막을 내렸다. 긴 시간 우리의 답답함을 대변하듯 7개의 작품은 판도라의 상자처럼 우리의 상상력을 자극하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젊은 안무가들의 깊이 있는 상상력은 무대의 다양한 오브제와 함께 그들만의 특별한 이미지를 전달했고 두 명의 거장 안무가의 작품은 관객들의 눈길을 사로잡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댑댄스 프로젝트의 〈"hello world";〉는 타임머신을 탄듯한 영상효과와 무대로 관객들의 새로운 상상의 세계로 인도했다. 융복합, 가상현실, 태블릿을 통한 이미지 전달은 지구가 처한 환경과 생태계에 무한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 자연과 인간과의 관계 그리고 환경오염을 주제로 예술적인 상상력이 춤과 함께 다양한 오브제로 시각화된 작품이었다.

화이트큐브프로젝트의 〈Recall: 불러오기〉는 무대 밑으로 감춰진 거대한 트램펄린과 정육면체의 철골구조물, 높은 경사로 만든 무대는 안무가의 치밀한 연출을 볼 수 있는 무대였다. 안무가는 일괄된 방향으로 관객의 기억 소환을 친절하게 풀어내고 있다. 그 기억 소환은 무용수들의 내레이션과 3개의 세트를 통하여 다양한 모습으로 표현되었으며 그 위를 자유롭게 움직이는 무용수들을 통해 폭을 넓혔다.

모든컴퍼니의 〈On the Rock〉 클라이밍 스포츠의 소재가 도입되어 안무된 작품으로 암벽을 오르거나 버티는 과정을 통해 완벽하게 찰나의 무용수들의 움직임을 해석했다. 위드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작품 속에서 신체의 한계점과 함께 잘 그려내고 있다.

세트에 걸려진 의자와 책상, 시계 등은 암벽이라는 공간 속에 우리의 모습을 같이 그리고 있다. 그 위에 넘어질 듯 균형을 잡고 상대방을 의지한체 만들어지는 움직임들은 현재의 우리의 모습처럼 시대를 투영하고 있다.

시나브로가슴에 〈태양〉은 태양 아래 살아가는 생명력과 에너지를 시간의 흐름 속에 이야기하고 있다.

무대 중간에 보여지는 조명기기들로 이루어진 원형의 구조물은 태양을 그 속에 가진 생명의 에너지를 잘 표현하였고 무용수들의 움직임은 그 에너지 아래 소멸되고 피어나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

제임스전의 안무의 〈클라라슈만〉은 천재 예술가(슈만, 클라라, 브람스) 세 명의 사랑과 갈등을 그린 작품으로 오랜만에 만나는 거장 안무가의 작품이었다. 오케스트라 피트가 아닌 무대 위에 배치된 피아노 4중주는 발레와 어우러진 무대연출을 선보였으며, 라이브 연주는 관객의 귀를 즐겁게 하는 역할까지 담당하여 새로운 연출을 만들어냈다.

세 인물이 풀어낸 감정의 선들은 사랑과 갈등의 복잡한 심리를 잘 그려냈고 서로 다른 감정들을 표현하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특히 마지막 엔딩 장면은 주인공의 마음을 대변하듯 잘 그려진 수작이었다.

노네임소수의 〈WHITE〉는 빛과 오브제 그리고 신체의 움직임이 잘 결합하여 강렬한 이미지를 만들어냈다. 오브제와 세트가 주는 인상도 강렬했지만 무용수의 표정부터 머리부터 발끝까지 품어내는 에너지에 적절히 녹아 하나의 거대한 감정의 흐름을 선물했다. 보이지 않는 극대화된 인간의 감정을 시각화했다는 것도 관객에게 새로운 상상력을 선물하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미나유 안무의 〈The Raod〉는 자연이 인간에게 던지는 메시지였다. 인간의 이기심이 만들어낸 팬데믹 시대를 통해 자연은 우리에게 많은 질문을 하고 있다. 〈The Raod〉는 기로에선 우리의 현실을 보여주며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가야 할지 우리의 선택을 기다린다. 미나유 안무가는 간결하면서도 세련된 안무와 연출로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을 작품 속에 담고 있다.

이번 발표된 일곱 작품은 개성이 뚜렷한 소박하지만잘 차려진 만찬 같은 공연이었다.

몇 가지 특징을 꼽자면 첫 번째로 무대 세트와 오브제 그리고 조명이 잘 어우러지는 작품들이 각각의 개성을 잘 드러내며 조화를 이루었다는 점이다. 이는 안무가의 치밀한 사고와 상상이 보여지는 공연이었다. 조명과 오브제는 안무속에 잘 녹아 작품의 커다란 이미지를 만들어냈다.

두 번째는 팬데믹 시대의 우리 현실을 잘 그려낸 작품들이 많이 보인 점이다.

covid19로 인해 인류가 처한 위급한 상황은 결코 쉽게 치부되며 소홀히 생각해도 안될 문제이다. 안무가들은 우리가 처한 이러한 위급한 상황에 수많은 질문들을 던졌다.

깊이있는 사고의 이미지를 관객들에게 충분히 무대에서 보여주는 작품들이 탄생되었다.

세 번째는 한국의 무용 생태계에서 보기 힘든 거장 안무가 두 명(제임스 전, 미나유) 의 작품을 볼 수 있었음에 큰 의미가 있다. 한국에서 안무가로 살아남는 것은 바늘구멍에 낙타가 통과하는 것처럼 정말 어려운 현실이다. 그럼에도 이 두 명의 안무가가 보여준 무대는 후배 안무가들에게 큰 자극제가 되었으리라 여겨진다. 반면, 40-50대 중견 안무가들의 작품이 없어 안타까웠다. 어쩌면 허리 세대의 중견 안무가들이 활발히 활동할 시기임에도 한 편도 볼 수 없었다는 것은 큰 문제일 수 있다. 중견 안무가들이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 되어지기를 소망한다.



2022 공연예술창작산실 올해의신작 무용 비평

김명현(무용평론가)

2022년 창작산실 올해의신작에 선정된 총7편은 전반적으로 기술적인 면에서 완성도가 높았다. 미디어 아트, 클라이밍 스포츠, 아크로바틱 서커스 등의 타 장르로부터 형식적 소재를 가져오는 시도를 하는 등 퍼포먼스의 수행력에 있어서 난이도를 높이고 개성을 드러냈다. 그러나 주제의식의 심화나 내러티브를 구성하는 측면에서는 여전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또한 젊은 여성창작자와 한국춤에 기반한 작업이 없어 이에 대한 성찰을 과제로 남겼다.

댑댄스프로젝트의 〈〉"hello world";)는 디지털 기술이 만들어내는 신세계를 (천지)창조의 관점에서 탐색하는 작업이다. 무대 바닥 전체를 구획화하여 디스플레이 스크린을 깔고, 크고 작은 이동식 디스플레이를 배치하여 인류의 역사를 비연대기적으로 따라간다. 브로컬리, 사과, 뱀, 하트 등 주요 이미지가 반복해서 등장하고, 미켈란젤로의 그림 〈천지창조〉의 손가락 만남 등 인류사에 있어 중요한 제스처가 여러 장면에서 변주된다. 그리고 댑댄스프로젝트 특유의 유머가 가미된 출연자들의 귀여운 카툰 캐릭터까지 재기발랄한 아이디어가 무대를 화려하게 수놓는다.

그러나 자연과 인간문명의 공존이라는 거대한 화두를 들고 셀 수 없이 많은 이미지를 다양한 크기의 디스플레이에서 반복시키는 시뮬라크르의 세계에서 어떤 창조적 세계관을 드러내지는 못했다. 또한 댑댄스프로젝트가 사랑하는 수많은 오브제들은 퍼포머들의 연기를 도와주기보다는 압도했고 그로인해 퍼포먼스는 오브제에 종속된 느낌이었다. 그러나 임정하의 논리적 접근과 김호연의 유머, 임정은의 미디어 아트는 댑댄스프로젝트가 한층 다채로운 색깔을 드러낼 것이란 기대를 갖게 한다.

모든컴퍼니의 〈On the Rock〉은 '오르거나 버티거나'를 슬로건으로 하여 개개인이 극복해 나아가야하는 장벽과 극복의지를 형상화한 작품이다. 가파른 벽에 달린 작은 홀드를 의지처로 삼아 극한의 신체적 수행력을 통해 가파를 벽을 기어오르는 클라이밍 스포츠에서 움직임 소재를 가져왔다. 작은 홀드 대신에 의자와 책상, 시계 같은 일상의 사물이 달린 벽을 세워두고 그 아래에서 장애물과 위험을 마주하고, 그것을 극복해가는 과정을 흥미롭게 전개했다.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은 김모든과 문경재의 듀엣이었다. 하체의 단단한 힘을 바탕으로 상체의 균형감을 이용하여 서로의 힘을 대립시키거나 이완시키거나 밀고 당기고 넘기면서 몸 중심부분의 움직임 원리를 구조적으로 변주한 장면은 올해 출품된 7작품 중 움직임적으로 가장 의미있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내러티브를 의도한 장면들이 대체로 너무 식상한 연출이어서 작품의 매력을 반감시켰다. 클라이밍 월의 크기에 비하여 사물들이 너무 컸고, 퍼포먼스도 평면적으로 펼쳐져 클라이밍 스포츠의 수직성이 가진 긴장감을 담아내지 못했다. 그러나 김모든 안무가가 움직임 리서치와 동작구성에 있어 한층 성숙했음을 각인시켜 주었다.

화이트큐브 프로젝트의 〈Recall: 불러오기〉는 인간의 기억과 그것이 소환되는 뇌과학적 기제를 서커스, 아크로바틱, 치어 리딩의 움직임 언어를 빌려 스펙터클하게 보여준 무대였다. 두 파트로 나뉜 구성에서 첫 번째 파트는 (비)자발적으로 소환되는 기억의 매커니즘에 그에 대한 반응을 트램펄린을 이용하여 효과적으로 연출했다. 무대의 한편에 뚫린 거대한 구멍으로부터 튕겨져 올라오는 사람들과 그들이 서로 얽히고 설키며 관계하는 모습을 통해 기억의 다면성을 그려냈다. 두 번째 파트에서는 두뇌의 내부에서 작동하는 기억의 생리적 작용(?)을 정글짐 같은 그리드 구조물과 급한 경사면을 가진 구조물을 통해 형상화했다. 그리드 구조물을 타고 오르내리는 장면은 기억이 조합되고 저장되고 다시 소환되는 복잡한 매커니즘을, 경사면 구조물에서 흘러내리는 장면은 기억이 쉼없이 운동한다는 것을 연출한 듯했다. 퍼포머들의 퍼포먼스 위에 별자리와 컴퓨터 회로를 연상시키는 영상을 더하여 뉴런과 시냅스의 활동을 은유하는 듯 화려한 스펙터클을 만들어냈다.

신체 활동을 보조하는 기구를 숨기거나, 후경화하는 방식으로 내러티브적 연출을 강화한 것은 올바른 선택이었으나, 움직임을 안무함에 있어 서커스 등으로부터의 형태적 요소만 차용하고 유연성, 민첩성, 이질성, 통제력 등 극한의 신체성 자체로부터 미적 감각을 이끌어내진 못해 아쉬웠다.

시나브로가슴에의 〈태양〉은 마에카와 토모히로의 소설 〈태양〉을 기반으로 바이러스에 의해 유전자 변이가 일어난 신인류와 구인류의 대립을 통해 인류의 생명력을 그려내는 작업이다. 조명기구를 둥글게 연결하여 무대중앙에 설치한 거대한 조형물이 태양, 즉 시간을 상징하며 밀물과 썰물 같은 흐름의 리드미컬한 움직임 구성으로 이미지텔링에 충실한 작업이었다. 암전에 가까운 상태에서 13분간이나 정적을 유지하며 관객을 시청각적으로 긴장상태에 놓아둔 인트로는 인상적이었다. 조명기가 점등하는 위치의 변화로 시간의 흐름을 알리면서 인류의 새로운 시간을 그렸으나 선명하게 읽히진 않았다.

최근 시나브로가슴에의 작업은 지루할 정도로 반복되는 움직임 속에서 점진적으로 증폭되는 에너지의 폭발이라는 특징이 약화되면서 움직임 시퀀스를 보다 복잡하게 가져가는 안무적 변화를 선보이고 있다. 이재영의 안무는 시퀀스를 구성하는 방식- 특정 신체부위의 사용, 동작의 높낮이, 접촉/비접촉, 역동, 리듬감 등- 이 복잡해지면서 에너지 폭발 대신 조형적 미의 추구로 발전하는 듯하다. 그러나 이것이 시나브로가슴에의 새로운 형식적 특징이라고 말하기엔 아직 부족해 보인다. 그래서 무대는 선명함 대신 답답함이 좀 더 강했다. 여느 때와 같이 많은 훈련량을 증명하는 퍼포먼스는 안무의 리듬을 잘 소화했으나 이미지텔링에 치우진 안무에서 '생명력'을 읽어내기엔 조금 부족했다.

서울발레시어터의 〈클라라 슈만〉은 민간 직업 발레단이 축적해온 기술적 역량과 효율적 연출을 압축해서 보여준 무대였다. 유명한 음악가들의 일생을 다룬 드라마를 실내악 콘서트와 재즈발레가 결합한 형식으로 만든 것은 신선한 시도였다. 여기에 더해 슈만과 브람스의 음악을 듬뿍 감상할 수 있어서 음악과 발레의 조합은 언제나 대중적 성공을 보장한다는 것을 증명했다. 간결한 선을 모티프로 한 무대 세트와 테이블 만으로 다양한 상황을 만들어내 효율적으로 연출했다.

노련한 안무가 제임스 전의 안무는 빠르면서 격렬했고 발레에서는 익숙하지 않은 움직임들로 구성되어 흥미로웠지만 내러티브와의 조화는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로버트 슈만, 클라라 슈만, 브람스, 세 사람의 관계와 일생은 각각의 캐릭터와 심리가 그려지지 않은 채 스토리만 평면적으로 전개되어 아쉬움이 남았다. 그런 스토리텔링적 평면성을 극복한 것은 주역 무용수들의 열연이었다.

노네임 소수의 〈White〉는 전작인 〈Black〉의 속편이다. 극장 무대의 시각성에 관심이 깊은 최영현은 이번에도 빛을 조작하여 몸을 왜곡시키고 전시함으로써 감정이라는 추상적 존재를 시각화하고 빛이 만들어낸 공간의 밀도와 오브제와의 관계 속에서 감정의 매커니즘을 그려냈다. 빛을 표현의 도구가 아닌 안무적 장치로 활용하고, 형광등, 아크릴 패널, 스치로폼 조형물, 비닐만을 사용하여 몸과 사물이 이질적으로 관계 맺게 하는 방식을 통해 충동적으로 감정이 발생하고 의식적으로 그것을 억압하는 의식 행위를 그렸다. 전작인 〈Black〉이 감정의 존재를 따라가는 존재론적 탐색 작업이라면, 〈White〉는 감정이 발생하고 억압되는 기제를 따라가는 운동학적 탐색 작업인 셈이다.

〈White〉에서도 공중에 떠있는 아크릴판과 거대 스티로폼 조형물을 활용하여 중력을 거스르는 운동성과 회전성을 이용하여 난이도 높은 퍼포먼스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White〉는 〈Black〉에 비해 내리티브적 선명함도 장면적 매력도 부족하여 속편이 전편을 능가하기 어려운 현실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최영현 안무가의 작업은 개념적으로 독창적이고 하나의 주제를 파고드는 집중력이 좋으며 아주 스타일리시한 미장센을 특징으로 한다. 더불어 난이도 높은 퍼포먼스 수행력을 요구하는 운동성의 스펙터클을 활용하는 등 앞으로의 작업을 계속 기대하게 한다.

미나유 프로젝트의 〈The Road〉는 급변하는 사회를 향한 외침을 팝아트의 이미지를 통해 표현한다는 목표를 내건 작업이었다. 그러나 사회가 급변하는 원인도 방향도, 누가 무엇을 외치는지도 제시되지 않은 모호한 설정으로 내러티브의 중심도 주제도 잃고 방황한 작품이었다. 또한 팝아트의 이미지를 주요 표현형식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으나 기성의 대중적 이미지나 일상의 사물을 차용하여 사회적 발언을 하는 팝아트의 사실주의적인 접근과는 거리가 먼 추상회화적인 그래픽과 조명을 도입하고 맥락없는 소품과 음악을 사용하여 기획의도와 접근법 사이에 많은 문제를 드러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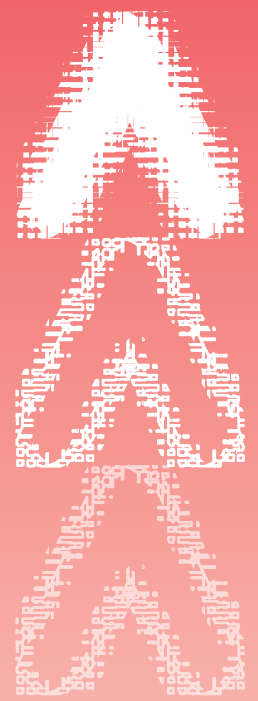







2022 ArkoSelection / ©Sang Hoon O

음악





김재훈컴퍼니

김재훈의 P.N.O

일시	2023년 1월 14일(토) ~ 15일(일)
공연시간	토 오후 7시 / 일 오후 3시
장소	대학로예술극장 대극장
러닝타임	90분 (인터미션 없음)
티켓	R석 4만원 / S석 3만원
출연진	김재훈, 나경민, 남상봉, 신예슬, 양현모, 전보람, 다이브라인 앙상블
연출·음악감독	김재훈
드라마터그	신예슬
작가	배소현
영상감독	최윤석
작곡	김재훈, 남상봉
편곡	김재훈, 서상재
사운드디자인	남상봉
p.n.o 제작	김재훈, 양현모, 박재성
안무	전보람
액팅코치	나경민
무대감독	김동영
무대디자인	장호
음향감독	안세운
피아노조율	양형주
조명감독	정진철
그래픽디자인	김기조
포토그래퍼	채드박
큐레이터	김수정
조연출	서상재
프로듀서	정혜리



철과 나무, 연쇄와 해체의 소나타

〈김재훈의 P.N.O(Prepared New Objects)〉는 피아노에 대한 사회학적 시선과 고찰에서 출발한 동시대 음악 공연이자 실험극이다. 공연은 피아노를 둘러싼 복합적인 관계망을 섬세히 살피며, 피아노를 물리적, 관념적으로 해체한 뒤 이를 재료로 한 새로운 악기 P.N.O를 구성해가는 과정을 선보인다.

김재훈컴퍼니

예술감독이자 작곡가 김재훈을 필두로 음악과 무용, 텍스트에 특화된 다양한 온라인 콘텐츠를 제작하고, 동시대적 논점과 가치를 반영하는 실험적 프로젝트를 진행해온 예술 단체이다.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축적한 스토리텔링적 매너와 높은 수준의 음악·음향적 성취를 바탕으로, 어느 한 장르에 국한되지 않고 여러 장르와 기술, 공간과 시간을 꿰어 완성해 낸 작품을 통해 관객에게는 감동과 감격을, 예술계에는 새로운 관점과 독창적인 감각을 제시하며 관객과 평단의 주목을 받아왔다. 김재훈컴퍼니는 앞으로도 오디오비주얼라이제이션 작업과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예술 실험을 이어가는 동시에 대중과의 접점을 넓히는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고자 한다.



인터뷰

김재훈 연출, 신예슬 드라마터그, 배소현 작가

실험적인 공연을 많이 해왔는데 이번 작품에서 새롭게 시도하는 방식이 있다면?

(연출) 그동안 제 공연이 완성된 악기들로 완성된 곡과 결과를 들려드리고 보여드리는 공연이라면 이번 공연은 인류가 완성했다고 생각하는 악기를 해체하면서 수없이 생겨나는 질문의 과정을 보여드리는 공연인 것 같습니다. 물론 창작진이 열심히 쌓아온 그 긴 과정이 음악과 여러 가지 도구를 통해 관객분들께 내밀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무대 연출에서 관객들이 주목해서 봐야 할 관람 포인트는?

(연출) 90분이라는 〈김재훈의 P.N.O〉의 공연 시간은 발명 이후 인류와 함께 한 피아노의 긴 여정과 공연되어 온 시간에 비하면 티끌에 불과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포착하여 소환하는 어떤 피아노들의 시간들을 눈과 귀로 흥미롭게 탐험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저희가 바라보는 피아노의 현재와 다음까지도 함께 바라보고 상상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품을 통해 관객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인가요?

(작가) 작품을 통해 어떠한 메시지를 전달한다기보다는 관객들과 무대 위의 예술가들이 피아노와 P.N.O의 세계를 함께 경험하며 치열하게 질문하는 시간이 되길 빕니다. 음악을 비롯한 공연 언어들을 통해 피아노라는 친숙한 악기가 켜켜이 품고 있는 다양한 사회 문화적 층위와 연쇄들을 재감각하며, 관객들 역시 적극적 행위로서의 응시를 수행해냄으로써 무대 위에 신악기 P.N.O가 필연적으로 출현될 수 있기를 빕니다. 그리하여 결국 인간에 대해 질문할 수 있기를. 철과 나무로 집을 짓고 무기를 만들며 피아노를 만드는 인간, 그것을 스스로 부수고 해체해 또다시 새로운 악기를 만드는 인간에 대해 질문할 수 있기를. 피아노의 다음은 곧 인간의 다음일 수도 있다는 믿음이 이 작품에 녹아있습니다.

작품의 제목을 P.N.O로 정한 의도는 무엇인가요?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나요?

(연출) P.N.O는 'Prepared New Objects'의 줄임말로 버려진 피아노들로부터 태어난 '새롭게 준비된 사물들'을 뜻합니다. 공연에서 선보이게 될, 피아노를 통해 새롭게 준비된 사물들인 P.N.O를 통해 저희는 완전해 보이는 피아노의 다음은 무엇일지, 피아노를 연주하는 인간의 다음은 무엇일지, 언제까지 피아노는 연주될 수 있을지, 2023년의 피아노를 향한 여러 질문을 던져보고자 합니다.

작품의 창작 배경이나 모티브는 무엇인가요?

(드라마터그) 단 하나의 창작 배경이나 모티브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일상 속에서 발견할 수 있었던 크고 작은 힌트들이 이 작품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당근마켓에서 찾은 피아노 나눔 게시글, 어느새 상가에서 사라진 피아노 학원, 점점 줄어든다는 피아노 전공생들, 층간소음 이슈가 대두되는 요즘은 집안에서 피아노를 치는 일이 불가능하게 느껴지는 것까지. 창작팀은 이처럼 피아노가 우리의 일상 속에서 떠나가는 이유가 무엇일지를 천천히 재고했고, 그 이유를 바꾸어보려는 힘을 〈김재훈의 P.N.O〉의 창작 동력으로 삼았습니다. 동시에 악기는 늘 사회와 호흡하며 변화해오는 만큼, '오늘의 피아노는 어떤 모습일까'라는 질문도 이번 작품에서 창작팀이 주요하게 다뤄온 모티브 중 하나였습니다.



하늬바람

<창작 실내악 음악극 붕(鵬)새의 꿈>

일시	2023년 2월 18일(토)
공연시간	오후 3시, 6시
장소	소월아트홀
러닝타임	70분
티켓	3만원
원작	김용범
구성작가	이지은
작곡	이근형
사진	이준식
연출	이광복
음악감독	김한아
지휘	황미나
연주	체임버앙상블 하늬바람
무대감독	김민석
무대디자인	양병환
조명감독	이재욱
조명오퍼	홍문화
영상감독	배윤경
영상오퍼	김요환
영상감독어시스트	김미르, 송신영
기획	서가언
행정	주해중





자유를 향한 비상,
비로소 느끼는 참다운 행복

〈창작 실내악 음악극 붕(鵬)새의 꿈〉은 어둡고 깊은 북쪽의 심해어(深海魚), 전설의 물고기 곤(鯤)이 세상을 뒤덮는 큰 날개를 가진 붕(鵬)새가 되어 세상으로 날아오르는 이야기로 시작된다. 붕새가 날아오르는 그 하늘 아래, 힘겨운 삶을 살아내고 있는 세상 속 새들의 모습 속은 우리 인간 삶의 모습이기도 하다. 그 새들을 바라보는 인간의 시선을 통해 우리 삶의 방향성을 찾아보고자 했다. 어쩌면 한낱 새들과 다를 바 없는 고단하고 힘겨운 삶 속에서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심해에서 벗어나 깨달음을 위해 끝없이 남쪽 바다를 향해 날았다는 전설의 붕(鵬)새처럼 이제는 우리도 우리 자신만의 진정한 자유, 참다운 행복을 찾아가자는 메시지를 담고자 했다.

하늬바람

체임버앙상블 〈하늬바람〉은 '서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라는 뜻으로 2012년 창단, 현재 국내 정상급 오케스트라, 실내악단 등에서 자리매김한 중견 연주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활발한 연주 활동을 하는 연주자들이 모여 순수 실내악 작품과 창작 초연 작품, 발레, 현대무용 등 순수 공연예술 연주를 전문으로 하는 단체이다. 하늬바람은 그동안 쌓아온 풍부한 경험과 기량을 바탕으로 체임버 음악(Chamber Music)의 아름답고 섬세한 표현을 작은 무대와 창작 예술 분야 등 여러 영역으로 확대하고, 타 장르의 예술가들과 협업을 통하여 다원 예술의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가며 앙상블의 본래 의미대로 조화로운 분위기와 짜임새 있는 어울림을 만들어 나가고자 한다. 하늬바람의 하나 된 소리가 감동의 울림으로 객석에 남길 희망한다.

인터뷰

이지은 구성작가, 김한아 음악감독, 이광복 연출

작품의 창작 배경과 모티브는?

(구성작가) 〈창작 실내악 음악극 붕(鵬)새의 꿈〉의 창작 배경은 오페라, 가곡, 실내악 등 폭넓은 활동을 이어온 이근형 작곡가가 김용범 시인의 29편의 연작시 〈조류학개론〉과 마주하면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시(詩)를 보고 느끼면서 작곡가에게 영감을 불어넣은 시어(詩語)를 그만의 음악적 언어로 새롭게 재창작한 것이 〈창작 실내악 음악극 붕(鵬)새의 꿈〉이다.

가장 중심이 되는 모티브는 역시 '새'다. 그리고 연작시 〈조류학개론〉에 표현된 새들의 세상이다. 이를 바탕으로 새들의 세상 속에 투영된 인간의 삶과 희망. 그리고 이를 통해 우리 자신이 깨달아야 할 삶의 궁극적 지향점 '진정한 행복이란 무엇인가'를 되새겨보기 위한 음악적 소고(小考)라 할 수 있다.

창작 실내악 음악극이란 무엇인가? 장르가 생소한데, 장르적 특징이 궁금합니다.

(음악감독) '실내악 음악극'이란 간단히 말해 소규모의 기악합주곡인 실내악에 음악극적 요소를 결합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원래 '음악극'이라는 용어는 독일의 작곡가 바그너가 극시(劇詩), 음악, 무용을 결합한 종합예술을 제창하면서 비롯되었는데 이는 연극과 음악, 그리고 무용이 결합된 하나의 연주 형태라 할 수 있다.

'음악을 본다? 그리고 시와 사진을 듣는다?'

〈창작 실내악 음악극 붕(鵬)새의 꿈〉에서 연주자는 단순히 악기를 연주하는 것을 넘어 때로 배우가 되기도 하고, 시(詩)는 대사가 되고, 작품 사진은 그 자체의 이미지로 메시지를 전달하거나 미디어아트 기법으로 살아 움직이는 무대의 배경이 되기도 한다. 〈창작 실내악 음악극 붕(鵬)새의 꿈〉은 실내악에 연극, 사진, 미디어아트, 시어(詩語)를 유기적으로 연결해 스토리텔링함으로써 실내악을 단순히 듣는 음악이 아닌 보는 음악, 즉 '음악의 시각화'를 시도한 작품이다.

문학적·연극적 요소와 음악적 요소의 유기적인 결합은 관객들에게 다양한 듣기의 방식을 제안하고 '무대공연으로서의 실내악의 확장 가능성'을 모색한 것이라 하겠다. 본 작품에서는 종합예술적 형태의 실내악이기에 〈창작 실내악 음악극〉이라는 장르적 용어를 사용하게 되었다.

작품 속 붕(鵬)새의 꿈의 의미는?

(구성작가) 〈창작 실내악 음악극 붕(鵬)새의 꿈〉에서 붕(鵬)새는 깊고 어두운 전설의 심해어 곤(鯤)에서 변신한 전설의 새다. 그는 하늘을 뒤덮을 큰 날개를 가진 붕새가 되어 깨달음을 위해 끝없이 남쪽 바다를 향해 날았다고 한다. 장자(莊子)의 소요유(逍遙遊) 편에 나오는 이야기다. 장자에 따르면 큰 것이나 작은 것이나, 삶이나 죽음이나, 옳은 것이나 그른 것이나, 아름다움이나 추함이나, 물질이나 자아나, 깨달은 사람의 눈으로 본다면 모두가 하나인 것이다. 그것을 대립된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헤매임'이며 그 헤매임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마음을 가질 때 비로소 참다운 행복은 얻어지는 것이다. 〈붕새의 꿈〉은 깨달음을 위해 남쪽 바다로 향했던 붕새처럼 '우리 인간이 궁극에 도달해야 할, 찾아가야 할 삶의 가치는 무엇인가'를 고민해 보자는 의미였다.

무대 연출에서 관객들이 주목해서 봐야 할 관람 포인트는 무엇인가요?

(연출) 〈창작 실내악 음악극 붕(鵬)새의 꿈〉은 창작산실 올해의 신작에서 처음으로 신설된 음악 부분에 선정된 세 작품 중 한 작품이다. 〈창작 실내악 음악극 붕(鵬)새의 꿈〉은 〈시의 음악화! 음악의 시각화!〉라는 지점에 연출적 목표를 두고 있다.

김용범 시인의 〈조류학개론〉 시를 원작으로 현대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 그리고 우리 삶의 한 단편인 새의 다양한 모습을 사진과 영상, 그리고 음악으로 표현하면서 지금 우리 삶의 모습을 음악화하려고 한다.
개인적으로 연극 연출을 중심으로 하는 연출자 입장에서 '시와 음악, 시와 영상, 영상의 무대화'라는 쉽지 않은 도전을 연주자 및 스텝들과 함께 고민하고 있다.

〈창작 실내악 음악극 붕(鵬)새의 꿈〉이라는 작품을 통해서 '음악을 이렇게도 시각화해서 즐길 수 있구나', '클래식 음악도 얼마든지 이미지로 즐길 수 있구나'라는 점을 관객들이 즐겨주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관객들에게 작품을 통해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무엇인가요?

(구성작가) 무엇보다 가장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사실 '힐링'이었다. 수년간 우리는 모두 불가항력의 위기에 직면했고 공포와 불안 속에서 함께 시간을 버텨내고 있었지 않았던가. 그로 인해 삶과 죽음이 몸에 닿아 있는 그림자처럼 가까웠고 위태로웠다. 그 때문인지 어떤 방식으로든 지금의 자신과 삶을 되돌아보지 않을 수 없었고, 지켜내기 위해 고단한 시간을 보냈었다. 당장 모든 것을 되돌릴 수는 없다 할지라도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의 소중함을, 지켜내야 할 가치를 함께 찾고 나누고 싶었다.

어쩌면 아름답게만 보였던 날아오르는 새들의 삶 속에서도 거친 바람, 힘겹고 남루한 삶, 치열한 생존경쟁은 존재했고 그 안에서 우리 삶의 모습도 다르지 않음을 마주한다. 고단한 삶 속에서도 새들이 날아오르기를 멈추지 않았듯, 깨달음을 위해 날아간 붕새처럼 우리도 이제는 '우리만의 참다운 행복을 꿈꿔야 하지 않겠는가'이다. 마음으로나마 이제 의식의 날개를 펴고 붕새가 되어 우리만의 행복한 꿈을 꾸어보자는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다.

격(格)을 깨고 계(界)를 넘어서

나다윤(마포문화재단 홍보마케팅팀)

대한민국의 여러 클래식 아티스트가 세계 권위 콩쿠르에서 최고의 성적을 거두며 클래식 공연에 대한 관심이 여느 때보다 높아졌다. 특히 2015년 피아니스트 조성진의 쇼팽 국제 피아노 콩쿠르 우승, 2022년 피아니스트 임윤찬의 미국 반 클라이번 국제 피아노 콩쿠르 최연소 우승은 전례 없는 팬덤과 신드롬을 만들어내며 국내 음악 시장의 지각변동을 일으키고 있다.

하지만 음악계에서는 인기 있는 연주자의 공연은 연이어 흥행을 하고 있지만 그 외에 공연은 여전히 찾는 이가 적은 빈익빈 부익부(貧益貧 富益) 현상이 심해졌다는 이야기가 들린다. 예술적 가치가 콩쿠르 성적으로 판가름 나버리는 획일화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세계 1등의 연주를 들을 수 있는 공연도 중요하지만 문화예술 저변을 확대하는 창작 공연도 반드시 필요하다.

격(格)을 깨고 - 김재훈의 P.N.O

〈김재훈의 P.N.O(Prepared New Object, 새롭게 준비된 사물들)〉는 공연예술창작산실 올해의신작에 새롭게 신설된 음악 장르에 가장 적합한 면모를 보여주는 작품이다. 피아노에 대한 사회학적 시선과 고찰에서 출발한 동시대 음악 공연이자 실험극으로 기존 음악 공연과는 차별화된 참신한 소재와 주제로 관객들을 만난다.

공연은 피아노라는 악기를 물리적, 관념적으로 해체한 뒤 새로운 악기 P.N.O를 제작하여 선보인다. 우리 주변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악기인 피아노를 부수는 행위는 마치 연극, 뮤지컬, 무용 어쩌면 전통예술, 오페라보다도 보수가 뿌리 깊게 내린 국내 음악계를 향한 일침처럼 느껴진다. 예술감독이자 작곡가인 김재훈을 필두로 주로 동시대적 논점과 가치를 반영하는 실험적 프로젝트를 진행해온 김재훈컴퍼니가 만든 이 공연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점 역시 바로 '동시대성'이다.

공연은 인류사에서 가장 완전한 발명품처럼 보이는 이 악기를 해체하고 새로운 악기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통해 피아노는 어떤 모습으로 우리 곁에 있었는지, 피아노의 다음은 무엇일지, 언제까지 피아노는 연주될 수 있을지 등 수많은 질문을 던진다. 피아노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그 질문들을 통해 피아노의 과거와 현재 나아가 그 이상을 생각해보게 된다.

다소 무거울 수 있는 내용에 대한 소통과 전달방법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민한 흔적이 엿보인다. 배우의 내레이션, 영상 등이 그 장치로 적절하게 쓰였다. 배우는 도시 뒷골목의 이발사가 한 번도 책을 출간하지 않았지만 매일 한 편의 시를 쓰고 있음으로서 스스로를 시인으로 자부했다는 이야기를 들려준다. 공연은 콩쿠르 1등이 아닌 누구도 실패하지 않는 무대를 꿈꾼다.

영상은 어느 시절엔 소중히 다뤄졌을 피아노들이 공동묘지의 묘비들처럼 나열되어 있는 중고 피아노 매장인 굼벵이 농장을 보여준다. 유년시절 추억으로 남아있는 영창 피아노 CF를 통해 집마다 피아노가 있었던 1990년 대 그 시절을 기억하게 만든다. 그 많던 피아노는 그 피아노를 연주하는 우리들은 다 어디로 갔을지 과거와 현재를 넘나들며 생각하게 만든다,

공연은 90분이라는 짧은 시간동안 치열하게 묻고 끊임없이 메시지를 던진다. 코끼리 상아로 피아노 건반을 만드는 인간을 비판하기 위해 코끼리 울음소리를 내는 악기를 만들어 연주하기도 한다. 우리는 완벽하다고 믿었던 피아노를 완전히 해체하고 나서야 피아노에 대한 새로운 질문들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계(界)를 넘어서 - 창작 실내악 음악극 〈붕새의 꿈〉

창작 실내악 음악극 〈붕새의 꿈〉은 시인 김용범의 조류학개론 29편에서 영감을 받아 시작된 작품이다. 현악, 목관 편성의 실내악 공연으로 시와 사진(영상) 그리고 연주가 각 장르 예술가들의 경계를 넘은 협업 과정을 통해 하나의 작품으로 완성되었다.

공연은 시(詩)가 가진 각각의 주제를 새롭게 스토리텔링하여 음악과 함께 풀어내었다. 다소 생소할 수 있는 창작 실내악으로 관객에게 쉽게 다가가기 위해 사진, 미디어아트, 시어(詩語)를 유기적으로 연결했다.

악기의 다양한 소리와 활용에서 창작곡의 매력을 느낄 수 있었고 특히 스토리와 자연, 새들을 모두 표현해내는 작곡의 완성도는 음악을 더욱 입체적으로 느낄 수 있게 하였다. 오페라, 가곡, 실내악 등 다양한 예술 활동을 이어온 이근형 작곡가가 곡을 만들었다. 서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라는 뜻을 가진 체임버앙상블 하늬바람의 연주도 돋보였다.

우리는 이 작품을 통해 창작 실내악 음악극의 무한한 가능성을 만난다. 서양 악기를 연주하는 실내악단이 한국적인 이야기를 하고 문학적, 연극적, 음악적 요소들의 유기적인 결합은 관객들에게 다양한 매력으로 다가간다. 이 점이 비슷한 형식의 다양한 주제를 담은 공연들이 개발될 수 있고 관객층을 넓힐 수 있다는 점에서 장르의 확장성을 기대할 수 있다.

어둡고 깊은 북쪽의 심해어(深海魚), 전설의 물고기 곤(鯤)은 세상을 뒤덮는 큰 날개를 가진 붕(鵬)새가 되어 깨달음을 위해 끝없이 남쪽 바다를 향해 날아간다. 삭막하고 힘겨운 삶 속의 경계를 넘어 자신만의 진정한 자유, 참다운 행복을 찾아가자는 메시지는 매일을 살아내기 바쁜 우리에게 큰 울림을 준다.

공연예술창작산실을 통해 세상에 빛을 본 〈김재훈의 P.N.O〉와 창작 실내악 음악극 〈붕새의 꿈〉은 지원의 취지를 잘 살린 작품들이다. 김재훈은 최초 피아노 제작자인 바르톨로메오 크리스토포리는 늘 만들던 악기만으로도 훌륭한 제작자로 살 수 있었지만 새로운 시도와 도전을 통해 비로소 피아노라는 명작을 만들어냈다는 이야기를 들려준다. 창작 실내악 음악극 〈붕새의 꿈〉은 경계를 넘어야 비로소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한다.

격(格)을 깨고 계(界)를 넘어야 우리는 더 넓은 세상을 만날 수 있다.



'김재훈의 P.N.O'와 하늬바람의 '붕새의 꿈'

홍경섭(성신여대 현대실용음악과 겸임교수)

매년 선정되는 올해의신작의 작품들은 한국의 공연예술계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필자도 몇해전부터 매년 관심을 가지고 선정작들을 살펴보고 있던 차에 이번에 음악분야 두 작품에 대해 글을 쓰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 필자는 올해의 신작 음악분야의 두 작품 김재훈의 다원음악 'P.N.O.'와 체임버 앙상블 하늬바람의 음악극 '붕새의 꿈'을 관람하였는데, 두 작품 모두 창작자의 노력이 주제의식이 명확하여 깊은 인상을 받았으며, 한국 음악계의 발전된 현실을 직접 경험할 수 있었기에매우 뜻 깊었다.

관객의 입장에서 창작자들의 땀이 묻어있는 작품을 접한다는 것은 그것의 예술적 성과와는 별개로 아주 귀한 선물을 받은 것과 같다. 즉, 그것이 어떤 쓰임이 있는 지는 중요치 않으며, 그 순간의 추억이 오랫동안 기억되는 아주 가치 있는 것이 된다. 필자도 내 개인적인 견해와는 별개로 큰 추억거리가 생겼음에 큰 기쁨을 느끼며, 글을 이어가고자 한다.

김재훈의 P.N.O.

이 공연을 보기전에 필자는 예술가로서 김재훈을 전혀 알지 못해 궁금했으나 미리 찾아보지 않았다. 그 이유는 공연을 접하기전에 형성될 선입관의 개입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는데, 타인에 의해 전달되어진 인물에 대한 불필요한 정보가 공연 작품을 감상함에 있어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작품의 본질을 보는데 방해받기 때문이다.

공연장에 들어서면서 받아든 책자(공연 팜플렛이지만, 그 내용과 두께로 인해 책자라 명칭하겠다.)는 공연의 완성도를 기대하기에 충분한 내용들이 담겼다. 작업하는 과정을 찍은 사진들, 작품에 대한 창작 배경을 이야기하는 인터뷰, 작품의 구성안, 악기 소재, 참가한 사람들 소개등 모든 것이 담긴 그 책자는 그 자체로 매우 훌륭한 작품이 되었으며, 막이 시작하기전에 필자의 기대감을 최대치로 끌어올렸다.

공연은 다채롭게 구성되었다. 배우의 스토리텔링, 피아노 솔로 연주, 무용수의 퍼포먼스, 인터뷰영상, 피아니스트와 현악 연주자들의 연주, 그리고, 작가가 피아노를 활용해서 만들어낸 신기한 악기등, 공연은 실로 변화무쌍했다. 피아노에 대한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이야기들과 창작자의 고뇌를 진심으로 알수 있었으며, 피아노가 사물이 아닌 생명체로 느껴질 정도로 생동감 있게 표현된 것이 매우 새롭게 다가왔다. 공연의 전개 과정 하나하나는 매우 매끄럽게 연결되었으며, 서로 다른 극적 요소가 이질감없이 조화롭게 하나의 주제를 명확하게 표현하였다. 하나의 버라이어티 쇼를 보는 듯한 퍼포먼스는 관객에게 큰 즐거움을 주었을 것이 분명하다.

여러대의 피아노가 무대로 이동하여 동시에 연주하거나, 피아노의 부품을 사용하여 만든 악기를 창작자 본인이 직법 연주하는 모습은 매우 인상적이었으며 탄성을 자아내기에 충분하였다. 하지만, 공연이 마치고 의문이 남는다. 그것은 바로 음악에 관한 것이다.

이 공연이 분명 음악분야의 올해의신작 선정작이기에 어떤 음악을 보여줬는가 질문하지 않을 수 없다. 작곡가로서 김재훈은 공연에서 자신의 오리지널 컴포지션을 선보였으나, 그것은 보통의 미니멀 뮤직과 크게 다르지 않았고, 앙상블 편성도 매우 단조로웠으며, 자신이 P.N.O.로 직접 연주한 곡들도 현재의 음악적 기준에서 그다지 새로울 것이 없었다. 음악분야에서도 다원이기에 퍼포먼스와 주제 표현에 집중하였다고 한다면 당위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음악분야의 선정작이라면 더욱 분명한 음악적인 성과를 보여줘야 되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남는다.









하늬바람의 '붕새의 꿈'

필자는 본 공연을 보기전 창작실내악 음악극을 접한 경험이 전무하였기에 많은 기대를 가지고 공연장을 향하였다. 입구에서 공연 팜플렛은 공연의 개요에 대해 파악하기 충분하였고, 시와 음악, 영상의 어떤 식으로 극을 이룰 것인가에 대한 기대감에 설레이기까지 하였다. 공연의 구성은 의외로 간단하였다. 창작곡의 연주, 새에 대한 영상들, 시구절들, 그것이 전부였다. 음악극이라는 형식에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된 공연인데, 물론 시의 흐름과 영상의 전개가 음악과 함께 펼쳐진다하더라도 본 공연을 극으로 인식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았다.

물론, 김용범의 아름다운 시와 이준식의 사진들은 읽고 보는 것만으로도 깊은 감동을 자아내며, 이근형의 곡들은 매우 아름다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악극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의문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연출가의 인사말에서 실내악을 대중이 더욱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시도라 하였는데, 대상이 음악을 잘 듣지 않는 관객에게라면 모를까 음악 애호가라면, 굳이 그러지 않아도 되지 않았다고 생각된다. 음악극에 대한 의문에도 불구하고 본 공연은 아주 분명한 예술적 성과를 이뤘다고 평가하고자 한다. 그것은 바로 작곡가 이근형의 곡과 하늬바람의 연주다. 창작음악으로서 곡들은 매우 완성도가 높았고, 그 자체만으로도 예술성을 인정받기 충분하며, 그것을 연주한 하늬바람의 연주력은 매우 훌륭하였다.

1막에서 4막까지의 총 12곡은 주제를 명확하게 제시 하였고, 전개과정도 매우 설득력 있었다. 앙상블 또한 음표 하나하나를 매우 섬세하게 표현하고, 훌륭한 연주력 바탕으로 아름다운 음악을 들려주었다. 음악적 완성도로 인하여, 극에 대한 아쉬움에도 불구하고 본 공연은 훌륭한 올해의 신작임에 틀림없으며, 분명한 예술적 성과를 이뤘다 하겠다.

작곡가 김재훈의 'P.N.O.'와 체임버앙상블 하늬바람의 '붕새의 꿈'은 창작자들의 독창성이 돋보였고, 현시대를 대표할 만한 예술성을 지니고 있다는 평이 전혀 과하지 않다. 이는 예술가 스스로의 노력만으로 이루기에는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이며 공연예술창작산실과 같은 예술 지원사업의 존재할 이유임에 틀림없다. 앞으로도 한국의 우수한 예술가들을 발굴하고, 지원하여 우리나라 예술 생태계를 튼튼히 하는 밑거름으로 작용하기를 기대한다. 끝으로 훌륭한 작품을 선보인 김재훈과 하늬바람에 큰 박수를 보내며, 글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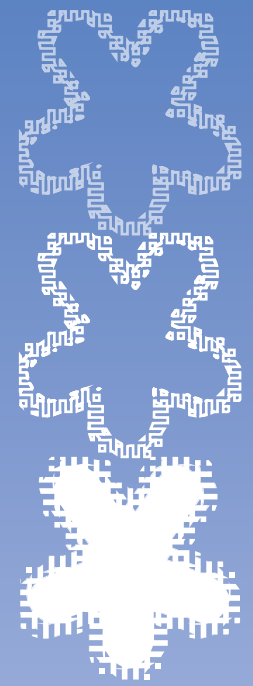








창작오페라





그랜드오페라단

피가로의 이혼

일시	2023년 2월 3일(금) ~ 4일(토)
공연시간	금 오후 7시 30분 / 토 오후 3시
장소	구로아트밸리 예술극장
러닝타임	90분
티켓	R석 5만원 / S석 3만원
지휘	이일구
연출	김태웅
출연진	김준동, 한경성, 김재민, 심규연
오케스트라	뉴서울필하모닉오케스트라
제작·예술감독	안지환
작곡	신동일
대본	박춘근
무대디자인	전성종
조명디자인	나한수
의상디자인	강신영
분장디자인	임유경
오페라코치	백순재
피아노	최유리, 김신준
무대감독	손혜선
조연출	엄선영
영상오퍼	서민경
공연기획	이나연
홍보기획	이한울



사랑의 아이콘 '피가로' 결혼 20년 차에 닥쳐온 이혼 위기

오페라 관객들에게 익숙한 모차르트의 〈피가로의 결혼〉을 모티브로 하여 오늘날 현대인들의 부부관계, 남녀관계의 여러 단면을 표현하려는 작품이다. 〈피가로의 결혼〉에서 모티브와 캐릭터를 가져와 오늘날 서울에서 일어나는 새로운 이야기로 만들어냈으며, 이야기 구성과 음악에서 〈피가로의 결혼〉을 부분적으로 모방하거나 인용하여, 다층적인 의미를 전하고자 하는 1개의 이야기, 4개의 에피소드로 구성된 4인극 옴니버스 형식의 오페라이다.

그랜드오페라단

1996년에 창단된 그랜드오페라단(단장/안지환)은 오페라를 통한 지역 문화예술의 발전을 표방하며 매년 2회의 정기공연과 기획/순회공연, 해외 유명음악가 초청 및 교육사업 등 공연예술의 대중화 및 국제교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09년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에 의한 문화체육관광부 전문예술단체로 지정되었으며, 한국 문화와 전통을 소재로 한 창작오페라 제작 등 한국 오페라의 위상을 드높이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 중이다.

인터뷰

박춘근 작가, 신동일 작곡가, 김태웅 연출

작품 창작의 배경과 모티브는 무엇인가요?

(작가) '피가로의 결혼'의 인물들은 마치 전작 '세빌리아의 이발사'의 인물들이 거울에 비친 것 같습니다.

'피가로의 결혼'에서 수잔나는 전작의 백작부인 모습으로 비치고 피가로는 전작의 알마비바 백작과 슬쩍 겹쳐 보입니다. 백작은 전작에서 자신의 적인 바르톨로 의사와 비슷한 자리에 있습니다. 두 작품 모두 부부 싸움 오페라이기도 하지만 또한 '부부 되기' 오페라이기도 합니다. 이미 결혼한 커플이 있고 이제 결혼하려는 커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만약 수잔나와 피가로가 세월이 흘러 백작부인과 백작의 모습이 된다면, 그래서 자신의 적들과 비슷한 모습이 된다면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 또 그 일이 지금 여기 한국에서 일어난다면 어떻게 될까?

〈피가로의 이혼〉은 위의 질문들로부터 출발한 또 다른 거울입니다. 그리고 이번의 거울은 모두를 한꺼번에 비추는 커다란 하나의 거울이 아니라 각자 자신의 얼굴만을 비추는 손거울들입니다. 사랑에 대한 하나의 목소리가 아니라 입장이 바뀌거나 달라진 다양한 사랑의 목소리들을 찾아보려 합니다.

이 작품에는 어떤 인물들이 등장하나요?

(작곡가) 〈피가로의 이혼〉에는 4명의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피가로의 결혼〉에서 극적으로 결혼에 성공하여 유명인사가 되었던 피가로와 수잔나 부부는 '카페 피가로'를 개업했습니다. 두 부부의 유명세로 카페는 잘 나가지만, 피가로와 수잔나는 서로에 대한 사랑과 열정이 식어 권태기를 맞이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카페 피가로'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바리스타, 바리나가 피가로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바리나에게 푹 빠져버린 피가로는 수잔나의 눈길을 피해 휴대폰으로 바리나에게 사랑 메시지를 열심히 보냅니다.

카페의 홀 담당 케루비노와 사장들 몰래 연애를 하고 있는 바리나는 피가로의 관심이 부담스럽습니다. 이를 알고 있는 케루비노는 바리나를 위해 피가로의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리려고 노력하는데, 케루비노의 행동은 바리나의 기대와 어긋납니다. 바리나는 케루비노가 고마우면서도 아쉽습니다. 오랫동안 연애했지만, 케루비노와의 관계는 더 이상 가까워지지도 멀어지지도 않는 답답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불안해진 바리나는 케루비노와의 사랑이 무르익었다고 느끼고 한 걸음 더 나아가고자 하지만, 자신의 정체성에 관한 비밀을 간직하고 있는 케루비노는 바리나와의 관계를 고민하게 됩니다.

창작오페라 연출 과정에서 특별히 중점을 뒀던 포인트는?

(연출) 새롭게 선보이는 작품이기에 등장인물들의 스토리를 잘 표현하고 보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등장인물들이 가지고 있는 각자 자신만의 이야기가 하나로 잘 어우러져 커다란 흐름을 보일 수 있도록 하였고, 음악을 통해 그들의 감정이 끊어지지 않는 한 편의 잘 쓰인 시와 같은 느낌을 주고자 하였습니다.

작품 속 음악의 주요한 특징은?

(작곡가) 〈피가로의 이혼〉의 음악적 특징은 크게 2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다양한 기법의 사용과 모차르트 음악에 대한 오마주가 적극적으로 포함되었다는 점입니다.

이 작품에서 전통적인 조성음악뿐 아니라, 대중음악을 연상시키는 화음들, 온음음계, 다양한 형태의 불협화음 등 여러 가지 작곡 기법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로지 음악적 의도만이 아니고, 각각의 장면과 감정선의 변화에 따라 드라마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연구한 결과로 나타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피가로의 이혼〉은 드라마를 음악 형식에 담는다기보다, 극의 대본을 음악으로 연출한다는 입장에서 작곡되었기 때문에 음악만으로 감상하기보다 극의 흐름을 음악이 어떤 방식으로 전달하려고 하는지 생각하면서 감상하면 좋을 것입니다.

모차르트에 대한 오마주로 이 작품에 인용된 음악들이 여럿 있습니다. 오프닝 4중창에 이은 첫 장면은 모차르트의 〈피가로의 결혼〉 첫 장면과 똑같은 음악으로 시작됩니다. 가장 확실한 오마주 장면입니다. 극 중 케루비노는 〈피가로의 결혼〉에서의 피가로처럼 치수를 재고 있습니다. 또한 영화 〈쇼생크 탈출〉에서 감동적인 장면을 연출했던 3막의 수잔나와 로지나의 이중창 "Canzonetta sull'aria" 는 "산들바람 부드럽게 노래하면" 으로



번역하여, 등장인물들을 부르는 마법의 노래와 같은 중요한 테마로 사용됩니다.

원작 〈피가로의 결혼〉의 피날레에서 로지나가 부르기 시작하여 합창으로 이어지는 용서와 화해의 노래는 〈피가로의 이혼〉에서는 의미심장하게 클라이막스 부분에 정반대의 의미를 담아 나타납니다. 그리고 모차르트의 교향곡 제40번 1악장의 테마! 모차르트의 가장 대중적인 교향곡의 선율이 〈피가로의 이혼〉에서 어떤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되었을까요? 이 질문은 〈피가로의 이혼〉을 감상하는 또 다른 재미가 될 것입니다.

작품을 통해 동시대의 관객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작가) 〈피가로의 이혼〉에는 '피가로의 결혼'의 백작부인/백작처럼 결혼 이후 세월의 힘을 못 이긴 수잔나/피가로 커플, 그리고 이제 부부가 되려는 바리나/케루비노 커플이 있습니다. 위대한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과 '세빌리아의 이발사'가 18세기 유럽의 부부와 연인들의 이야기라면 〈피가로의 이혼〉은 바로 여기에서 우리와 같이 살고 있는 부부와 연인의 의미를 물으며 그들의 고민을 듣고자 합니다.

(연출) 여러분은 진정한 사랑을 하고 계신가요? 자신이 하는 사랑은 진실하다고 믿지만 그 사랑이 상대방에게는 다른 의미가 되어 있다면, 그리고 그 사랑에 대한 믿음이 깨어진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들에게 사랑에 대한 자신만의 정의를 물어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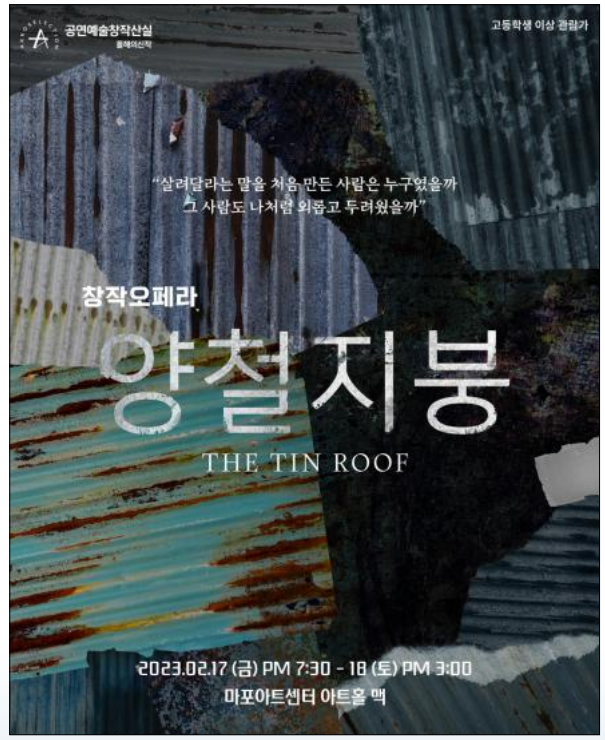
(작곡가) 세상은 빠르게 변합니다. 그런데 세상이 변하고 세대를 넘어서도 비슷하게 반복되는 사연도 많습니다. 〈세빌리아의 이발사〉에서 순수하고 열정이 넘치는 사랑을 추구했던 알마비바 백작은 결혼에 성공한 뒤 〈피가로의 결혼〉에서 권위적이고 고집스러운 모습의 기성세대를 대변하는 인물로 변모했습니다. 그렇다면 알마비바 백작의 권력을 뛰어넘어 수잔나와 결혼에 성공한 피가로는 나이가 들어서도 그의 순수한 열정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중년 부부가 된 피가로와 수잔나의 모습은 현재 우리의 삶과 크게 차이가 있을까요?

인간의 삶은 시대가 바뀌어도 변하는 듯, 변하지 않는 듯, 반복되면서 조금씩 앞으로 나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의 주목을 받으며 드라마틱한 사랑을 쟁취한 피가로와 수잔나 부부도 세월이 지나면서 우리의 모습과 다르지 않게 변화합니다. 그들이 성찰을 통해 성장할지 극복하지 못하고 절망할지 알 수 없습니다. 뜻밖의 위기를 맞이하는 젊은 연인 케루비노와 바리나 역시 세월이 지나고 나이가 들면 피가로와 수잔나와 비슷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숙해 가겠죠. 누구나 살면서 행복과 고통, 사랑과 미움, 기쁨과 슬픔을 만나고, 그때 그때 감정의 소용돌이를 겪으며 성장합니다. 그렇게 자신의 감정을 돌아보고 다스리고 극복해 가면서 인간은 어른이 되어 갑니다. 삶은 반복되지만 조금씩 전진하는 것이죠.









오페라팩토리

양철지붕

일시	2023년 2월 17일(금) ~ 18일(토)
공연시간	금 오후 7시 30분 / 토 오후 3시
장소	마포아트센터 아트홀 맥
러닝타임	95분
티켓	R석 7만원 / S석 5만원 / A석 3만원
작곡	안효영
극본	고재귀
연출	장서문
지휘	구모영
음악코치	이미나
출연진	김선정, 박미화, 주은주, 최병혁, 강현욱, 박경종, 노경범, 위정민, 한진만
무대디자이너	김현정
조명감독	박종화
의상	최영진
분장	장경숙
안무	백주미
수어지도	장진석
제작PD	이승민

'살려달라'는 말을 처음 만든 사람은 누구였을까? 그 사람도 나처럼 외롭고 두려웠을까? 그러나 세상은 듣지 않아 아무도 듣지를 않네

1987년 여름, 공사장 함바집.
양철지붕 밑에서 삶을 붙잡고 있는 유현숙과 유지숙.
그녀들 앞에 과거로부터 두 사람이 찾아온다.

한 사람은 폭력이라는 이름으로, 한 사람은 복수라는 이름으로.
어디에도 구원이 없어 보이는 두 자매의 삶은
양철지붕 위로 쏟아지는 폭염과 폭우처럼 붉고 차갑게 물들어 간다.

오페라팩토리

오페라팩토리는 2013년 창단공연을 시작으로 수십 회의 오페라 작품을 만들어 왔습니다. 창조와 도전의 핵심가치를 두고 많은 작품의 자유로운 창작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오페라 제작과 문화예술 콘텐츠를 개발하는데 힘쓰고 있습니다.

종합예술인 오페라를 애호가들뿐만 아니라 처음 접하는 관객들에게도 어렵고 이해하기 힘들다는 편견의 틀을 깨고 잊지 못할 재미, 감동, 순간을 선사하는 오페라 전문 예술단체입니다.

인터뷰

고재귀 작가, 안효영 작곡가, 장서문 연출

작품 창작의 배경과 모티브는 무엇인가요?

(작가) 용서받을 수 없는 일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돌이킬 수 없고, 회복될 수 없는 어떤 잘못에 관한 이야기.
어디에도 구원이 존재하지 않는 곳에 서 있는 사람의 목소리를 그려보고 싶었습니다.

작품 제목인 '양철지붕'이 상징하는 것은?

(작가) '양철'의 물성이 죄의식 없는 인간의 욕망과 닮았다고 생각했습니다. 뜨거운 동시에 차갑고 날카롭지만 쉽게 구겨지는 양철지붕 아래, 세상으로부터 내던져진 인물들을 놓아두고자 했습니다.

무대 연출에서 주목할 만한 포인트는?

(연출) 〈양철지붕〉은 작품 전체에 걸쳐 인간의 폭력성을 여러 각도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도입 부분 막노동자들의 일상적인 대화에서부터 구광모의 등장을 지나 박기태의 결말에 이르기까지 가볍고 무겁게, 작고 크게 매 장면에서 작품은 인간의 폭력성을 이야기합니다. 주인공 유지숙은 말 못 하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설정으로 극 중 가장 나약한 위치에 있으며 모든 것을 지켜보고 겪어내는 인물로 관객이 그의 시점에서 이입하여 작품을 따라가는 시선이 됩니다. 연출적으로는 벙어리인 이 인물의 대사처리 문제가 가장 첫 번째 숙제였는데 배우와 성악가를 모두 섭외하여 성악가가 오케스트라 피트에서 그녀의 소리를 대신하고 배우가 수화로 다른 인물들과 대화하고 연기하는 연출로 설정하였습니다. 음악극에서만 가능한 이 새로운 시도는 관객과 작품을 연결하는 중요한 고리가 될 것이고 배우의 연기와 더불어 오케스트라 피트에서 울리는 성악가의 소리의 융합이 비현실적인 감각을 표현해 내는 신비로운 효과로 전달되기를 기대합니다.

작품 속 음악의 주요한 특징은?

(작곡가) 처음 써보는 비극이었습니다. 이전에는 '한 작품 안에서 다양한 장르의 음악이 이질적으로 느껴지지 않도록 어떻게 잘 섞이게 할 것인가'가 중요했다면 이 작품에서는 '지속적이고 점차로 극대화되는 긴장감을 음악적으로 어떻게 유지 해나갈 것인가'가 주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계속 새로운 음악을 제공하기보다는 인물과 상황의 모티브들을 집요하게 그리고 조금씩, 계속 변주하여 되뇌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관객들이 즉각적으로 알아채는 부분도 있겠고 여러 번 들어야 들리는 부분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계속 찾아낼 것들이 있는) 오페라를 쓰고 싶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양철지붕〉이 처음부터 끝까지 심각하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재미있는' 오페라를 쓰는 것이 언제나 저의 목표이기에 긴장과 이완이 적절히 안배될 수 있도록 집중했습니다.

작품을 통해 동시대의 관객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작곡가) 이 오페라가 표면적으로는 두 여자의 비극적인 삶과 그들을 둘러싼 복수를 그리고 있지만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우리 사회가, 더 나아가서는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약자를 다루는 방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많은 이들, 혹은 힘겹게 뱉은 말조차 외면받는 현실에 놓인 이들과 연대하고 싶은 마음으로 이 작품을 썼습니다. 본능을 통제하지 않는 사회가 어떤 결말을 가지게 되는지 같이 목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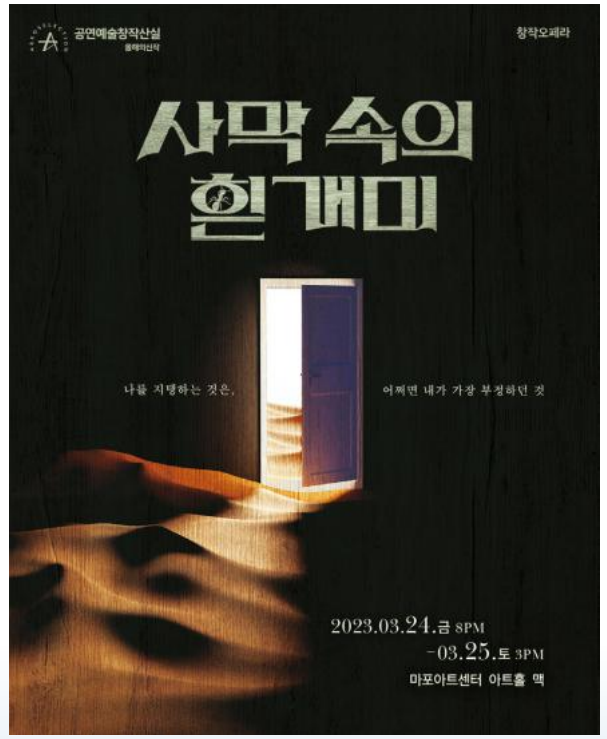




현대성악앙상블

사막 속의 흰개미

일시	2023년 3월 24일(금) ~ 25일(토)
공연시간	금 오후 8시 / 토 오후 3시
장소	마포아트센터 아트홀 맥
러닝타임	120분 (인터미션 20분 포함)
티켓	R석 7만원 / S석 5만원 / A석 3만원
예술감독	이병렬
작곡	김주원
극작	황정은
연출	윤성호
조연출	주하민
출연진	김주완, 서예은, 김보혜, 박정민, 조현애, 이두영, 홍예원
지휘	진 솔
음악감독	박진희
무대디자인	박상봉
조명디자인	노명준
의상디자인	김미나
음향	유옥선
분장	이지연
안무	이소영
제작PD	박용휘, 정혜리



나를 지탱하는 것은, 어쩌면 내가 가장 부정하던 것

극 중 대형교회의 목회자 '석필'의 집을 지탱하는 것은 거대한 흰개미 떼다. 이 흰개미는 결국 그들이 부정한 현실에서 파생된 생명체다. 즉, 이들이 부정했던 현실이 결국 이들의 집을 지탱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은유를 통해 오페라 〈사막 속의 흰개미〉는 '내가 가장 부정했던 것이 어쩌면 나를 지탱하고 있는 것'이라는 주제를 전달하고자 한다. 나아가 완전히 허물어지는 고택의 모습과 마지막 에밀리아의 대사를 통해 '모든 것이 끝난 지점에서, 진짜 시작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관객과 나누고자 한다.

선대가 세운 한 신념이 우리에게 아무런 여과작용 없이 그대로 유전된 것은 아닌지, 그 신념이 변화하는 지금의 시대에도 과연 유효한지, 또한 우리가 만들어 놓은 신념도 후대에 과연 유효할 것인지 이 작품을 통해 관객과 소통하기를 바라며 작품을 썼다.

현대성악앙상블

1997년 창단된 단체로 8명의 전문 성악가들로 이루어져 있다. 현대음악 작품 연주를 전문으로 하는 연주단체로, 1997년에 대구현대음악제에서 펜데레츠키의 작품 〈TE DEUM〉 연주를 처음으로 시작한 후 현재까지 정기연주회, 초청연주회, 해외 연주 및 특별연주 등을 통하여 국내외의 저명한 작곡가들의 성악 작품들을 꾸준히 소개해 오고 있다.

인터뷰

김주원 작곡가, 황정은 작가, 윤성호 연출

작품 창작의 배경과 모티브는 무엇인가요?

(작가) 이 작품을 쓰기 전, 개인적으로 제가 속했던 곳들에서 여러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당시에는 그저 놀람과 충격으로 그 사건들을 바라보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제 안에 하나의 질문으로 자리 잡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떤 땅 위에 서 있는가, 우리가 서있는 곳은 우리의 믿음 즉 신념으로 만들어낸 땅이 아니었을까. 이러한 여러 생각과 질문들이 이 작품을 만들게 한 것 같아요.

희곡 원작을 오페라로 재창작 과정에서 특별히 고려했던 부분은 무엇인가요?

(작가) 희곡 원작을 오페라로 재창작 하면서 고려한 점은 연극의 서사를 따라가되 오페라만의 서사로 다시 탄생시켜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연극의 이야기를 함축적으로 축약했고, 또한 주인공 석필의 마음을 대변하는 독백을 추가했습니다. 즉, 석필의 아리아죠. 바로 '사막 속의 흰개미'라는 아리아인데, 이 곡을 통해 석필이 갖는 마음의 혼란, 나아가 석필이 그토록 부정했던 아버지와 어떻게 동일한 모습으로 변해가게 되는지를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작곡가) 오페라 대본으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내용과 의미가 원작보다 더 함축적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대본과 음악이 만났을 때 관객에게로의 전달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으며, '가사가 가지는 힘을 음악으로 어떻게 드러내고 결합할 것인가?'에 대한 대답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했습니다. 음악적 구성은 최대한 간결히 구조화하고, 대사와 음악의 유기적인 연결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듣기 쉬우면서도 기억에 남을 수 있을 만한 작품을 만드는 것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작품 속 음악의 주요한 특징은?

(작곡가) 유도동기 (Leitmotiv) : 반음계의 특징을 가진 2마디의 라이트 모티브가 곡 전반에 등장합니다. 등장인물들의 선율에서 때로는 악기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 변형되어 나오기 때문에 작품을 감상하는 동안 관객들도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소격 효과 (Verfremdungseffekt) : 베르톨트 브레히트(독일의 극작가)가 사용한 기법으로 낯설게 하기라고도 합니다. 감정과 정서의 일치를 반대로 표현하여 주인공이 처한 상황을 다르게 변형시키는 것으로, 일부 음악에 적용시켜 사용하였습니다.

인용 음악 및 리듬의 사용 : 극의 분위기 변경 및 빠른 전개를 위해 관객에게 음악적으로 친숙할 수 있는 하바네라나 왈츠 같은 춤곡의 형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작품의 배경이 교회인 점을 고려하여 바흐의 코랄을 인용 음악으로 사용하기도 하였습니다.

인물별 중심 악기 사용 : 인물별로 특정 악기를 설정하여 음악뿐만 아니라 구조적으로도 인물과 음악 간의 긴밀한 연관성을 두었습니다. 예를 들어 석필은 클라리넷을 중심 악기로, 지한은 오보에를 중심 악기로 사용하였는데 이를 통해 청중들로 하여금 등장인물과 악기 간의 결합을 통해 보다 쉬운 감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 오케스트레이션을 선택하여 작곡했습니다.

무대 연출에서 주목할 만한 포인트는?

(연출) 〈사막 속의 흰개미〉는 현재 시점에서 진행되는 에밀리아라는 인물의 프레젠테이션이 작품이 진행되는 시작, 중간, 끝에 위치하고, 그 사이에 과거 시점에 벌어진 공태식 일가의 이야기가 채워지는 독특한 구조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는 대본 자체적으로 소외 효과를 의도하고 쓰인 것이고, 그에 따른 작곡도 진행되었고 연출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외 효과는 관객이 작품에 몰입하는 것을 중단시킴으로써 단순히 드라마만 따라가게 만드는 것이 아닌,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의 현재를 상기시켜 현재와 적극적으로 상호작용하게 하는 방법론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역설적으로 과거의 시점에서 진행되는 드라마는 더욱 견고하게 만들 것입니다. 지나치게 과장된 감정의 표현은 지양하고, 우리 자신에게 일어날 수 있고 동시에 현재 발생하고 있는 일이라는 감각을 가질 수 있도록 연출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리고 그 중간의 프레젠테이션은 영상과 조명의 사용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드라마를 중단, 해체함으로써 그 대비에 따른 소외효과를 표현하고자 합니다.

또 한 가지 연출에 있어서 신경 쓰고 있는 것은 흰개미의 표현입니다. 작품에서 흰개미는 고택을 중심으로 한 공태식 일가의 욕망과 폭리 밑에서 피해를 받고 억압을 받은 사람들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개미들이 그 위를 짓누르고 있던 고택과 권력의 분열의 틈새를 깨며 공간을 가득 채우는 장면은 상징적으로도, 미장센적으로도 아주 중요합니다. 영상과 조명, 배우와 합창단 모두가 합심하여 중요한 장면을 표현하려 합니다.

작품을 통해 동시대의 관객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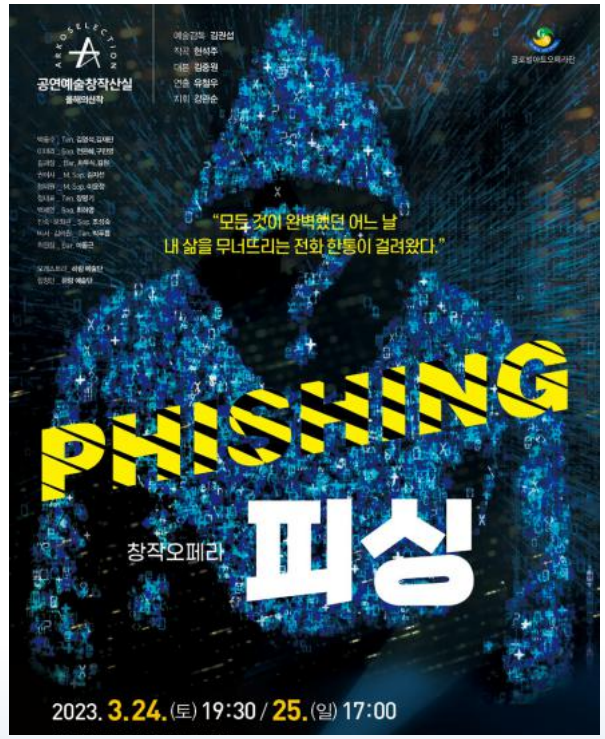
(작가) 메시지라는 말은 거창하게 느껴집니다. 관객에게 무언가를 전달하기 이전에, 저를 향해 쓴 이야기였기 때문이죠. 그동안 무엇을 믿고 살아왔는지, 또 무엇을 믿고 살고 있는지, 내가 무엇이라고 믿었던 것인지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이었습니다. 때로는 내가 믿어온 것들이 잘못된 것임을 깨닫는 순간들이 있죠. 그 순간 저를 이루는 모든 것이 무너지는 느낌이겠지만, 그래도 괜찮다고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모든 것이 무너지는 그때 정말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으니까요.











모든 것이 완벽했던 어느 날 내 삶을 무너뜨리는 전화 한 통이 걸려왔다

소호그룹의 회계부 부장 백동수는 회사에서는 믿음직스럽고 존경받는 상사, 집에서는 최고의 아빠로 하루하루가 행복한 가장이다. 그런 동수에게 어느 날 낯선 번호로부터 문자 한 통이 도착한다.

무심코 문자 속 영상을 클릭한 동수는 지난밤 안방 문을 걸어 잠그고 자기 위로를 하던 자신의 모습이 찍힌 동영상에 경악하고. 아찔해진 동수에게 곧바로 걸려온 전화, 두 시간 내로 500만 원을 보내지 않으면 휴대폰 주소록에 있는 모든 지인에게 동영상을 뿌리겠다는 협박이다. 하지만 동수는 현재 새 집 장만으로 인해 대출은커녕 조금의 여유도 없는 상황. 경찰에 신고도 해보지만 피싱 범인은 잡기 힘들다며 되려 왜 그런 짓을 했냐고 매몰차게 무시를 당한다. 시간은 점점 줄어들고 서둘러 주변 사람에게 돈을 빌려보는데...

(사)글로벌아트오페라단

2004년 창단한 글로벌아트오페라단은 지역의 오페라 발전에 힘쓰며 대중들에게 더 나은 공연을 선보이기 위해 노력합니다. 2017년에는 대전을 주제로 만든 창작오페라 〈대전블루스〉를 통해 지역민들과 함께 대전의 과거와 현재를 돌아보는 계기를 마련했고, 앞으로도 클래식 음악의 보급과 문화예술 체험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 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사)글로벌아트오페라단

피싱

일시	2023년 3월 25일(토) ~ 26일(일)
공연시간	토 오후 7시 30분 / 일 오후 5시
장소	대전예술의전당 앙상블홀
러닝타임	90분
티켓	R석 5만원 / S석 3만원 / A석 2만원
연출	유철우
작곡	현석주
극작	김중원
출연진	서필, 김세일, 전은혜, 김유미, 김원, 박창일, 김지선, 조성숙, 최하영, 이윤정, 김영석, 장명기
예술감독	김영석
음악감독	함지희
지휘	강관순
무대감독	김경원
무대제작·디자인	조영익
조명디자인	김주호
분장디자인	임유경 (페이스오프)
의상디자인	박선미
피아노	조연주, 김지은
기획	이윤정

인터뷰

현석주 작곡가, 유철우 연출

작품 창작의 배경과 모티브는 무엇인가요?

(작곡가) 우리는 늘 사람들 속에서 외롭다. 휴대전화 속 연락처가 점점 늘어나도, SNS의 행복한 모습에 팔로워가 늘어나도 우리는 늘 목마르고 외롭다. 타인의 외로움으로 공백을 채운다는 건 결국 더 짙은 외로움을 낳는 일이다. 거창하지만 결국 은밀한 사생활을 지키기 위한 고군분투, 보기에 하찮아 보일지 몰라도 모든 걸 바치는 주인공이 안쓰러운 이유는 어쩌면 이 이야기가 우리의 인생을 닮아있기 때문일지도 모를 일이다.

사회문제 '보이스 피싱'을 오페라로 만드는 과정에서 특별히 신경썼던 포인트는 무엇인가요?

(연출) 오페라 〈피싱〉은 사회문제를 소재로 한 오페라로 다소 무거운 주제를 코믹하게 풀어가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18세기의 오페라부파처럼 코믹적 요소로 사회문제를 은유적으로 비판하며 다루는 특징을 통해 새로운 오페라의 장르적 가능성을 제시한다고 할 수 있다. 대본 또한 뮤지컬의 요소처럼 극적 전환이 빠르고 긴장과 이완이 분명하며 이를 위해 음악도 좀 더 극적으로 밀도 있게 미니멀적인 요소를 통해 아리오조로 구성하여 대중친화적인 면을 부각시켰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은 사업적으로 발전 가능성이 큰 부분이며 중극장을 포함한 대극장의 작품으로도 발전시킬 수 있는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창작오페라의 발전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소재의 개발이라 할 수 있다. 보다 관객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친화적으로 오페라 양식의 장점을 통해 향유할 수 있는 문화의 장점을 누릴 수 있도록 예술가를 위한 오페라가 아닌 관객을 위한 오페라가 만들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보다 극적으로 말의 음악화가 이루어져야 하며 극적 밀도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본 작품은 이러한 점들을 보완하여 창작오페라의 발전과 관객 개발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해 본다.

작품 속 음악의 주요한 특징은?

(작곡가) 그리스비극의 구조를 활용해 합창이 3인칭 관찰자의 시점으로 해설의 역할을 감당한다. 객관적 상관물 Objective correlative로 투영되어 섬세한 감정묘사를 표현하고 극적 밀도를 높이기 위해 대사와 극의 일체된 아리오조와 아리아로 극을 이끌어간다.

주요한 음악적 특징은 장면의 특성에 따라 미니멀 요소, 혼합 음정, 선법 요소 등 다양한 음악의 요소가 활용되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장면과 인물과 대사가 돋보이기 위하기 위한 극적 요소에 집중한 음악적 배치라는 점이다.

무대 연출에서 주목할 만한 포인트는?

(연출) 창작오페라 〈피싱〉은 드라마의 시작부터 끝까지 시종일관 긴장감이 극 전체를 지배하고 있고, 인간의 내재된 욕망과 성공, 그리고 개인의 사생활과 개인의 숨기고 싶은 은밀함을 소재로 갈등과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며 드라마가 진행된다.

주인공 백동수는 겉으로 보기엔 정상적이고 멀쩡한 회사의 중견 간부이지만, 그의 삶의 은밀한 부분이 노출되면서 극은 시작한다. 그의 은밀한 사생활을 찍고 공개하겠다는 범인은 다름 아닌 그의 딸 백세인. 그녀는 돈으로 개인적인 욕망을 채우려고 아버지의 사생활을 찍고 공개하겠다고 협박한다. 그리고 결혼을 앞두고 은밀한 만남을 가지는 이대리, 그녀와 불륜 관계이면서 가정이 있는 김과장 등 등장인물 모두가 문제점과 고민을 가지고 살아가는 현대사회의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구성원들의 모습들을 적나라하게 나타내고 있다.

이번 공연은 "공연의 형식은 신선하게, 내용은 관객 누구나 공감할 수 있게"로 풀고자 한다. 각각 개성이 아주 뚜렷한 등장인물들의 아주 뚜렷한 개성과 특징들은 잘 살리고, 오페라의 레치타티보와 더불어 극적이고 감정의 폭발되는 장면에서는 연극적 대사나, 함성, 고함, 감정을 표현하는 많은 의성어들도 사용되어야겠다. 무대 세트나 조명을 포함한 장치들은 미니멀하게 간소화하며, 의상은 현실을 잘 반영하고, 드라마의 사실적 이미지를 잘 전달할 수 있어야 하겠고, 영상은 드라마 전달의 보조적인 배경 역할은 물론, 피싱의 핵심적 이미지의 전달과 은밀함과 부도덕함을 나타낼 수 있는 상징적인 이미지들도 사용하여, 신선하면서도 간결한 공연으로 관객에게 오페라의 새로운 모습으로 다가가고자 한다.

작품을 통해 동시대의 관객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작곡가) 우리는 모두 지키고 싶은 것들이 있다.

삶이 지칠수록, 사랑하는 사람이 생길수록 지키고 싶은 비밀들은 더 견고한 성벽이 되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든다.

자식들에게 힘든 삶을 보여주지 않으려 세상은 아름답다고 말하는 아이러니도, 약간의 부도덕을 통한 성공도, 신봉자들이 믿는 이념의 모순도 결국 아무도 모르는 비밀로 남아야 한다. 우리의 삶은 비밀을 지키기 위한 투쟁이다.

결국, 그 투쟁에서 남는 건 무엇일까? 인간 본성의 지켜야 할, 간직해야 할 숭고한 본질을 관객에게 이야기하고 싶다.



시대에 맞게 변하는 오페라, 그 중심에 놓인 창작산실

김지영(오페라 연출가)

듣는 즐거움 보는 즐거움

영상매체가 발달하기 전에는 카세트 테이프(Cassette Tape)나 LP판(long-playing record), CD(Compact Disc)등으로 감상했고, 연주회, 콘서트, 오페라에서도 눈감고 듣기만 한 적이 많았다. 이제는 청각(聽覺)만으로 관객에게 만족을 주는 시대는 지나갔다.

대형뮤지컬, 화려한 가수 콘서트, 다채로운 행사들을 통해 시각의 수준이 높아진 관객들에게 정통오페라는 분명 한계(限界)가 있을 것이다. 다양하게 변하는 무대장치를 비롯해 의상, 분장, 조명등 볼거리를 제공할 뿐 아니라, 캐스팅을 할 때 외모 또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다양한 시각에서 인물의 심리와 내면 갈등, 소재등을 이용한 상징적인 세트나 시대적인 배경을 현대로 바꾸어 색다른 연출을 하기도 한다.

이번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연예술창작산실에 선정된 오페라 4개의 작품 〈피가로의 이혼〉,〈양철지붕〉,〈사막속의 흰개미〉,〈피싱〉은 단조로운 원세트의 구성이 아쉬웠지만 영상과 조명 효과와 성악가들의 에너지로 빈틈없이 무대가 가득 채워졌고, 특히 〈양철지붕〉의 성악가들의 연기력은 출연진 전체가 최고의 수준이였다. 앞으로도 정통 오페라의 본질을 지키며 새로운 시도로 관객과 공감할 수 있는 창작오페라 시장이 꾸준히 형성되길 바란다.



관객에게 다가가는 오페라

이번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연예술창작산실의 선정된 오페라 4개의 작품은 오페라는 외국 것, 이해하기 힘든 것, 어려운 것 이란 틀을 과감히 깨버렸다.작품의 소재가 예전의 신화, 영웅, 귀족과 같은 동떨어진 이야기가 아닌 불륜, 복수, 성희롱, 보이스피싱 등의 현실적인 이야기로 구성되어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었다.

레치타티보(Recitativo:대사를 말하듯이 노래하는 형식의 창법) 대신 다이얼로그(Dialogue:연극이나 영화에서, 인물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대화)를 사용하여 작품의 무게를 줄이고 중극장을 선택하여 관객과의 친밀도를 높였다. 이런 변화들은 이 시대에 맞는 관객들을 만족시키기 위한 오페라인들의 노력이라 생각한다. 한국인의 정서를 담은 모국어로 된 작품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재공연이 끊임없이 이어질 수 있어야겠다.

대중에게 폭넓게 사랑받는 오페라의 탄생을 기대하며

홍경섭(성신여대 현대실용음악과 겸임교수)

올해의신작 창작오페라분야의 4작품을 보고나서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우리나라의 오페라도 이제는 고전과 Bel Canto를 지나 Verismo의 시대로 나아가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받았다.

우리나라에서 처음 공연된 오페라는 1948년 공연된 베르디의 오페라 춘희(La Traviata)였고 최초의 창작오페라는 1950년 초연된 현재명 작곡의 춘향전이었다. 그후로 수많은 창작오페라들이 올려지고 재공연되었지만 딱히 이건용 작곡의 봄봄을 제외하고는 거의 1회성의 공연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관객들의 재선택을 받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필자는 오페라를 제작하는 사람의 입장으로 볼 때 관객의 선택을 받지 못하는 공연에 제작비를 투자하여 재공연,3공연 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서 왜 그동안 창작오페라가 특정한 이해관계의 관객들 외 일반 음악애호가들의 재선택을 받지 못하고 있나라는 관점에서 들여다 봤을 때 다른 여러 가지 이유들을 차치하고서 일반대중에게 대중적으로 공감할 수 없는 소재와 대본에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있었다.

W.A.Mozart도 Lorenzo da Ponte 라는 위대한 극작가를 만난 이후 최고의 오페라들을 남겼고 작곡가 이건용의 창작오페라 봄봄도 김유정의 소설 봄봄을 토대로 하고있지만 작곡가 이건용이 직접 대본을 써서 오페라극과 음악과 가사가 잘 들어 맞는 작품을 탄생 시켰고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재공연되는 오페라가 되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이번에 관람한 4개의 작품은 완벽하다고는 볼 수는 없지만 대본의 소재나 작곡가와의 협업에서 어느 정도 진일보한 작품들이 있었다고 평가된다. 앞으로 작곡가와 대본가, 제작자가 함께 고민하고 협업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대중들에게 폭넓게 사랑받는 오페라작품이 많이 나오기를 기대해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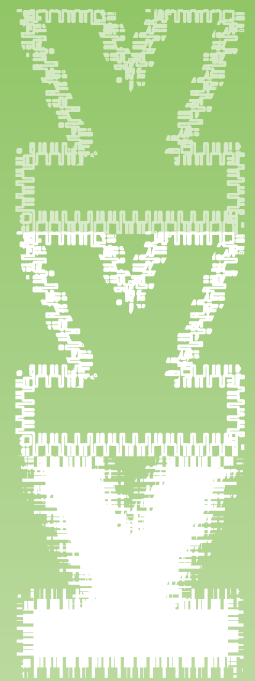








전통예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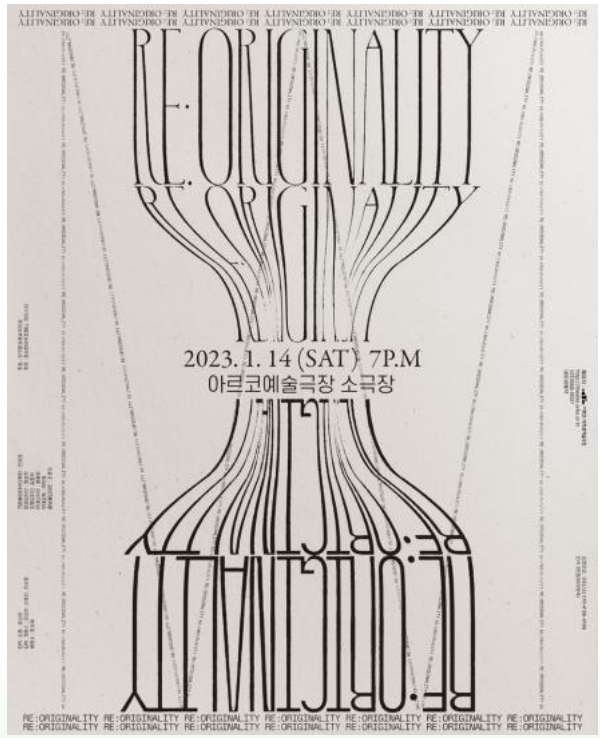




홍성현아트컴퍼니

RE: 오리지널리티

일시	2023년 1월 14일(토)
공연시간	오후 7시
장소	아르코예술극장 소극장
러닝타임	55분
티켓	전석 3만원 (비지정석)
출연진	홍성현, 강성현, 신예인, 안상용, 천성대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안희경
음악감독	홍성현
음향감독	장성학
조명감독	김종석
무대디자인	정용현
무대감독	박민호
홍보물디자인	조영욱
기획 및 운영	아티스타



동해안 무악과 전통타악, 그 본질(Originality)로의 회귀(RE:)

〈RE:오리지널리티〉는 홍성현아트컴퍼니의 창작 원천인 동해안별신굿의 정신과 가치를 보존하는 동시에 기존 연행의 형태나 텍스트, 무대 세팅 등을 재구성하여 현 시대성을 반영한 공연물로서 동해안 무악(舞樂)을 재해석, 재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러므로, 창작물이지만 단체만의 '동해안별신굿'을 만들고 발전시키는 과정을 통해 역설적으로 원류의 가치를 계승하고 발전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홍성현아트컴퍼니

홍성현아트컴퍼니는 전통타악을 중심으로 시대적 흐름과 요구에 부합하는 음악 작업을 통해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소통하며 행복을 주는 음악을 추구합니다. 2011년부터 한국 무속 장단을 기반으로 다양한 선율악기들과 협연을 보이는 '홍성현의 초벌비', 'Ver.1 Turn On', '신의 빗방울', '수호신 골매기'등 '초벌비 프로젝트'를 선보이며, 동해안 무속음악이 품고 있는 무한한 확장성과 대중성을 확인하였고, 새로운 창작작업을 통해 동해안 무속음악을 현대적으로 풀어내기 위한 시도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인터뷰

안희경 크리에이티브디렉터, 홍성현 음악감독

지금 우리가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콘텐츠로, '홍성현아트컴퍼니의 동해안별신굿'으로 발현하는 실험을 해보자. 그래서 공연 제목도 〈RE: 오리지널리티〉로, '본질의 가치를 찾는다'라는 주제를 명확하게 드러내고자 했습니다. 박장대소가 터지는 즐거움뿐 아니라, 동해안별신굿을 음악으로, 무대로, 연행자로, 관객으로 한 자리에서 다양한 역할과 감정을 경험하고 느끼는 재미를 찾아가는 여정을 만들자는 생각으로 본 작품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굿음악이란? 동해안별신굿의 특징과 매력은 무엇입니까?

(음악감독) 말 그대로 굿을 할 때 연행되는 음악을 말하는데, 무녀의 무가 소리와 양중 혹은 악사들이 연주하는 음악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동해안별신굿은 동해안 지역 어촌 마을굿으로, 마을 마다의 특성을 반영하여 굿의 내용이 조금씩 차이를 보이며 굿의 현장 상황에 따라서 무가 사설의 내용과 음악이 즉흥적으로 연행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동해안별신굿의 음악은 다른 지역의 굿에 비해 타악기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무엇보다 변화무쌍한 장단의 즉흥적 변형연주가 가장 큰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작품을 타악 프로젝트로 구성한 특별한 의도가 있다면?

(모두) 동해안 무악의 음악적 특성과 전통음악 구조 안에서의 타악기의 역할 확장을 전면화하는 시도입니다. 기존 전통음악의 구조에서 그동안 타악기는 선율악기의 반주나 효과 역할, 그리고 순간적인 폭발력을 보여주는 퍼포먼스 역할을 주로 담당했지만, 이번 작품에서는 작품 전체의 흐름을 이끄는 주요(main) 악기로서, 전통음악 안에서 타악기, 특히 장구의 역할을 확장하고자 합니다. 또한, 기존 동해안별신굿에서는 굿판의 흐름을 무녀가 주도했다면, 이번 공연에서는 타악 연주자가 주도하며, 무녀의 역할도 대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조적으로는 역할에 따라 무녀와 다수의 양중(연주자)으로 구성된 전통의 편성을 축소하여, 장구 연주자가 동시에 가창을 하는 1인 중심의 장구병창도 새롭게 시도하는 등 동해안 무속음악의 타악적 특성을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무대 연출에서 관객들이 주목해서 봐야 할 관람 포인트는?

(크리에이티브디렉터) 〈RE: 오리지널리티〉의 키워드이자, 동해안 굿음악의 특징이며 본질인 '원시성', '즉흥성', '관계성', '현장성'을 객석 운용과 무대 디자인에 담았습니다. 먼저, 이번 공연에는 좌석이 없습니다. 그리고 공연 중에 관객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극장 안에서 하는 공연이지만 마치 극장 밖에서 보는 듯 장소적 경계를 모호하게 설정했습니다. 원형으로 모여 앉은 연주자들을 둥글게 에워싸듯 관람하시면 됩니다. 공연을 보시다가 다리가 아프시면 그냥 극장 바닥에 앉아서 보셔도 되고, 자리를 옮겨 다니며 이 연주자, 저 연주자를 다양한 각도에서 관찰하실 수도 있습니다. 기존의 극장 공연을 기대하신 분들은 다소 낯설고 불편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관객이 보고 싶은 대로 보고, 연주자와도 격의 없이 가깝게 소통하는 경험이 되길 바랍니다. 연주자와 연주자, 관객과 연주자, 관객과 관객이 더없이 가까운 공연이니, 공연 중간중간 여러분의 감정을 가감 없이 표출해 주세요. 전통에서는 추임새라고 하는데, 흥이 오를 때, 공감할 때, 연주자를 응원하고 싶을 때, '얼씨구, 잘한다, 좋다'라고 외칩니다. 이번 공연에서는 추임새도 좋고, 다른 어떤 표현도 언제든 모두 환영입니다. 그렇게 관객의 에너지를 더욱 가깝게 받는 공연자들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건네기도 하고, 계획하지 않은 즉흥의 신명을 음악으로 표출하기도 할 것입니다.

연주자가 앉은 자리의 천장에는 동해안 무구 이미지를 활용한 모빌이 설치됩니다. 모빌은 공연 당일 현장의 온도, 공연자와 관객의 위치와 움직임 등에 변하는 기류에 따라 매 순간 다른 움직임이 발생하기 때문에 고정된 설치물이지만 예측 불허한 자유로운 움직임과 율동감을 통해 생명력을 가집니다. 이러한 모빌의 특성은 동해안 무악이 현재까지 원형의 생명력을 가지며, 다양한 음악적 실험과 변주를 통해 '현재의 전통'으로 발전해 온 시간적, 예술적 가치와 더불어 매 공연마다 다르게 맺어지는 연주자와 연주자, 연주자와 관객, 관객과 관객 간의 관계로 발현되는 현장성과 즉흥성 또한 내포합니다. 동해안별신굿의 지화는 그 자체로 전통의 공예품으로서 예술적 가치를 갖고 있지만, 본 공연에서 특수 프린트한 2D 이미지의 무구는 팝아트와 같이 '원형'의 '복제'와 '변형'을 통해 새로운 '원형'을 만드는 과정을 재현하는 것입니다.

작품을 통해 관객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인가요?

(모두) 공연을 보시고, '도대체 동해안별신굿이 뭐지?' 하는 호기심이 발동하고, 그것이 음악 활동을 하는 단체뿐만 아니라, 전통음악과 예술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으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전통타악의 섬세하지만 끝없는 신명을 느끼시는, 모쪼록 낯설지만 재미있는 경험의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작품의 창작배경과 모티브는?

(크리에이티브디렉터) 홍성현아트컴퍼니는 동해안 무악에 기반한 전통타악을 모티브로 꾸준히 창작을 해오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동해안 무악을 접할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만, 우연히라도 경험하게 되면, 마치 파도가 넘실대듯 변화무쌍하고 동시에 섬세한 타악 연주의 매력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거 참 좋은데, 뭐라 설명할 방법이 없네'라던 한 자양강장제 광고와 같은 고민을 저희도 늘 하고 있습니다. 동해안별신굿에서 사용되는 용선, 지화, 풍등 등의 오브제는 전통의 공예품으로, 연행되는 음악과 연행 방식은 동해안 지역의 문화적 특성과 고유의 가치를 표현하는 작품으로서 각각 높은 예술성을 지니고 있고, 이것이 동해안별신굿이 특별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공연장을 찾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래전 바닷가 어촌 마을에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며 풍어와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며 살던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고 있죠. 공동체 문화에서 외부와 실내의 경계가 없는 장소에서 행해지던 별신굿의 콘텐츠를 극장 안으로 들어와 무대에 맞게 변화시키는 과정에서 많은 시행착오도 겪었습니다. '시대의 흐름과 사회의 변화에 맞춰 우리는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가'라는 큰 물음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관객들에게 이 음악을 선보이고 또 공감을 얻어낼 수 있을까. 우리는 지금 무엇을 잘하고, 무엇을 놓치고 있을까.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이런 고민의 끝에 항상 걸리는 단어가 '공감'과 '즐거움'이었습니다. 단체가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타악 연주를 통해 변하지 않는 동해안별신굿의 가치와 매력을 되짚고, 그것을







판소리아지트 놀애박스

판소리 쏫스토리 – 모파상 篇

일시	2023년 1월 27일(금) ~ 29일(일)
공연시간	금 오후 8시 / 토 오후 3시, 7시 30분 / 일 오후 3시
장소	대학로예술극장 소극장
러닝타임	100분 (인터미션 없음)
티켓	3만원
각색·연출·작창	박인혜
출연진	박인혜, 김성근, 심미령, 오초롱, 정상화
무대디자인	박동우
조명디자인	김건영
음향디자인	정새롬
의상디자인	우영주
무대감독	강노을
홍보물디자인	아페퍼
PD	신아름
조연출	이은채



이, 이, 이야기는 어젯밤 스친 꿈같은. 그저 짧은 이야기!

〈판소리 쏫스토리 – 모파상篇〉은 판소리아지트 놀애박스의 '단편소설 시리즈' 중 첫 번째 작업이다. 단편소설이 가진 간결함과 형식미가 판소리 '대목' 양식과 공통점을 갖는다는 생각에서 시작되었다.

프랑스 대표 작가 기 드 모파상(Guy de Maupassant)의 1880년대 단편소설 〈보석〉, 〈콧수염〉, 〈비겟덩어리〉를 각기 다른 컨셉의 1인극으로 공연하고, 모파상이 던졌던 인간에 관한 질문이 여전히 유효함을 확인한다.

판소리아지트 놀애박스

'판소리아지트 놀애박스'는 판소리 1인극, 창극, 뮤지컬, 드라마 등을 넘나들며 판소리 창작 작업을 이어온 판소리 창작자 박인혜를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판소리가 가진 특수성을 통해, 전통 장르를 넘어 보다 한국적인 음악극을 만들고 이를 국제 공연시장에 선보이고자 계획하고 있다. 첫 작품 〈오버더떼창: 문전본풀이〉는 판소리 합창으로 들려주는 제주도 신화로 2021년 두산아트센터 '두산아트랩'을 시작으로, 의정부음악극축제 창작음악극 쇼케이스 'Next Wave' 최우수 작품상을 수상, 2021년 서울국제공연예술제(SPAF)에 공식 초청되었으며, 2022년 두산아트센터 공동기획작으로 선정되었다.

인터뷰

박인혜 각색·연출·작창

판소리 쏫스토리는 무엇인가요? 작품 창작의 배경은?

단편소설을 읽다 보면 군더더기 없는 간결함과 형식미에 매료됩니다. 그리고 모음집을 통해 여러 단편을 연이어 읽다 보면, 짧은 이야기가 또 다른 짧은 이야기로 넘어갈 때 특유의 감상이 있지요. 그 감상을 무대 위로 올려보고 싶었습니다. 한편으로 단편소설의 그 미감이 판소리 '대목'이 갖는 형식미나 독자성과 닮은 부분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판소리 쏫스토리-모파상 篇〉은 우리의 "단편소설 시리즈" 중 첫 번째 작업입니다. 프랑스 대표 작가 '기 드 모파상'의 단편소설인 〈보석〉, 〈콧수염〉, 〈비곗덩어리〉를 각기 다른 컨셉의 짧은 1인극으로 구성한 판소리 공연인데요. 모파상의 이야기는 짧은 단편 안에서도 날카롭고 위트가 있습니다. 이 점에 주목하며 판소리에서 시작된 다양한 상상력을 개별적으로 작동시켜 세 편의 이야기를 풀어보았습니다.

기존의 판소리를 현대화하는 게 아닌, 새롭게 단편소설을 판소리로 창작하는 과정에서 특별히 고려했던 점이 있나요?

우선적으로 이 이야기가 판소리의 특질과 잘 맞는지 판단합니다. 판소리가 지닌 장점을 구체적으로 고려하고, 판소리가 '잘하는 것'으로 풀어낼 수 있는 이야기에 호감이 생깁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여전히 이 이야기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가?'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판소리의 특징들, '이야기성', '음악', '판소리 배우의 연기술' 등을 고민합니다. 특히 판소리는 음악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기존의 음악어법이 지금의 대중에게 어떻게 들리는지,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확장시킬 수 있을지 고려하고 있습니다.

판소리 쏫스토리의 첫 번째 작품으로 '모파상'의 작품들을 선택한 이유는?

기 드 모파상은 300여 편의 단편소설을 남긴 19세기 후반 프랑스 소설가입니다. 모파상의 작품은 특정한 유파로 한정할 수 없는 다채로운 스펙트럼을 보여줍니다. 그 안에는 인간에 대한 섬세하고 날카로운 관찰이 있어서, 독자에게 거울을 들이밀며 "너도 이렇지?"라며 허를 찌르는 것 같기도 하죠. 그러면서도 이에 관한 이야기들을 위트 있게 그려내는데요. 이 점이 무척 매력적이었습니다.

이번에 선택한 〈보석〉, 〈콧수염〉, 〈비곗덩어리〉는 모파상 특유의 질감 안에서도 개성이 강한 이야기들입니다. 인간의 속물근성, 작은 키워드 하나에서 펼쳐지는 확장력, 전쟁 속에서 드러나는 본능과 충동. 삶의 어두운 부분을 과감하게 보여주되 건강하고 생동감이 있습니다. 이 개성들이 판소리의 또 다른 다양함과 어떻게 만나 작동하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무대 연출에서 주목해서 볼 만한 포인트는?

기본적으로 우리는 '비어있는 무대'를 선호합니다. 그 안에서 이야기를 재미있게 들려주고 듣는 이들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것이 판소리가, 우리가 제일 잘 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이야기 세 편의 개성을 살릴 수 있도록 '연출적 포인트'를 다르게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악기를 다르게 매칭 시켜 질감의 변화를 주려고 했습니다.

세 편의 이야기가 전환될 때마다 관객들은 빠르게 미련 없이 앞 이야기를 '훌훌' 털어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의심 없이' 다음 이야기를 만나주셨으면 좋겠어요.

작품을 통해 관객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인가요?

세상이 빠르게 돌아갈수록 많은 것을 쉽게 재단하거나 유형화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모파상의 이야기를 만나면 우리가 쉽게 판단했던 '인간 유형'이라는 것을, '가치'라는 것을 다시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지점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덧붙여 판소리가 가진 여러 아름다움이 그 이야기를 전하는 적절한 도구가 되길 희망합니다. '판소리' 역시 쉽게 재단되거나 유형화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연희공방 음마갱깽

절 대목(大木)

일시	2023년 2월 3일(금) ~ 5일(일)
공연시간	금 오후 7시 30분 / 토, 일 오후 4시
장소	아르코예술극장 소극장
러닝타임	60분
티켓	3만원
출연진	이주원, 방성혁, 김성대, 윤현진, 배정찬, 서장호, 김용훈, 장우찬
연출	김지훈
인형·무대디자인 및 제작	음대진
작곡·음악감독	박미향
미술디자인·영상	이미림
조명감독	조우
음향감독	김재희
무대감독	김동영
총괄PD	박미향
행정	옥민아, 박미덕



혼탁 속에 연꽃을 피우다

절 대목(大木)을 구현하는 전통 인형극의 '절 짓고 허는 거리'.

예능과 공예가 한데 어우러진 무형문화재이자, 최고의 예술로 평가된다. 덜미 인형극의 마지막 거리인 '절 짓고 허는 거리'는 인형들로 들추어낸 욕망을 다스려 일시 절제시키고, 이어 이를 다시 허물으로써 갈등의 회귀(回歸), 더 나아가 공(空)을 보여준다.

창작 인형극 '절 대목'은 인간의 욕망을 더욱 짙게 들춰내기 위해 전통인형극에 전통 탈춤의 이야기를 덧붙여 각색한 작품이다.

연희공방 음마갱깽

'음마(音摩)' 소리를 어루만져 음악을 만들고, 갱깽은 대장간에서 나오는 소리의 의성어로 인형 및 인형막, 악기 등 공연에 필요로 하는 오브제들을 만든다는 뜻이다.

2016년 창단한 연희공방 음마갱깽은 풍물, 탈춤, 무속음악, 전통음악, 작곡, 미술 디자인 전공으로 단원이 구성되어 있으며, 특히 국가중요무형문화재 제3호인 '남사당 놀이' 중 덜미(인형극)를 중심으로 온고지신의 정신을 지키면서도 현 시대에 맞는 풍자와 해학을 인형극을 통하여 보여주고자 하는 단체이다.

또한 여러 인형제작 방식에 대한 연구와 개발을 통해 전통인형의 한계점을 극복하고 다양한 표현과 움직임이 가능한 전통 인형들을 개발하여 대중들에게 국악과 전통연희, 나아가 전통인형극과 창작인형극을 접목한 음마갱깽만의 유일한 오브제 극을 알리고자 한다.

인터뷰

김지훈 연출, 음대진 인형제작자

작품의 제목과 주요 내용을 간단히 설명해주신다면?

절 대목은 "절을 짓는다" 의미를 담아 '절'과 '대목'을 엮은 말입니다. 우리나라의 전통 인형극인 '꼭두각시놀음' 중 '절 짓고 허는 거리'를 모티브로 하고 있습니다. 작은 인형들로 절을 짓던 장면들을 사람이 직접 부재를 나르고 조립하는 장면으로 확대 표현하여 대목의 섬세함과 장대함을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욕망에 의해 타락된 인간의 삶. 이들 삶의 작은 조각들이 인형극으로 펼쳐치고, 곧이어 집단적 욕망의 그림으로 합쳐지며, 탐욕주의의 추잡한 낯을 쳐들게 됩니다. 이어 번뇌가 춤과 연주로 얽히고설켜 복잡하게 무대에 펼쳐집니다.

흙탕물에서 연꽃을 싹 틔우듯, 번뇌 속에 좌불인형이 솟아오르고 사람들은 좌불을 모셔 욕망을 다스릴 깨달음을 얻기 위해 절을 짓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또다시 중용의 시소에서 무게를 잃게 되며 번뇌에 뒤덮이고 맙니다. 결국 모든 것이 퇴색되고, 힘겹게 쌓아올린 절마저 허무히 헐리며, 우리의 삶처럼 이야기는 순환의 고리에 올려지게 됩니다.

작품 창작의 배경과 모티브는 무엇인가요?

무형문화재는 예능과 공예로 분야로 나뉘어 전승되고 있습니다.

이중 '꼭두각시놀음'의 경우 과장 안에 인형으로 절을 지으며 공예분야의 대목을 약식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체적으로 대목을 표현하기 위해 전문교육기관의 교육을 통해 대목을 학습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기존 인형극의 한 과장인 '절짓고 허는 거리'를 모티브 삼아 '절 대목'이라는 작품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인형극으로 다양한 작품들을 선보여왔는데, 이번 작품 속에서 인형 디자인의 주요한 특징은 무엇인가?

이번 작품에는 목에 관절을 넣어서 상좌가 기도를 드릴 때 목이 내려가는 모습을 사실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전신 인형으로 제작될 상좌인형 또한 인형인 듯 사람인 듯 움직임의 디테일을 살리고 인형의 표정이 사실적으로 표현될 수 있도록 눈과 입 등 신체의 여러 부분이 움직일 수 있는 메커니즘을 첨가한 것이 주된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무대 연출 등 관객들이 주목해서 볼 만한 포인트를 짚어준다면?

아기자기 나아가 웅장하기까지 한 인형과 '인형술', 말의 맛을 살리는 '장단 대사', 노동의 반복을 춤으로 승화한 '동작과 동선' 등 전통 연희의 여러 요소를 활용한 연출을 통해 극을 풀어내고 있습니다. 또한 생소한 대목의 일부 과정을 직접 보실 수 있게끔 준비하여 우리의 무형문화재 예능과 공예분야의 정수를 두루두루 느끼실 수 있습니다.

작품을 통해 관객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인가요?

'욕망을 병합적 시선으로', 욕망에 의해 사건이 발생되고 사건 끝에 깨달음이 피어나고 다시 망각하여 욕망이 발생하는 삶. 욕망이 없다면 아무 변화가 없는 건조한 삶이 될 것이고, 욕망이 지나치면 치명적 사건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평생 나아가 중용의 시소에 올라 번뇌를 다스리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저희의 고민을 여러분께 한편의 인형극으로 펼쳐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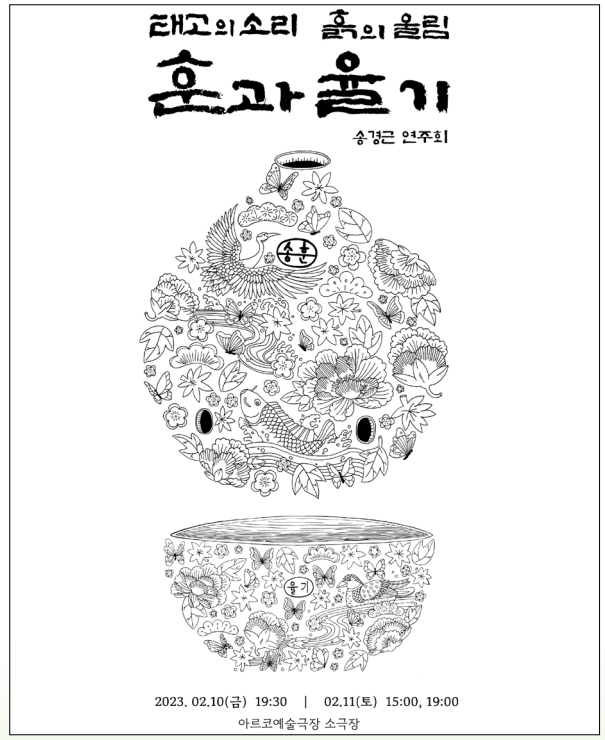




공간서리서리

태고의 소리, 흙의 울림, 훈과 율기

일시	2023년 2월 10일(금) ~ 11일(토)
공연시간	금 오후 7시 30분 / 토 오후 3시, 7시
장소	아르코예술극장 소극장
러닝타임	90분 (예정)
티켓	2만원
출연진	송경근, 강선일, 박승원, 김위연, 윤보연, 임용주, ZEZE
공연연출	서형원
음악작곡	송경근, 박승원, 강선일, 김위연, 신창렬
무대디자인	송경근 공희경
무대감독	이희진
음향	에어시스템즈
조명	신희
조연출	조상구
영상오퍼	정재윤
기획	정우인
캘리그래피	서정현



본 공연은 잊혀진 전통악기 '훈'과, 같은 소재인 흙으로 만든 타악기 '율기'가 소개되는 공연이다

1116년 고려 예종 때 '훈'이라 불리는 흙으로 만든 관악기가 우리나라로 들어왔다. 사과만한 크기의 5개의 지공이 송송송송송 뚫려 있는 도자기관악기이다.

공간서리서리에서 만든 창작악기 도자기관악기 '송훈' 그리고 도자기타악기 '율기'로 만드는 다양한 음악들. 그리고 '송훈'으로 연주하는 '송훈산조' 등 새로운 전통음악을 소개한다.

공간서리서리

공간서리서리는 지속적인 창작활동을 모티브로 활동을 하고 있는 프로젝트그룹 이름입니다. 대나무 공예를 시작으로 도자기 관악기 '훈'을 복원하고 개량하여 '송훈'이라는 악기를 만들고 또 '훈'을 소재로 연극과 음반, 음악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나무와 흙이라는 자연소재를 통해 '빛과 소리'의 새로운 창작 콘텐츠를 찾아내고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훈'으로 '서용석제송경근류 송훈산조'를 만들어 소개하고 있습니다. 산조라는 전통의 음악을 새로운 악기로 표현하며 악기 '훈'의 가능성을 조금씩 조금씩 찾아가고 있습니다.

인터뷰

송경근 예술감독

작품 속에서 '훈'과 '율기'는 어떻게 활용되나요?

훈은 멜로디를 담당하는 악기입니다. 멜로디 중에서도 서정적인 멜로디가 있고 밝은 멜로디가 있고 오랜 전통에서 만들어진 멜로디가 있고 판소리의 가락에서 옮겨진 멜로디도 있고 새롭고 독특한 멜로디도 있습니다. 훈은 이러한 멜로디를 연주할 예정이고요.

율기는 이러한 멜로디의 때로는 리듬으로 도움을 주거나 때로는 멜로디로 도움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무대 연출 등 관객들이 주목해서 볼 만한 포인트를 짚어준다면?

우리는 기존의 화려하고 디지털적인 사운드에 많이 익숙해져 있습니다. 이번 공연에서는 흙을 통해서 새로운 아날로그적인 감성을 만들고 싶습니다.

'훈'과 '율기'의 소리 위에 여러 악기들이 어떻게 어우러지는지 편하고 따뜻하게 음악을 감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품을 통해 관객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인가요?

1116년에 우리나라로 들어온 관악기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아무도 모르지만 교과서에는 자랑스럽게 '흙으로 만든 우리의 관악기'라고 쓰여 있습니다. '훈'을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잊혔던 소중한 악기 '훈'을 다시 바라봐 주세요.

작품 창작의 배경과 모티브는 무엇인가요?

성경에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나왔습니다. 인간은 죽어서 흙이 되지요. 흙은 우리 인간의 고향이자 근원입니다. 흙으로 만든 악기에 사람의 온기를 불어넣어 주는 악기는 인류 최초의 관악기로 탄생하였습니다. 도자기관악기 '훈, 도자기타악기 '율기'.

흙은 그렇게 인간과 음악을 연결해 주고 있습니다. 흙에서 만들어지는 여러 소리를 찾고 싶어졌습니다. 흙에서 만들어지는 다양한 감성으로 작품을 만들고 싶어졌습니다. 흙으로 만든 우리의 전통악기 '훈'과 '율기'를 복원 개량하고 싶어졌습니다. '훈'과 '율기'의 소리는 어머니의 뱃속에서 들었을 법한 소리, 바로 태고의 소리입니다.

흙으로 만든 악기, '훈'과 '율기'에 주목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훈'은 흙으로 만든 관악기이고요. 우리나라 전통악기로 기록된 악기이기도 합니다. '율기'는 흙으로 만든 유율 타악기이고요. 소재는 같지만 다른 감성과 비슷한 감성을 가지고 있는 악기입니다.

훈은 1116년도 우리나라로 들어왔지만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 악기이고요. 율기는 기존에 있던 존재였지만 이름을 얻게 되어 세상으로 나온 악기입니다. 잊혀진, 없어진, 없었던, 다시금, 새로이 이런 단어와 참 어울리는 악기입니다. 전 세계 3종류밖에 없는 도자기관악기 '훈'이 이번 공연을 통해 더욱이 더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전통의 시대적 과업- 창조적 계승 중심에 '공연예술창작산실-신작의 발견'이 있다

김희영(사회적협동조합 놀터 이사장)

전통의 시대적 과업- 창조적 계승 중심에 '공연예술창작산실-신작의 발견'이 있다

전통예술은 보존과 창조적 계승이 시대적 과업이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공연예술창작산실-신작의 발견' 지원 사업은 전통이 창조적으로 계승될 수 있도록 전통예술생태계에 창작거점을 마련해주는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주고 있다. 이로부터 전통예술의 대중화, 현대화, 세계화가 지속가능해짐으로써 한국예술사의 한 부분이 채워지는 것이다.

신작. 이제 막 태어난 신생아 같기도, 한 아이를 잉태하여 낳은 어버이 같기도

새롭게 태어난 창작작품을 흔히 접할 수는 있어도, 창작은 결코 쉬운 작업이 아니다. 창작성이 있어도 예술로 승화시켜 공연화 되기까지는 예측할 수 없는 고귀한 고통의 과정이 뒤따른다. 2022 창작산실 '올해의신작'은 기획부터 제작까지 공연예술 전 장르에 걸쳐 단계별(기획 쇼케이스(무대화) 본 공연) 연간 지원을 통해 우수 창작물을 발굴하는 아르코의 대표 지원사업이다.

1차 서류심사와 2차 PT/인터뷰 심사, 3차 실연심사를 거쳐 총 28편의 작품이 선정되었다. 그 중 전통예술은 4편, 홍성현아트컴퍼니의 〈RE: 오리지널리티〉 판소리 아지트 놀애박스의 〈판소리 쏫스토리 모파상 篇〉 연희공방 음마갱깽의 〈절 대목(大木)〉 공간서리서리의 〈태고의 소리, 흙의 울림, 훈과 율기〉이다.

공연예술창작산실- '올해의신작'- 타장르와의 포용성과 끝없는 도전정신이 조화를 이룬 전통예술 4편

4편의 선정작은 전통예술의 독창성과 특수성을 기반으로 한 주체적 입장에서 전통예술이라는 정형화된 장르의 경계를 넘어서 세상의 모든 장르와의 협업이 가능하다는 것을 과감하게 보여주었다. 타장르와의 친근한 포용력과 시대를 끌고 가려는 끝없는 도전정신이 예술성에 대한 깊은 고민의 노력과 어우러져 창작에 한계가 없음을 여과 없이 보여준 작품들이다.

'현대 무대미술과 당대의 굿판이 만난 곳에 가장 복잡하고 익히기 어려운, 변화무쌍한 무속장단이 대장이 되어 우리를 들었다 놓았다 하다.'

중요무형문화재 동해안별신굿의 보유자인 故김용택의 음악적 기록 자료를 바탕으로 하되, 시대변화에 따른 사설 변형과 굿을 상징하는 오브제로 무대를 재해석하고, 무녀를 돕는 창부재인(倡夫才人)이라 할 있는 장구잽이가 리더가 되어 장구병창으로 연행해가는 별신굿으로 재해석 한 〈RE: 오리지널리티〉 '세계 문학작품이 판소리와 연극의 강점을 만나 멀티 재능을 겸비한 소리꾼으로부터 재탄생되다.' 모파상의 간결한 형식미의 단편소설이 사설이 되어, 한국 고유의 음악 콘텐츠인 '판소리'가 가지고 있는 음악적, 연극적 요소가 기반이 되어, 기존 '단가(短歌)'와도 다른, 판소리 한 대목에 가까운 방식이되, 1인극 성악 작창(作唱)으로 기존 음악극과도 차별성이 엿보이는 〈판소리 쏫스토리-모파상 篇〉

'무형유산의 기능분야와 예능분야가 만나 시공간을 넘어 공감할 우리 삶의 이야기로 우리를 위로해주고 따뜻하게 안아주다.'

유네스코세계무형유산인 '남사당놀이' 중 백미인 '절 짓고 허는 거리'를 국가무형문화재 제74호 대목장 과정을 실제 이수하고 있는 김지훈 연출가와 음대진 인형 제작자가 도편수의 감수 아래 고증을 거쳐 실제로 등장하는 절 짓는 과정을 연희-인형극으로 만들어, 대목의 예술성과 인형극의 협업으로 덜미 인형극의 예술성을 극대화한 〈절 대목(大木)〉'1차 사료 중심 연구, 자주적 수용 결과. 시대와 같이 가고자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한 음악사의 남겨질 소중한 기록과 시작이 되다.'

'음악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기에 자연 그대로의 재료로 악기를 만든다.' 한국전통악기의 대표적 재료 8가지(八音) 중, 흙(土)의 재료로 만들어진 의식음악 악기로 전승된 훈을 다양한 장르와의 자유로운 연주가 가능토록 개량한 송훈과 송훈 산조 탄생, 음정이 있는 유율타악기로 태어난 율기. 이 악기들의 역사성과 현재까지의 창조적 계승과정을 스토리텔링화 하여 음악극으로 이어가는 창작작업은 예술사적 의의가 큰 〈태고의 소리, 흙의 울림, 훈과 율기〉

'올해의신작' 출연자들의 다양한 역량에서 예술계 멀티시대를 엿보다

 예전 명인(名人) 선생님은 악(樂)가(歌)무(舞) 종합예술을 모두 겸비한 다재다능한 예술인이였다. 한국무용과 장단의 명무 명인이자 연출 기획자인 한성준 명인, 해금과 시나위 명인이자 국악이론가이며 최초 국악오케스트라를 창단한 지영희 명인, 거문고 병창해금의 김영재 명인, 가야금병창과 병창곡을 편작곡하고, 여성국극의 주역인 박귀희 명인 등 수많은 명인 선생님들이 계신다. 전통예술이 입시교육제도 안에서 전공교과로 세분화되고, 체계화되는 과정에서 종합 예술인이 배출되기 쉽지 않은 환경이 지만, 다양한 정보와 기회가 넘쳐나는 디지털 시대에 특정 전공의 경계가 무색해지고 있음을 체감하는 예술계이다. 전통예술인들의 타 장르 연마 또는 협업은 사대주의도 아닌, 일탈도 아닌, 멀티의 결합을 통해 태어난 창작예술 신작인 것이다.

'올해의신작' 전통예술 선정 4편의 출연자들은 1인 다역의 멀티 예술인이였다. 연주자들은 한 가지 악기가 아닌 다양한 악기를 연주하고, 악기제작, 작곡가, 때로는 전통 소리 창자가 되기도 하고, 고증을 하는 이론가이자 연출 감독, 해설가가 되기도 하였다. 판소리 창자는 판소리의 음악적 요소(소리아니리발림)를 기본으로 하되, 민요와 정가 발성을 서사에 맞게 자유자재로 노래하며 배우이자, 각색 연출감독, 제작자자가 되기도 하였다. 이 시대 명인의 정의와 범위는 무엇일까? 이 시대 명인에 대해 생각해보게 하는 공연이었다.

K-전통한류의 확장성과 문화다양성을 위해서도 지속가능하도록

올해로 15년차를 맞이한 '공연예술창작산실-올해의신작'의 공연예술 지원사업은 계속될 것이다. 아니 계속되어야만 한다. 국공립 기관 소속으로 보장된 환경에서 창작을 하는 것이 아닌, 개인예술가나 단체들 대부분의 창작환경은 실력과 무관하게 예산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예산과 창작이 비례한다고만 할 수는 없지만, 예술을 하기 위해 다른 일로 생계를 걱정해야하는 예술인들이 존재하는 현재 예술인 생태환경에서 '공연예술창작산실-올해의신작'은 든든한 파트너이다.

세상 밖으로 나온 올해의신작의 모든 작품들이 '공연예술창작산실'이라는 든든한 파트너와 함께 작품성과 대중성을 겸비한 한국의 대표적인 레퍼토리가 되어, '글로컬(Glocal) 시대에 K-전통한류로 확장되고 지속가능해지길 바라본다.



전통예술의 동시대성 그리고 새로운 전통

신정혜(판소리보존회 서울중구 지부장)

〈RE: Originality〉, 〈판소리 쏫스토리-모파상 편〉, 〈절 대목(大木)〉 그리고 〈태고의 소리, 흙의 울림, 훈과 율기〉.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연예술창작산실〉이 야심차게 내놓은 2022 전통예술 부문 올해의신작이다.

이번 작품은 동시대의 시대적 가치를 품은 동해안 별신굿, 각기 다른 양식으로 단편소설을 판소리로 창작한 판소리 쏫스토리, 무형문화재 예능과 공예 분야의 정수를 느끼고 연희의 여러 요소를 통해 레퍼토리의 다양함을 보여준 전통 인형극과 전통 탈춤의 이야기 그리고 잊혀진 전통 관악기 '훈'의 복원 및 개량과 음정을 가지고 있는 창작 타악기인 율기의 소개로 이루어졌다. 이를 통해 전통음악의 시대적 흐름과 요구를 각기 다양한 예술적 방식으로 녹여낸 작품 안에서 새롭고 신선한 시도로 엿볼 수 있었다.

홍성현 아트컴퍼니의 〈RE: Originality〉는 동해안 별신굿의 정신과 가치를 보존하면서 현시대를 반영하여 타악기로만 재해석, 재구성하였다. 이를 통해 과거 마을 중심의 대규모 연행을 현대에 맞게 연주자 1인의 장구병창으로 축약하는 음악적 실험을 시도했다. 이와 더불어 현대화된 무대 조명과 디자인을 통해 동해안 별신굿의 원시적인 생명력을 시각화하였다.

전통 사설의 내용을 현대화시켜 '오리지널리티'를 살리면서 새로운 음악적 텍스트로 변용시킨 동시에 무대 위에서 쌍방향 소통의 현대적 굿판을 복원하였다. 즉 시간적, 사회적 흐름과 변화에 따라 새롭게 해석되는 '오늘의 동해안 무악'을 선보였다고 생각한다.

판소리아지트 놀애박스의 〈판소리 쏫스토리-모파상 편〉은 단편소설이 가진 간결함과 형식미가 판소리 '대목' 양식과 공통점을 갖는다는 구상에서 시작하게 된 작품이다. 프랑스 작가 기드 모파상의 단편소설을 기반으로 세 작품을 각각 다른 컨셉의 1인극으로 구성하여, 판소리가 가진 특성을 새롭게 표현하려는 시도가 돋보였다. 판소리의 장르를 중심에 놓되, 다양한 전통음악어법을 흡수하고 아니리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구현하여 단편소설과 판소리의 시너지가 작용, 판소리가 가지고 있는 포용력과 흡수성, 유연함이 돋보이는 공연이었다. 다양한 형태로 변주된 레퍼토리가 기대된다.

연희공방 음마갱깽의 〈절 대목(大木)〉은 전통 덜미 꼭두각시놀음의 마지막 종막에 해당하는 절 짓고 허는 거리를 실제 도편수의 고증을 통해 우리 고유의 집 짓는 과정을 실연하였다. 이를 통해 시각적 극대화를 추구하고 전통예술 공연의 형식으로 재현된 점과 다양한 표현과 움직임이 가능한 전통 인형을 개발하고 제작하여 전통 인형의 한계점을 극복한 점이 특히 돋보였다. 남사당놀이 자체가 갖는 뿌리 깊은 전통의 힘을 기반으로, 전통 인형극에 전통 탈춤과 연희의 여러 요소를 가미하여 레퍼토리의 다양함을 엿볼 수 있었다. 장구와 북을 합쳐놓은 타악기를 가지고 연주와 춤이 결합한 꽉 짜인 군무의 타악기 퍼포먼스를 비롯하여 재담을 랩으로 구현, 그 밖에 무대바닥에 글자를 새기는 행위예술, 전통 이미지의 스크린 활용 등을 통해 전통예술을 현대적으로 표현하려는 시도가 인상 깊었다. 여러 방면의 협업을 통한 장르적 결합을 통해 시대가 원하는 새로운 전통 인형극의 확장이 기대된다.

공간서리서리의 〈태고의 소리, 흙의 울림, 훈과 율기〉는 국악기를 만드는 8가지 재료 중 가장 원초적이라 할 수 있는 토(흙)를 주제로 인류의 최초의 관악기인 훈을 복원하여 선율을 연주 할 수 있도록 송훈으로 개량하고 음정을 낼 수 있는 율기라는 도자기 타악기를 선보여 다양한 시도와 접근을 통해 전통악기로서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는 공연으로 독보적 개성을 선보였다. 작품 속에 악기 복원과 개량 및 제작하게 된 배경과 과정 등을 녹여 서사적인 접근에 충실한 점이 인상 깊었다. 전통과 창작의 균형 있는 영역 확장과 지점을 제시하고 아날로그 소리와 전자음악과의 조화를 통해 새로운 전통을 매력적으로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전통악기를 찾아내고 소개하고 전통음악의 새로운 시도를 통해 새로운 길을 제시하려는 시도를 엿볼 수 있었다.

인지 행위로서의 예술을 주창한 페터 바이벨은 예술이 세상을 인지하는 하나의 행위라고 말한다. 전통예술 역시 끊임없는 변용을 통해 세상을 인지하고, 또 세상을 보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한다. 전통성과 현대성은 상호 배타적인 것이 아니다. 서로 의존할 때 그 예술성은 극대화된다. 따라서 전통예술을 포함한 모든 예술 진흥의 초점은 인간의 다양한 관점을 어떻게 아름답고 조화롭게 보여주는가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공연예술창작산실〉은 세상을 보는 다양한 관점들의 건전한 예술생태계 조성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창작산실을 통해 선정된 작품을 통해 전통의 정신과 가치를 보존하면서 동시대의 새로움을 견인하고 우수 창작 레퍼토리로의 발전 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작품들의 영향으로 인해 향후 다양한 창작 콘텐츠가 기대된다,

정신과 가치를 보존하면서 전통음악의 시대적 흐름과 요구를 각기 다양한 예술적 방식으로 보여준 새로운 시도를 통해 전통을 기반으로 미래지향적인 가치를 제시하고 전통예술의 새로운 길이 되어 전통 예술계의 새로운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작품을 〈공연예술창작산실〉 통해 기대해본다.



공연예술창작산실
올해의신작
역대 선정작
2008-2022

연극 분야 역대 선정작

선정연도	작품명	단체명
2008	그류? 그류!	창작공동체 아르케
2008	그 샘에 고인 말	극단 코끼리만보
2008	바다 거북의 꿈	극단 골목길
2009	1동 28번지, 차숙이네	극단 놀땅
2009	경성스타	연희단 거리패
2009	미친극	극단 백수광부
2010	매기의 추억	극단 작은신화
2010	복사꽃 지면 송화 날리고	극단 이루
2010	사랑이 온다	극단 전망
2011	그리고 또 하루	극단 연우무대
2011	모든 이에게 모든 것	극단 작은신화
2011	숲 속의 잠자는 옥희	극단 백수광부
2012	그 집 여자	극단 전망
2012	봄이 사라진 계절	극단 작은신화
2012	싸움꾼들	극단 청우
2013	2인실(二人室)	극단 풍경
2013	고공정원	극단 산
2013	팬지	극단 이루
2013	헤비메탈 걸스	극단 명작옥수수밭
2014	경복궁에서 만난 빨간 여자	창작공동체 아르케
2014	공장	극단 미인
2014	그 봄, 한낮의 우울	한강아트컴퍼니
2014	그림자 아이	공연제작센터
2014	날아다니는 돌	극단 백수광부
2014	맘모스 해동	공상집단 뚱딴지
2014	미국아버지	극단 이와삼
2014	색다른 이야기를 읽기 취미를 가진 사람들에게	극단 대학로극장
2014	엄마	극단 작은신화
2014	홍준씨는 파라오다	극단 놀땅
2015	고제	극단 돌파구
2015	달빛 안갯길	한양레퍼토리
2015	떠도는 땅	극단 두
2015	방문	극단 풍경
2015	우주의 물방울	극단 피오르
2015	토일릿 피플	극단 작은신화
2015	하나코	극단 물리
2016	소나기마차	공상집단 뚱딴지
2016	신인류의 백분토론	극단 공연배달서비스 간다
2016	인어; 바다를 부른 여인	창작집단 꼴
2016	좋은 이웃	극단 수
2016	쪽마루 아틀리에	아트브릿지
2016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	극단 피악
2016	툇마루가 있는 집	창작공동체 아르케
2016	하늘로 간 청춘팥	플레이그룹 잼잼
2016	혈우	극단 M.Factory
2017	고래가 산다	유목민
2017	깨비가 잃어버린 도깨비 방망이	하땅세
2017	모래시계	극단 목화
2017	'미인도' 위작 논란 이후 제 2학예실에서 벌어진 일들	극단 위대한모험
2017	선을 넘는 자들	극단 놀땅
2017	암전	극단 두

선정연도	작품명	단체명
2017	최서림, 야화순례기행전	극단 백수광부
2018	가미카제 아리랑	극발전소301
2018	배소고지 이야기;기억의 연못	프로덕션IDA
2018	분노 하세요!	극단 파수꾼
2018	비명자들1	고래
2018	빌미	극단 인어
2018	세기의 사나이	극단 명작옥수수밭
2018	하거도	극단 작은신화
2019	목련 아래의 디오니소스	극단 난희
2019	수정의 밤	극단 여행자
2019	체액	즉각반응
2019	터널구간	극단 그룹 動 시대
2019	마트료시카	극단 수
2019	아랫것들의 위	극단 마고
2019	대신 목자	극단 물리
2019	의자 고치는 여인	극단 물결
2020	에볼루션 오브 러브 Evolution of Love	극단 김장하는날
2020	달걀의 일	창작집단 푸른수염
2020	누란누란	극단 산수유
2020	깐느로 가는 길	극단 명작옥수수밭
2020	고역	공연연구소 탐구생활
2021	메이드 인 세운상가	극단 명작옥수수밭
2021	탈피	극단 Y
2021	신신방	극단 실한
2021	낮은 칼바람	TEAM돌
2021	콜타임	호랑이기운
2021	화로	극단 인어

선정연도	작품명	단체명
2022	빵야	㈜엠비제트컴퍼니
2022	노스체(NOSCE)	프로젝트집단 세사람
2022	미궁(迷宮)의 설계자	연극집단 반
2022	견고딕-걸	극단 작은방
2022	엑스트라 연대기	그린피그
2022	하얀 봄	극단 놀땅

창작 뮤지컬 분야 역대 선정작

선정연도	작품명	단체명
2008	오월엔 결혼할거야 (웨딩펀드)	오디뮤지컬컴퍼니
2009	도도	학전
2009	달콤한 나의 도시	오디뮤지컬컴퍼니
2009	번지점프를 하다	㈜뮤지컬해븐
2009	왕세자 실종사건	극단 죽도록달린다
2010	넌 가끔 내 생각을 하지, 난 가끔 딴 생각을 해	파파프로덕션
2010	식구를 찾아서	극단 오징어, MJ Planet
2010	콩칠팔 새삼룩	모비딕 프로덕션
2011	Trace U(그 남자의 비밀)	㈜장인엔터테인먼트
2011	Underneath Memory (언더니스 메모리)	㈜스컹크웍스
2012	내 결혼식에 와줘	공연예술제작소 비상
2012	덕혜옹주	극단 그애생각
2012	미드나잇 블루	㈜더프로액터스
2012	영웅을 기다리며	파파프로덕션
2012	완득이	㈜에이콤인터내셔날
2013	공동경비구역 JSA	CenS
2013	가야십이지곡	창작집단 기능재부
2013	곤, 더 버스커	오픈런뮤지컬컴퍼니
2013	런웨이비트	달 컴퍼니
2013	정글라이프	김선미무용단
2013	주홍글씨(A)	극단 죽도록달린다
2014	너에게 빛의 속도로 간다	㈜위네트웍스
2014	달빛요정과 소녀	극단 차이무
2014	바람직한 청소년	㈜이다엔터테인먼트
2014	봄날	극단 하늘하늘
2014	신과 함께 가라	뮤지컬이야기쇼
2014	아보가토	LSM Company
2014	파리넬리	에이치제이컬쳐
2014	운영(서천 꿈길, 저편)	서울오페라앙상블
2015	스페셜 딜리버리(맘2맘)	신나는 극단 하늘 나는 오징어
2015	안녕! 유에프오	LSM Company
2015	에어포트 베이비	㈜신시컴퍼니
2015	웰다잉	스페셜원컴퍼니
2016	경성특사	비무브드 컴퍼니
2016	광염소나타	아시아브릿지컨텐츠
2016	레드북	바이브 매니지먼트
2016	청춘, 18대 1	극단 죽도록달린다
2017	줄리앤폴	컬처트리
2017	찰리 찰리	㈜연우무대
2017	카라마조프	주식회사 아츠온
2018	마리 퀴리	라이브㈜
2018	재생불량소년	아웃스포큰
2018	HOPE:읽히지 않은 책과 읽히지 않은 인생	㈜알앤디웍스
2019	안테모사	공연창작소 M.A.P.
2019	봄을 그대에게	㈜컬처마인
2019	Via Air Mail	메이크어스 엔터테인먼트
2019	아티스 ARTIS	㈜홍컴퍼니
2020	그라피티	우리별이야기
2020	히드클리프	㈜엠비제트컴퍼니
2020	쿠로이 저택엔 누가 살고 있을까	㈜랑
2020	인사이드 윌리엄	연극열전

선정연도	작품명	단체명
2021	이상한 나라의 아빠	㈜다아트
2021	#해시태그	㈜바움커뮤니케이션
2021	PIP-위대한 유산	파파프로덕션
2022	청춘소음	시작프로덕션㈜
2022	앨리스	섬으로 간 나비
2022	다이스	(주)컬처마인
2022	윌리엄과 윌리엄의 윌리엄들	컴퍼니 일상,적

무용 분야 역대 선정작

선정연도	작품명	단체명
2011	2040년의 하루	SEO발레단
2011	대답없는 외침	김경영
2011	비애모	김용걸댄스씨어터
2011	<발레-판소리> "발레가 발레를 추다.."	백영태
2012	Once Upon A Time In 발레	와이즈발레단
2012	Untitled	정형일 Ballet Creative
2012	천개의 기억	백연옥
2012	회향	글로벌 컨템포러리 발레단
2013	5번째 Birthday Party 抛球 ROCK(포구락)	프로젝트 수(手) & 안팍 Ann-Park
2013	Fake Diamond	Collective A
2013	스코틀랜드의꽃	이원국발레단
2013	I'm so tired	예효승
2013	VANITY(무상)	LEE발레단
2013	관(關)_처용을 주제로 한 다섯 개의 아포리즘	강미리할무용단
2013	스크루지 (크리스마스 캐롤)	조윤라발레단
2013	파랑새	문영철발레뽀에마
2013	푸너리 1.5	장유경무용단
2013	행,간(between the lines)	리케이댄스
2014	RAGE	(사)서울발레시어터
2014	FATAL	Company J
2014	계보학적 탐구	(사)트러스트무용단
2014	눈	댄스씨어터 창
2014	백 개의 머리를 가진 여인	김경영
2014	시저테일 서전트	박나훈무용단

선정연도	작품명	단체명
2014	심청	이경옥무용단
2014	안녕	김설진
2014	천	김선미무용단
2014	2015	미나유(유정옥)
2014	Smile Mask Syndrome	이정연댄스프로젝트
2015	THE DOOR (La Danaide)	오!최진수발레단
2015	거울속의 거울	마홀라 컴퍼니
2015	길 떠나는 가족	최소빈
2015	뉴턴의 3법칙	안수영컴퍼니
2016	소무	Art Project BORA
2016	안중근, 천국에서의 춤	M발레단
2016	화火, 화和 - 바람을 만나다	정신혜무용단
2016	공상 물리적 춤	오!마이라이프 무브먼트 시어터
2017	귀신(鬼神)고래	윤수미무용단
2017	당신의 바닥	PDPC
2017	시집가는 날	(사)서울발레시어터
2018	옛날옛적에	고블린파티
2018	음형공간(□.□□□) - Atopos	콜렉티브 콜라보레이션
2018	인간	신현지
2019	침묵	나인티나인 아트 컴퍼니
2019	"The Chaos" 혼돈	최상철현대무용단
2019	Baroque goes to Present	와이즈발레단
2019	Perfect death	Ground Zero Project
2020	가상 리스트, Virtual List	원댄스프로젝트그룹
2020	가족놀이	PDPC
2020	물속 골리앗	김범호
2020	美 A (미아)	휴먼 스탕스

선정연도	작품명	단체명
2017	인생의 사계를 그리는 춤 -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봄...	김남식&댄스투룹-다(Da)
2017	Down the rabbit hole	댄스프로젝트 Tan Tanta Dan
2018	Hidden Dimension	UBIN Dance
2018	NUTCRUSHER	허성임
2018	개미	프로젝트 클라우드 나인
2018	댕기풀이	이경옥 무용단
2018	매스?게임!	장은정무용단
2018	변신	류장현과 친구들
2018	소극적 적극	고블린파티
2018	평행교차	안애순
2019	오월바람	오월바람
2019	호모파베르	호모 파베르
2019	군림	Soo d Art & Co
2019	□청 랩소디	라만무용단
2019	Body Rock	미나유
2019	Swan Lake; The wall	정형일 Ballet Creative
2019	Hit & Run	시나브로 가슴에
2020	평안하게 하라	댄스프로젝트 Tan Tanta Dan
2020	BLACK	노네임소수
2020	플라스틱 버드	최지연 무브먼트
2020	호모 모빌리쿠스	김남식&댄스투룹-다(Da)
2020	고요한 순환	무용단Altimeets
2020	그런데 사과는 왜 까먹었습니까?	YJK댄스프로젝트
2020	두 개의 혀 – A Double Tongue	다크서클즈 컨템포러리 댄스
2020	돌	휴먼 스탕스
2021	모빌리티	멜랑콜리댄스컴퍼니
2021	굿(Exorcism)_사도	댄스씨어터 창

선정연도	작품명	단체명
2021	28조톤	초록소
2021	조동	김성훈 댄스프로젝트
2021	Senseless violence(부제: 이해할 수 없는 폭력)	유장일발레단
2021	윤회매십전	윤회매십전
2022	> "hello world" ;	댑댄스프로젝트
2022	Recall; 불러오기	화이트큐브 프로젝트
2022	On the Rock	모든 컴퍼니
2022	태양	시나브로 가슴에
2022	클라라 슈만	(사)서울발레시어터
2022	WHITE	노네임소수
2022	더로드(The Road)	미나유(유정옥)

음악 분야 역대 선정작

선정연도	작품명	단체명
2022	김재훈의 P.N.O	김재훈컴퍼니
2022	창작 실내악 음악극 붕(鵬)새의 꿈	하늬바람

창작오페라분야 역대 선정작

선정연도	작품명	단체명
2010	도시연가	대구오페라하우스
2010	사랑방손님과 어머니	강동아트센터
2011	나는 이중섭이다	코리안챔버오페라단
2011	천 년의 사랑	창음예술
2012	쉰 살의 남자	부평아트센터
2012	아리 아리랑	한오페라단
2013	루갈라	호남오페라단
2016	붉은 자화상	서울오페라앙상블
2017	1953	오페라앙상블C
2018	검은 리코더	(사)라벨라오페라단
2018	인형의 신전	영산오페라단
2019	김부장의 죽음 (원제:이반 일리치의 죽음)	오페라뱅크
2019	까마귀 (원제:내가 까마귀였을 때)	라벨라오페라단
2020	뱀이 심장을 먹었어	김앤리프로덕션
2021	장총	서울오페라앙상블
2022	피가로의 이혼	그랜드오페라단
2022	피싱	(사)글로벌아트오페라단
2022	양철지붕	오페라팩토리
2022	사막 속의 흰개미	현대성악앙상블

전통예술 분야 역대 선정작

선정연도	작품명	단체명
2016	거문고 스페이스	허윤정
2016	해미오와 금이에	해금연구회
2017	아리랑, 삶의 노래-흩어진 사람들2	사단법인 정가악회
2017	오셀로와 이아고	천하제일탈공작소
2017	완창판소리프로젝트1	이향하
2018	"생사의" - 죽음에 관한 삶의 음악	왓와이아트
2018	도공지몽-잊혀지고 있는 우리의 악기 "훈"의 재발견	송경근
2018	창극 <내 이름은 사방지>	송경근
2019	삼대의 판	천하제일탈공작소
2019	완창판소리프로젝트2_강산제 수궁가	입과손스튜디오
2019	8음(八音)	음악그룹 나무
2019	오래된 미래 : 내 엄마의 엄마의 엄마의 이야기	해금플러스
2020	新 심방곡	신노이
2020	새판소리 <마당을 나온 암탉>	지기학
2020	울릴 굉轟	임용주
2021	정가악회 콘서트 <탈춤은 탈춤>	사단법인 정가악회
2021	TIMER	연희앙상블 비단
2021	꼭두각시	음악동인고물
2022	RE: 오리지널리티	홍성현아트컴퍼니
2022	판소리 쏫스토리 - 모파상 篇	판소리아지트 놀애박스
2022	절 대목(大木)	연희공방 음마갱깽
2022	태고의 소리, 흙의 울림, 혼과 율기	공간서리서리

2022년 공연예술창작산실 올해의신작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 정병국

사무처장(직무대행) | 송시경

예술창작본부장 | 이윤희

예술극장장 | 강량원

공연예술부

부장 | 홍승욱

기획운영 | 전희영, 정미연, 김정, 백연미, 두송희, 김지연, 박유빈

관객개발 | 김지연

극장운영부

부장 | 정영순

대관 | 송윤정, 류정숙, 임나래

제작·기획 | 오선명, 이유진, 김자은, 성경희

홍보 | 황금실

고객지원센터 | 이유수

하우스 | 이경민, 황수희, 박유진, 김우석, 김태연

티켓 | 이주담, 정혜영, 김지수

시설 | 이기복, 박동진, 박성국, 윤지환, 유호성

무대기술부

부장 | 진용남

무대팀 | 유창대, 이동선, 신동환, 박민호, 김인성, 서지훈, 김혜지, 원소미, 이동현, 이미현

조명팀 | 이주환, 탁형선, 김지산, 이명한, 김도형, 박선임

음향팀 | 도명호, 김경남, 허선영, 김종현, 남영모, 정하윤

협력사

홍보운영총괄 | ㈜아이디어랩

영상제작 | ㈜아이디어랩, 연두픽처스, 푸른잎커뮤니케이션

공연중계 | 푸른잎커뮤니케이션

공연사진 | 송인혁, 유경오, 옥상훈, 하지영

키비주얼 | 스튜디오 펀데이